

금주의 법구–〈대애도비구니경〉
술은 독약이고 독수이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3월 20일) 2022년 4월 20일 수요일

한국 禪 대중화 본산 세계명상마을 문열다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4월 20일 공식 개원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불교 전통수행법인 간화선을 비롯한 한국 선을 세계인들에게 전할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이 4월 20일 오후 1시 문을 연다.

한국불교 대표 수행터전인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인근에 위치한 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간화선 중흥과 세계화를 결의한 전국선원수좌회의 염원이 담긴 국제선센터다. 간화선을 K-meditation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도량으로 불교계 안팎의 기대가 높다.

봉암사 인근 희양산 자락 위치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성철, 청담 스님 등 한국불교 중흥을 일군 선지식들이 주석하며 정진한 봉암사 인근에 자리했다. 문경 희양산 자락의 8만 4000여㎡(2만 5410평)에 이르는 넓은 대지에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 수행이 가능한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됐다.

세계명상마을은 일반인 전용 수행공간과 수좌의 숲속 수행처가 함께 있는 승가수행공동체 국민참선방으로 꾸며졌다. 명상관 2동 · 명상숙소 · 세미나실 · 명상카페 등으로 이뤄졌다. 간화선과 초기불교 통합 수행이 가능한 선체험센터다.

여기에 추가 불사를 통해 마당 있는 '무문관 꾸띠(개인 수행처)', 외국인 스님과 스님 개인 수행처 '숲속 꾸띠', 일반인 개인 수행처 꾸띠, 숲속 명상길 등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집중수행, 선지식 지도 눈길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에서는 '9일간의 화두명상 집중수행' 프로그램이 매월 한차례씩 진행된다. 이와 함께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3일간 수행, 평일 선스테이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주말 3일 수행 외 다른 프로그램은 '고엔카위파사나 10일 코스'처럼 무료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8월 15일부터 6박 7일간 대한민국 청년 희망캠프를 열고, 300여 한국청년들이 정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명상마을 선스테이는 참선 마스터인 월암 스님(용성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지도하게 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수좌스님들이 직접 질문응답을 이어간다. 선스테이엔 300명 가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초창기엔 100명 정도를 수용할 예정이다.

추가 불사에 불자 관심 필요

이번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개원은 한국불교의 맥을 잇는 대선사들을 모시는 '제4차 간화선대법회'와 함께 진행된다. 화려한 대법회 이면에는 추가불사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지난해 12월 10일 상량식을 하며 그 위용을 드러냈고, 12월 25일 국비로 건물공사는 완료했다.

사실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불사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청빈한 수좌 스님들이 불사를 담당하기에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사 자부담금의 부담이 컸다. 우여곡절 끝에 2021년 세계명상마을 원만 완공을 위해 서울 강남 참불선원을 이끄는 각산 스님을 총괄책임자로 영입, 선원장으로 임명하여 불사가 진행됐다.

희양산 2만 5천 평 부지에
명상관 2동 · 숙소 등 구성
간화선·초기불교 통합수행

주말3일, 9일 집중수행과
여름 청년희망 캠프 예정
수좌 스님들이 직접 지도

무문관 꾸띠, 숲속 꾸띠 등
2차 추가 불사 지속적 추진
K-명상 도량으로 거듭날터

현재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불사는 본동 역할을 하는 웰컴센터 다목적 체험관과 명상대웅전인 중선방, 하선방, 그리고 참선템플스테이 명상숙소 등 건물이 지어진 상태다. 이제 선방불사와 주변정비 등 나머지 불사가 남아 있다. 선방불사 필요액은 전체불사비 210억원 중 5%인 10억여원이다. 또한 세계명상마을 진입로에 위치한 교량불사도 과제로 남아있다. 교량불사의 경우 시주공덕자의 이름이 새겨진다.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한국불교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대자유의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귀의처가 될 것"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이 살아있는 수행승가 건설에 불심을 다시한번 더 모아주시길 발원한다"고 말했다.

5면 특별기획 · 미리보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의 중심건물이 되는 명상대웅전(중선방)과 오른쪽 다목적 체험관의 모습. 미국 유명건축가인 토마스 한라한 플랫대 교수의 설계로 한국불교 전통건축의 현대적 해석이 시도된 건물이다. 사진/봉암사 명상마을=노덕현 기자

신설 '조계종 여성불자회' 조직화 박차

포교원 12일 설립추진위 발족
33명 위촉… 6월에 공식 출범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2일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전국적인 포교 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습니다."

조계종 제8대 포교원(원장 범해)이 민주적이고 대의적인 전국 여성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그 첫 발걸음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했다. 종단에 대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대규모 여성불자 단체가 새롭게 설립된다는 점에서 교계 안팎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은 4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식은 대내외적으로 본격적인 조계종 대표 여성 조직 출범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 포교원은 이날 발족식에서 전국 교구본사와 직능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 포교활동가 중 1080발기인을 대표하는 설립추진위원회 33명을 위촉했다. 설립추진위원 33명은 직할교구 등 전국 교구본사별 대표 여성불자를 포함해 장정화 대한불교청년회장 등 불교단체 대표자들이다. 설립추진위원회는 발족식과 함께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칭)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설립 추진 위원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은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앙대 총장, 동국대 총장, 역대 교육원장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 담당한다. 이 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주지가 지도법사단으로 활동한다.

범해 스님은 발족식에서 설립추진위원들에게 종단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조계종의 신도로서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해주길 당부했다. 스님은 "제8대 포교원은 지난 몇 년간의 혼란과 아픔을 딛고 초발심의 각오로 종단 여성 포교 활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면서 "제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대변하고 종단 위상에 걸맞은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여성불자회 설립추진위원회 발족을 축하하며 발족식이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이끄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때로는 할머니와 누이의 마음으로 전국 사찰을 누비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모시고 있는 여성 불자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 여성 포교의 전법 가치를 올려주길 바란다"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진이 큰 울림이 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교구본사의 전법활동을 뒷받침하는 교구별, 지역별 여성불자 조직이 만들어지기를 염원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종단을 돕는 여성불자 조직을 함께 만들어 가길 희망한 본각 스님은 "모두의 원력이 모아져 참신한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립추진위는 6월경 지역 · 직능별로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1080인의 발기인과 함께하는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4월 12일 현재, 1020명 여성불자들이 발기인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추진위원은 대표로 낭독한 설립취지문에서 "가정, 교단, 사회에서 부처님 자비와 평등사상을 바탕으로 진정한 정토세상을 구현하기 위해 종단을 대표하는 여성 포교조직을 전국적으로 구성하고자 한다"면서 "전국 각지 사찰, 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종단 및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끌어안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각계각층 여성불자를 조직해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린 태도로 민주적인 운영 방식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활발한 대사회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은호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 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육 · 해 · 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 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 대한불교조계종

NAVER Daum

www.buddhism.or.kr

-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 후원계좌 예금주 : 재) 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 문의전화 02) 6273-0108, 0109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 주세요.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이므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조계종 행자교육 변천 총망라한다

교육원,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 추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의 사문이 되기 위해 출가를 하게 되면 꼭 거치는 절차는 행자다. 일반적으로 출가자들은 6개월 이상을 출가 사찰에서 행자로 생활하며 출가수행자로서 기초를 다진다. 6개월 이상의 행자교육 기간이 끝나면 조계종 행자교육원에 입교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조계종은 1년에 두 번(3, 9월)에 걸쳐 행자교육원을 운영한다. 행자가 행자교육원을 무사히 마치게 되면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다. 행자교육원은 출가자로서 기본 자질을 익히는 조계종의 기초 교육기관인 것이다.

조계종 행자교육원은 1991년 처음 설립됐으며, 총무원 계단위원회가 맡아오다가 교육원 별원 후인 1995년부터는 교육원에서 담당해오고 있다. 설립 30년을 맞은 행자교육원의 변천사를 담은 백서 발간이 추진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진우)은 4월 7일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편찬위원회 증명으로는 종정 중봉성파 대종사가 추대됐으며, 위원장으로는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편찬위 추진위원장으로는 교육부장 서봉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편찬위원으로는 △덕문 스님(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정오 스님(전통의례전승원 학장) △대경 스님(송광사 율학승가대학원장) △효명 스님(쌍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경암 스님(계단위원) △보천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인해 스님(통도사 승가대학장) △연각 스님(송광사 승가대학장) △계호 스님(前 진관사 주지) △상덕 스님(청암사 주지) △일진 스님(前 수계교육 교수사) △현준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적연 스님(前 수계교육 교수사) △명선 스님(수계교육 교수사) 등이 위촉됐다.

편찬위 발족…위원장 진우 스님
설립 주도 원로 구술사 중심으로
종단 행자교육 전반 변화들 정리
'30년사' 오는 8월 중 발간 예정


조계종 교육원은 4월 7일 〈행자교육원 30년사〉 편찬위원회를 발족하고 편찬위원들을 위촉했다.

편찬위원장 진우 스님은 "〈행자교육원 30년사〉는 1991년 개원한 행자교육원 30년간의 성과를 기록함으로서 이를 계승 ·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종단 행자교육을 되돌아보고 그 연장선상에서 종단 전체의 교육 문제를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자교육원 30년사〉는 행자교육원 설립을 주도한 원로 스님들의 구술사가 중심이 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편찬위원회는 원적에 든 보성 스님, 종진 스님 등에 대한 회고담을 비롯해 前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 현 전계대화상 무관 스님, 송광사 율주 지현 스님 등 비구 스님과 지형 · 도혜 · 상덕 · 적연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행자교육원의 변천사를 담아낼 계획이다. 최종 발간은 8월로 예정돼 있다.

편찬추진위원장 서봉 스님은 "원적에 드신 스님들의 회고담과 원로 스님들의 구술사는 현재의 행자교육원이 있기까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각종 활동 자료 및 세미나 자료, 법령집 등을 모두 담아 행자교육 관련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 고시위원회 수석합격자 시상식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승가고시에서 수석합격자 스님들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수진)는 4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기2566(2022)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 승가고시는 2월20일 5급 승가고시를 시작으로 3월11일에 4급, 3월25일에 1급, 4월8일에 3급 승가고시 등 총 4차례 시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1 · 3 · 4급 수석합격자 스님들이 시상했다. 1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묘광 · 비구니 자우 스님, 3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능현 · 비구니 법현 스님, 4급 수석합격자는 비구 설우 · 비구니 진하 스님이다.

고시위원장 수진 스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수행하고 니르바나로 향하는 것이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이라며 "수석합격을 축하하며 전법과 포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종교편향 논란 넘어 '종교화합' 순례로 거듭

조계종 · 광주시 4월 12일
역사둘레길 조성 업무협약
종교화합 · 사회통합 목표
불교역사 바로알리기 기대

조계종(총무원장 원행)과 경기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잇는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한산성과 천진암, 나눔의집 등 불교관련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종교화합과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4월 1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광주역사둘레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협약에서 조계종은 역사둘레길 조성에 적극 협조하고 광주 지역의 불교역사를 추가로 발굴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광주시는 역사둘레길 조성과 유지관리, 불교문화 발굴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날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불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광주시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이 국민들이 불교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전 국민을 화합시키고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신동헌 시장은 "불자와 국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이 되도록 광주역사둘레길을 조성하겠다"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계종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광주역사둘레길은 남한산성, 천진암, 신익희 생가, 허난설헌 묘, 나눔의 집, 조선백자 도요지, 화담숲,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등 광주 곳곳에 흩어져있는 종교 · 역사 · 문화 · 생태자원을 묶어 하나의 길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남한산성 내 폐사된 8개 사찰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신 시장은 앞서 추진하려 했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중심으로 '가톨릭 성지 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불교계의 거센 반발을 산바 있다. 특히 호국불교의 상징인 남한산성과 불교계가 운영해온 나눔의 집이 해당 순례길에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에 신 시장은 지난해 11월 원행 스님을 예방, 사과한 바 있다.

신 시장은 협약식 후 "둘레길을 조급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배경 등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오해가 있었지만 불교계의 배려로 종교대화합의 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역사둘레길'은 광주만의 고유한 자연 · 역사 · 문화 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해 총 121.15㎞ 길이에 7개 코스로 만들어지는 둘레길이다. '평화와 화합으로 가는 여정'으로 동행, 이음, 사색, 성찰, 치유, 소통, 자유 등을 테마로 한다. 광주시는 2023~2025년 사업비 총 380억 원을 투입해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임은호 기자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시설 건립 착수

불사추진위 4월 26일 양평서 착공식…2024년 완공 목표

사찰에 소장된 성보 등 불교유산들을 연구 · 보존하기 위한 연구시설이 양평에 들어선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4월 26일 양평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착공식을 거행한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불교문화재에 대한 종단 차원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립된다. 특히 문화재 지정전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다량의 미지정 문화유산들까지 폭넓게 진단 관리하고 보존에서 수리 · 복원까지 다각도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종단불사추진위원회는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이 건립되면 전통사찰에 소장된 문화유산의 보존환경 연구는 물론, 과학적인 조사 · 분석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예방적인 문화재 보존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종단차원에서 전통방식의 수리 · 보존체계를 구축해 잠재적인 문화유산 가치를 존속시키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오후 1시 30분 종단 어산어장 인묵 스님이 집전하는 개토제에 이어 2시부터 진행된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 집행위원장 삼혜 스님(종무부장)이 추진경과와 향후계획 보고하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용문사 주지 도일 스님에게 표창패도 수여한다. 종단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을 위한 숙원과제로 꼽혀왔던 만큼, 각계 주요소임자들이 축사를 통해 착공을 축하할 계획이다. 송지희 기자


양평에 들어설 불교문화재연구시설 조감도. 사진제공=조계종 총무원

조계종 · 사회적경제 불교경제 활성 MOU

조계종 총무원 사업부(부장 주혜)은 4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회의실에서 사람과 사회적경제(이사장 김규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교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조계종과 사회적경제는 2014년부터 사찰과 스님을 대상으로 연수교육, 사찰창업 컨설팅, 판로 지원 등을 해왔으며 2019년부터는 '불교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약을 통해 △사찰 및 단체의 창업 및 컨설팅 지원 △사찰 및 단체의 연계사업 및 판로지원 △종교계 공동행사 추진 · 개최를 위한 상호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 · 무형 자산과 네트워크 활용도를 높여 보다 역량 있는 불교 사회적 경제 모델을 창출하고 사찰과 단체가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자립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부장 주혜 스님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자비와 나눔이라는 부처님 가르침 아래 사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흥덕왕 3년(828) 김대렴공이 왕명으로 차나무 최초 식재
2022 진감 · 초의 · 만허선사 · 선차문화대축전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 차나무 시배지 지정 35주년(1987.08.06 지정)기념
쌍계사는 흥덕왕3년(828)대렴공이 당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차나무씨를 가지고와 왕명으로 쌍계사 일대에 최초로 식재하였고, 진감선사는 화개골 일대에 차나무를 번식하여 고려시대에는 차 문화가 흥하다가 조선시대는 불교 탄압과 함께 발전을 멈췄고 일정 때는 짐승들의 놀이터였다가 1975년 고산선사께서 차나무시배임을 아시고 정비하여 오늘에 이른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차나무 밭으로 인정하여 경상남도 기념물 제61호로 지정되었다.
* 일시 : 4월 22일(음3.22) 금요일 ~ 4월 24일(음3.24) 일요일까지
* 장소 : 쌍계사(차나무 시배지등) 일원
* 주최 : 재)고산문화재단
* 주관 : 사)진감초의 다맥 한국선다회, 사)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 후원 : 쌍계총림 쌍계사 본 말사연합회, 석왕사, 혜원정사
◆참여단체 :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쌍계사선다회, 혜원정사선다회, 석왕사선다회, 부산선향다례, 울산다도예절협회, 금당차문화회, 강릉용연사선다회, 사)종정차문화회
선(禪) · 교(敎) · 율(律) 차(茶)와 범패(梵唄)의 근본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쌍계총림 쌍계사
www.ssanggyesa.net 종무소 : 055)883-1901

선학원, 분원 반대에도 토지 매각 강행

선학원 일방 행정에 몸살 앓는 총림선원

총림선원, 토지매각 반대 표명
추가 매각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분원토지 추가 매각 추진 논란

진주시에 '조속재결 신청' 제기도
분원관리 규정 따른 부동산 매각
절차상 위배 정황도 제기돼 파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재단법인 선학원이 분원장과 창건주를 배제한 채 분원 토지를 진주시에 일방적으로 매각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원이 이후 매도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음에도 다른 토지까지 추가로 매각하려던 정황이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선학원은 또 다른 토지에 대한 추가매각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조속재결 신청'을 제기한 사실까지 드러나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진주시와 총림선원 소속의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선학원은 총림선원 모르게 진주시에 13여억 원을 받고 매도한 산 18-1번지 외에도, 산 155번지를 비롯한 다수 필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추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학원은 산 155번지에 대해 진주시 · 경남개발공사에 해당 토지의 손실보상금 재협의를 요구한 데 이어 '조속재결 신청' 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속재결 신청은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사업시행자에 대해 재결 신청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분원인 총림선원 창건주와 분원장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매각 반대의사를 재차 표명했음에도 이를 묵살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림선원 토지 가운데 진주시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편입공고된 부지는 산18-1번지, 612번지, 612~1번지, 620번지, 621번지 등 6필지다. 이에 따라 총림선원은 2018년경부터 진주시와 해당 부지의 임대 및 대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2020년 5월경 진주시 관계자로부터 선학원이 해당 필지들에 대한 매각협의를 진행 중임을 고지받고, 즉시 선학원과 진주시에 공문을 발송해 "매도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당시 이미 산18-1번지는 진주시에 매각된 이후였다.

이에 대해 총림선원 관계자는 "스님들이 남은 필지라도 지키기 위해 선학원을 찾아가고 수차례 공문을 보내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과정에서 선학원 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앞으로 모든 총림사 토지의 수용 관련 결정은 총림사 동의 없이 강행하지 않겠다는 확답까지 받았지만 매각은 여전히 현재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총림선원 창건주 · 분원장 스님은 선학원 측에 재차 공문을 발송해 "해당 부지들이 총림선원의 수행환경 보존과 유지, 관리 뿐 아니라 총림선원의 존폐위기와 관련된 토지이므로 매매형식이 아닌 임대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편입방법에 대해 진주시와 논의해 온 협의안과 구체적인 사유 등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학원도 이사장 법진 스님 명의의 공문을 통해 "총림선원에 대한 종무행정 지도감사를 통해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내용을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회신했다.

진주시 역시 총림선원 측에 공문을 발송하고 "상기 필지(총면적 4만 5223㎡)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무상임대 방안을 상호협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과 함께, 법령에 근거한 '녹지활용계약서' 양식 등 협의안을 재차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1년 중순경 선학원은 총림선원를 배제한 채 또다른 토지인 산155번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남개발공사에 발송했다. 분원이 토지 매각을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실상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해당업무를 담당한 진주시 관계자는 "현재 산18-1번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 추가로 산155번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기엔 여러 우려점들이 있다"며 "그러나 사찰 의지와 달리 선학원은 매각을 위한 조속재결신청까지 제기한 것으로, 시 입장에서는 이도저도 못한 채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선학원의 행보는 분원관리규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학원 분원관리규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부동산 매각에 있어서는 해당 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재단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뒤, 종무회의에 상정하며 이사회 승인 및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진행한다' 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선학원은 산18-1번지 매도과정에서 분원을 배제하는 등 분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매각을 결정하는 등 규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무관청의 허가도 누락된 의혹이 제기된다.

또 이후 분원이 토지매각 반대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에도, 추가 매각을 강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예정이다.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13억여 원의 존재에 대해 분원에 일체 알리지 않은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분원관리규정의 같은 조 4항에 따르면 '사사찰은 부동산 처분금액 중 재단운영기금을 처분금액의 10%로 한다' 고 명시돼 있지만, 2019년 이미 13억여 원의 매각대금을 진주시로부터 지급받았음에도 분원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총림선원 창건주 A스님은 本紙와의 통화에서 "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 등의 소' 가 진행된 후에야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매대금 13억 원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과 前 이사장 직무대행이자 총무이사 지광 스님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일을 통해 입장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쟁 중단 · 희생자 극락왕생 염원"

조계종 사노위, 우크라이나 평화기원 기도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오체투지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염원했다. 사노위는 4월 12일 오전, 전쟁중단과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며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중구 주한러시아대사관까지 2.1km를 이마와 무릎, 팔꿈치를 바닥에 낮추는 오체투지로 나아갔다.〈사진〉

오체투지에 앞서 위원장 지몽 스님은 먼저 전쟁으로 희생된 이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했다. 스님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이기적인 탐욕으로 아이와 여성, 노인 등 민간인들이 참혹하게 학살당하고 있다"고 통탄하고 "전쟁은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뿐더러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증오심 그리고 적개심만 대물림될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날 오체투지는 대웅전 부처님을 향한 삼배 후 조계사를 출발해 종각과 광화문을 거쳐 2시간 30여 분만에 마무리됐다. 임은호 기자

"국가유산 명칭 변경, 전체주의적 발상"

문화재위 · 무형문화재위 11일
문화재 명칭 개선안 등 발표
문화재→ 국가유산으로 통칭
학계 · 시민단체 우려 제기해

기존 '문화재' 라는 명칭을 '국가유산' 으로 통칭하는 문화재청의 추진 개선안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위원회(위원장 전영우) · 무형문화재위원회(위원장 신탁근)는 4월 11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합동 분과위원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전면 개선안을 확정해 이를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에 전달했다.

이번에 추진되는 문화재 명칭 및 분류체계 개선은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재화(財貨)의 느낌이 강한 '문화재' 의 '재(財)' 를 '유산(遺産)' 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60년간 사용해 온 '문화재' 는 '국가유산' 으로 통칭되며, 하위 분류 체계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뉜다. 국가지정문화재인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의 명칭은 유지되지만, 국가무형문화재와 국가민속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으로 바뀐다.

하지만 불교학계와 문화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선 취지는 공감할 만 하지만 '국가유산' 이라는 통칭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학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 '국가유산' 으로 통칭하는 것은 한계점이 명확하다. 여기서 '국가' 는 '정부' 로 이해되며 '국가 및 정부로 귀속된 유산' 으로 이해된다"면서 "국가 소유 문화재는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 사찰과 개인이 소장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국가유산' 이라고 볼 수 있나"고 반문했다.

이어 " '국가유산' 으로 문화재의 통칭명이 변경되면 수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은 일순 '국가유산' 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국가유산' 이라는 명칭에 대해 "전체주의적 행정 발상"이라고 힐난했다.

황 소장은 "문화는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생활양식과 상징체계를 의미한다. 문화유산(Cultural heritage)이라는 범주에 현재 문화유산체계가 포함될 수 있다"면서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은 예전 제국주의 · 전체주의 국가가 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산 체계가 '국가유산' 같은 특별명사가 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보통명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도 " '국가유산' 이라는 통칭명을 듣고 1980년대 군사 정부의 이미지가 떠올랐다"며 "국가의 사전적 정의는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定住)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다. 우리의 전통문화유산들에 '국가' 라는 주체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22 LOTUS LANTERN FESTIVAL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Yeon Deung Hoe
전통등전시회
4월 29일(금)~5월 10일(화)
청계천, 조계사, 봉은사
연등행렬
4월 30일(토) 오후 7:00~9:00
종로거리(흥인지문 – 조계사)
4.29.~5.1.

봉은사 '도움벨' 장애인 접근성 높인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맞아 보리수아래 동행취재기

봉은사, 전구간 휠체어 이동 가능
일반 화장실도 보호봉 설치 눈길
장애인전용 팻말·도움벨 설치 등
문턱 낮은 미륵전, 참배가능 구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보건복지부가 2021년 발표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3만 3000명. 인구대비 5.1%에 달한다. 공공성 높은 종교시설과 건물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이 의무인 이유다. 장애인 불자단체 보리수아래는 사회적 약자가 접근 용이한 환경을 갖춘 사찰을 파악해 사회에 알리기 위해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연구사업'을 시작했다. 4월 13일, 서울 봉은사에서 진행한 조사를 동행취재 했다. 〈편집자주〉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입구에서 만난 포교부 이호상 팀장의 안내에 따라 경내로 진입했다.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하는 곳으로 화장실을 꼽았다. 장애인들이 외출 시 불편함을 느끼는 대표적인 곳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대다수 사찰 화장실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갖춰져 있지만 실용성 없는 곳이 적지 않다.

봉은사에는 보우당과 전통문화체험관에 남녀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일반 화장실에도 일부 변기에 보호봉을 설치,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최명숙 대표는 "화장실로 가는 공간까지 휠체어가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도록 길을 정돈해 시설 구축 전부터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봉은사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안내 팻말과 도움벨.

천년고찰 봉은사는 편의시설 한계 극복과 이동약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3군데에서 2017년 6면으로 늘려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고 위치 또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옮기며 접근성을 더했다. 사찰 출입문인 진여문에서 법왕루와 대웅전에 이르는 언덕길의 경사를 낮추는 공사도 함께 진행해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이 큰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봉은사는 휠체어로 전 영역 이동이 가능하다. 종무소와 매화당에 휠체어 2대를 상시 배치, 이용자가 원할 때 언제든 사용 가능케 한 것도 특징이다.

장애인을 위한 전용 팻말과 도움벨도 인상적이다. 입구부터 각 전각, 이동경로 등 30여 곳에 전화번호가 적힌 표지판과 도움벨을 설치, 불편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는 경비실과 종무소로 연결되며 호출 즉시 상근자가 대면해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형태다. 종무소에는 장애인 전담은 아니지만 총무봉사연등 봉사자 15명이 교대로 상근하며 호출에 대한 안내를 돕고 있다.

이숙재 총무봉사연등장은 "절에 오는 분들이 누구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도반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도와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륵전 앞은 장애물 없이 정돈 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법당에 자유로이 들어가 참배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미륵전에서는 장애인법회가 봉행되기도 했다.

경내 곳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를 해 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주요 전각으로 향하는 진입로, 핸드레일 등에 점자를 설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양간(향적원) 앞은 특히 신경을 쓴 것이 눈에 띄었다. 난간과 조립식 경사로를 설치, 이동약자들의 이용에 무리가 없게 배려했다.

2시간가량 봉은사 경내를 살펴본 보리수아래 최명숙 대표는 "우리나라 대표사찰인 만큼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안내판, 난간, 엘리베이터 등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갖추어져 있어 반가웠다"면서 "특히 포교팀장이 먼저 경내를 점검하고 상세히 안내를 해 준 것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배려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경내를 안내한 이호상 팀장은 "부처님을 멀리서 바라봐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힘쓸 것"이라면서 "노후된 곳은 교체하고 위험한 구간은 개선하도록 꾸준히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제27회 포교사 고시에 총 471명 응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은 4월 9일 제27회 일반포교사 및 국제포교사 선발 자격고시를 시행했다.〈사진〉

이번 27회 포교사 고시에는 일반포교사 448명, 국제포교사 23명 총 471명이 응시했다. 지역별로 는 서울 142명, 인천 · 경기 · 강원 10명, 충남 20명, 충북 25명, 전북 28명, 광주 · 전남 16명, 대구 85명, 경북 27명, 부산 59명, 제주 19명이다.

고시장은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비롯해 탄허기념불교박물관, 봉선사 불교대학, 마곡사 불교대학, 법주사 불교대학 등 전국 13개 장소에서 마련됐으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거리두기 등을 준수하며 시험이 치러졌다.

포교사단 고시 현장에서는 지역단장들이 찾아 수험생들을 응원했다. 성수 서정각 서울지역단 단장은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해 추후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비로자나 초등 신축

비로자나국제선원 함께 건립
교실동 6칸 · 체육시설 구성
학생 90명 장학금 지원 약속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국제선원이 캄보디아에 신축한 초등학교 외경.

불교국가 지역민들 삶의 질 제고와 빈곤퇴치를 위해 힘쓰는 사단법인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와 비로자나국제선원(주지 자우)의 도움으로 캄보디아 시엠립주에 위치한 마을 어린이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로터스월드와 비로자나국제선원은 4월초, 캄보디아 시엠립주 꾸어군, 꺼우깍(Kok Kak) 마을에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 신축을 지원했다.

이번 학교신축 지원은 캄보디아 시엠립 교육부가 오지마을에 초등학교를 지원해줄 것을 로터스월드에 요청하며 진행됐다.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원장 선문 스님으로부터 열악한 교육환경을 전해들은 자우 스님이 학교 신축 후원을 발심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비로자나 국제선원에서는 주지 자우 스님을 중심으로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진행해 학교건축비 전액을 마련했다.

학교가 신축된 꺼우깍 마을은 인근지역에 초등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최소 5Km(도보로 약 1시간)를 걸어야 하는 지역으로 특히 어린 학생들은 등교에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이번 학교 신축을 통해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는 2022학년도 유치원 및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 약 90명의 신규 학생을 등록받아 정식으로 개교했다.

학교 시설은 총 6칸 규모의 교실동(약 432㎡, 총 131평)과 급수시설, 화장실, 운동장, 체육시설, 정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책걸상, 칠판 등 교육기자재도 함께 지원됐다. 조성된 학교 시설은 캄보디아 정부에서 규정한 학교 표준 시설 규격을 준용하고 아동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 및 조경 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등 시엠립주 뿌어군 내의 학교 시설 중 상위권의 교육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학교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지 여건에서도 새학기 학생들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후원자인 비로자나 국제선원과 로터스월드, 시엠립 교육부, 지역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됐다.

꺼우깍 비로자나 초등학교의 개교를 맞아 입학생 전원에게 교복, 체육복 및 학용품도 지원한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우스님은 "앞으로 추가 모금을 통해 학교도서관과 교무실 등을 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용품 및 장학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포교원, '창원용지호수의 길' 개발

리플렛 보급, '지혜의 숲길 순례수첩'도 발간

순례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이다.

순례에 대한 대중 관심을 바탕으로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지혜의 숲길' 2번째 프로그램인 '창원 용지호수의 길'을 개발했다.

포교원은 올해 2월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을 통한 새 신행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허응당 보우의 길'을 개발, 포교사 250여 명과 함께 순례를 한 바 있다.

두 번째 성과물인 '창원 용지호수의 길'은 경남 창원 시내를 관통하여 순례하는 것으로 용지문화공원을 출발해 성산아트홀 - 창원광장 - 용지사거리 - 창원 가로수길 - 경남도민의 집 - 용지호수공원을 거쳐서 용지문화공원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례 팜플렛에는 각각의 장소들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사진자료와 함께 실었다.

이에 포교원은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교역직 스님들 및 경남지역 포교사단 포교사들과 함께 4월 16일 2시 '창원 용지호수의 길'을 순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교원은 '지혜의 숲길 순례 수첩'을 발간했다. 포교원은 '순례



수첩'을 제작한 이유에 대해 "불자들이 쉽게 몸에 지닐 수 있는 걷기순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부대중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포교연구실에서는 추후에 순례길이 개발되는 대로 '순례 수첩'에 그 내용을 반영해 계속 업그레이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례 수첩에는 걷기순례의 의미와 순례방법 안내를 필두로, 그간 포교원에서 개발한 '천은사 상생의 길', '화엄사 어머니의 길', '허응당 보우의 길', '창원 용지호수의 길' 순례코스가 실려 있다. 또한 각자 다녀온 순례길과 순례에 대한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메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도 실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심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기장군불교연합회 · 연합신도회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 8일)을 맞이하여 기장군불교연합회와 연합신도회가 주최하는 봉축점등식(다시 희망이 꽃피는 일상으로)을 4월 23일 저녁 6시부터 장안사 사리탑전에서 자체행사로 간소하게 봉행합니다.

※참여하시는 분은 필히 마스크 착용바랍니다.

■일시 : 2022년 4월 23일 오후6시
■장소 : 천년고찰 장안사

사회 | 문화국장 보혜스님
집전 | 해광사 태공스님, 고불사 해월스님

식순
6:00 개막 28타종식
6:10 저녁예불
6:25 본행사
· 삼귀의
· 반야심경
· 발원문 (신도회장)
· 환영사 (장안사주지 무관스님)
· 봉축사 (회장 정오스님)
· 헌화공양
6:50 점등 및 탑돌이 (석가모니불정근)
7:00 축원 및 사홍서원



우공침술
개·인·지·도

딱 6일 만에 우공이 개발한 TLS 침법을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침술경력 30년이 넘었다는 한 스님이 저에게 침술을 배우던 중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공 선생님, 돈 많이 버시죠?"

수업 중 뜬금없는 물음에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저의 반문에 스님은
"허리통증으로 고생하는 신도들에게 선생님께 배운 TLS 침법을 써 보니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런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것 같아서요."

30년 이상 써 왔던 스님 자신의 침법도 나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해 왔는데, 저에게 배운 침법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였다며 "TLS 침법 끝내줍니다!"하며 감탄해 했습니다. 저는 그러는 스님에게 스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TLS 침법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지 않다고 말을 했더니,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침법이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저에게 침술을 배운 또 다른 분은
"선생님이 개발하신 TLS 침법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이겠죠." 라고 말하며 역시 안타까워했습니다. 저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기가 막히는 TLS 침법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는 일이 탄력을 받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가 개발한 TLS 침법은 우리 몸의 모든 통증들을 치료하는데 기발한 침법입니다. TLS 침법은 어깨통증, 허리통증, 무릎통증에서 기가 막힐 정도로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처럼 기가 막히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TLS 침법을 개인지도를 통해 딱 6일 동안에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지방분들은 제가 방문하여 개인지도 해드리며 3일 간의 속성으로 완벽하게 TLS 침법을 전수해 드립니다.

NAVER 우공침술 ▼ 검색 하시면
저의 블로그에 접속되며, 그곳에서 침술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공침술연구원 문의전화 : 010-4054-7110



禪 중흥 발원, '명상마을' 곳곳에 담다

4월 20일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개원했다. 2007년 봉암사와 문경시가 국제선센터 건립 협약을 맺고 시유지 34만 평을 봉암사가 매입한 지 15년만에 이뤄낸 쾌거다. 세계명상마을은 문을 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불사 재원 문제로 2014년 문경시가 국제선센터 미건립시 시유지를 환수하겠다는 소송 제기를 통보했고, 2015년 전국선원수좌회 차원에서 국제간화선센터 건립 추진을 분담키로 하며 나섰다. 1단계 건립 사업비 60억 원 중 자부담만 30억 원에 이르는 불사였다. 각계 후원으로 이해 12월 자부담 30억 원이 확보됐고, 추진위는 유럽과 미국, 일본 등 주요명상센터 답사와 국제선건축 세미나 등을 통해 본격적인 불사 준비에 들어갔다.

미리보는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키워드 4'

2017년 명상마을 설계 국제현상공모가 진행됐고, 6월 토마스 한라한 교수팀이 선정돼 2018년 7월 12일 기공식, 그해 12월 1단계 웰컴센터가 준공된다. 관건은 2단계 불사였다. 총 75억 원의 불사비용 중 22.5억 원의 자부담금은 수행납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후원을 위한 선주회가 창립되고, 명상마을 후원을 위한 고승 선서화전 등을 거쳐 2021년 2단계 불사가 착공, 2022년 4월 20일 개원을 하게 됐다. 2021년 명상마을 원만 완공을 위해 각산 스님이 총괄 책임자로 영입되는 등 갖은 노력 끝에 이뤄진 세계명상마을에 대한 특징을 키워드로 추려보았다.

봉암사 명상마을=노덕현 기자

키워드1 | 사부대중 수행처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희양산 자락 600만 평 부지 위에 연면적 1만 1000㎡의 시설을 갖춘 곳이다. 틱낫한 스님의 명상센터 '플럼빌리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해외 25곳 선센터를 탐방 후 만든 곳이 바로 문경 세계명상마을이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현재 약 300명 가량을 수용 가능하다. 국민참선마을로 명상홀, vip룸, 컨퍼런스룸, 전시회실, 개인꾸띠, 다목적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선원수좌회는 이러한 문경 세계명상마을을 국내유일, 간화선 국민선방,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종교초월, 연령초월, 불자든 비불자든 참선집중수행의 참여자는 누구든지 가능하며 국경초월 지구촌 명상메카니즘을 지향하고 있다.



① 명상상담이 이뤄지는 선방. ② 1백여 명 이상이 함께 수행가능한 중선방. ③카페 분위기의 휴게시설과 공양간. ④ 개인실 꾸띠.

키워드2 | 고승 지도

여느 명상마을, 명상처와 다른 점은 한국불교 수행의 대표성을 지닌 봉암사가 인근에 있다는 점이다. 선방 수좌스님들의 수행 열기를 함께 느끼며 지도를 받는 것은 문경 세계명상마을이 지닌 특색이다.

세계명상마을에서는 선스테이가 진행된다. 여기에는 수좌회 월암 스님(용성선원장), 선법 스님(정진선원장), 각산 스님(참불선원장),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등이 지도한다. 쉽게 만날 수 없는 수좌 스님들이 직접 질문응답을 이어간다.

자비명상 이사장 마가 · 참선재단 이사장 금강 · 행불선원장 월호 ·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이 의기투합한 선불장추진위원회도 6월 17~24일 7박8일간 참선 리더 스님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세계명상마을에서 실시한다. 참선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서류심사를 통과한 스님 20명에게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키워드3 | 선 · 명상 접목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고유의 한국전통 참선과 남방불교를 융합해서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명상교육 프로그램'을 자랑한다. 해외에서는 명상 대중화 뿐 아니라, 동양의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열기도 뜨겁다.

그 일환으로, 세계명상마을에서는 △9일 집중수행(무료) △직장인을 위한 주말 금토일 포커스반 △3일 집중수행(유료) △명상 입문반, 간화선 입문반 △평일 참선템플스테이(무료) △대한민국 청년희망 캠프 △200명 단기출가 프로그램(무료) △매월말 토요철야정진 등 다양한 참선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다.

키워드4 | 수행인프라

세계명상마을을 처음 찾으면 내방객을 반기는 곳은 다목적 휴게시설이다. 입방 접수를 받는 사무공간과 함께 구성된 이곳에서는 마치 커피숍을 떠올리는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웰컴센터에는 수십명이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준비돼 있다.

야외 조경을 볼 수 있는 2층 침대와 공용화장실 등이 준비돼있다. 전문수행자를 위한 개인 꾸띠는 1인 침대와 함께 좌선이 가능한 평상 등이 방 내부에 함께 구비되어 있다. 문경 세계명상마을은 한국 고유 '정신한류의 꽃'을 틔울 터전으로 기대된다.

"재가불자 명상 수행 총본산 될 터"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



"지난해 6월 문경 봉암사 세계명상마을 선원장에 임명된 후 현장을 내려와 보니 실내 공사도 안 된 본관 건물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더군요. 순간 눈앞이 컴컴해졌습니다. 불사 진척도 예상보다 더뎠고 예산도 부족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세 번이나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도 수좌 어른스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다시 힘을 얻어 지난해 10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치고 6개월만에 무사히 완공하게 됐습니다. 1차 불사의 완공률은 현재 98%이고, 나머지 조경 작업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0일 개원식을 봉행하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은 손에 작업용 장갑을 긴채 그동안의 불사 과정을 이렇게 밝혔다.

각산 스님 "9일만 수행 하면 인생 바뀌어"
집중 수행 프로그램 하루만에 예약 마감
재가자, 승가 꾸띠 완성이 2차불사 핵심
8월15일부터 1주일간 청년희망캠프 진행

이어 각산 스님은 "현재까지 총 110여 억 원이 투입돼 1차 불사는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핵심 불사는 2차입니다. 재가자들과 선원 수좌스님들의 개인 수행처인 꾸띠를 완성하는 게 2차 불사입니다. 재가자 꾸띠는 30동 50실, 스님들 것은 30명 정도 머물수 있는 꾸띠를 청빈과 검소함을 원칙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재가자 꾸띠는 명상마을서 땅을 제공하고 개인 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이 꾸띠를 지어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 스님들의 꾸띠는 불자들의 시주로 짓다보니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수행 공간이라 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또한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명상마을서 개최하는 제4회 간화선대법회와 집중수행(참선스테이)에 대한 반응을 묻자 각산 스님은 3월 둘째 주에 홈페이지를 오픈한 지 하루 만에 예약이 모두 완료됐다며 이는 간화선과 명상에 대한 큰 관심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각산 스님은 "세계명상마을과 참불선원 사이트의 방문자가 최근 대폭 늘고 있으며, 명상마을 집중 수행 대기자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100명 밖에 신청받을 수 없는 상태라 신청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없어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명상마을 수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각산 스님은 불법을 보여주자는 게 목적이라 다른 명상시설보다 40~50% 저렴하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평일에는 숙식을 전무 무료 개방할 생각이며, 두 달에 한번씩 열리는 9일 집중수행 프로그램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주말에 이뤄지는 2박3일 집중 수행에만 소정의 참가비를 받을 예정이다.

각산 스님은 "수행자는 법과 지혜와 철학을 재가자들에게 전해 드리고, 재가자는 수행자는 법이 있는 곳에 후원하는 시스템으로 끌고갈 생각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수행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만일 이런 운영 구조가 깨진다면 한국불교 수행 공동체들의 앞날이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각산 스님은 또한 수행 마스터들이 도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춘 곳에서 수행해도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그래서 저희 명상 마을에서는 하루 6시간 좌선과 2시간 법문이 끝나면 반드시 선마스터들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9일만 시간 내서 이곳 명상마을서 수행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 정화를 안 한다면 우리 삶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9일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 3박4일은 와야 되는데 모두들 바쁘니까 비교적 시간이 편한 주말에 2박3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각산 스님은 "올해는 8월 15일부터 1주일 동안 300명을 초청해 명상마을 마당에서 청년희망 캠프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명으로 규모를 늘릴 생각입니다. 그중 3% 정도는 출가하지 않을까요?"

봉암사 명상마을=김주일 기자

간화선 대종장, 7일 대중설법 나서다

禪 중흥 신호탄 '제4차 간화선대법회'

봉암사 세계명상마을은 4월 20일 개원 기념으로 제4차 간화선대법회를 개최한다. 한국 간화선의 굵직 굵직한 명맥을 잇고 있는 7대 고승들을 모시는 자리다. 4월 20일부터 4월 26일 일정으로 매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7일간 야단법석이 펼쳐진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하여 학림사 조실 대원 스님,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상원사 용문선원장 의정 스님,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이 7일 동안 매일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자유에 이르는 길을 설파한다. 한국불교 7대 선승들의 면면을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고통에서 지친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행력 높은 선지식들의 직접 지도도 이어진다. 간화선대법회 준비위원장인 세계명상마을 선원장 각산 스님과 간화선대법회 집행위원장 금강 스님(중승대 교수)을 비롯한 많은 한국 선승들의 헌신이 줄줄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만 개방하는 조계종 종립선원 문경 봉암사도 이 기간을 맞아 천년의 산문을 연다. 총림 방장급 선사 스님들이 대중들을 지도하는 대법회의 뜻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다.

특히 90 평생 처음 산문 밖에서 설법하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 3월 30일 취임법회로 조계종 제15대 종정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도 법석에 오른다.

개원일인 4월 20일에는 대원 스님이 '생활 속의 선'으로 설법한다. 1986년 공주 학림사를 창건하고 1995년 수좌를 위한 오등선원, 2001년 시민을 위한 오등시민선원을 여는 등 평생 치열한 구도와 간화선 보급에 매진해왔다.



성파 스님 | 지유 스님 | 대원 스님 | 무여 스님 | 혜국 스님 | 의정 스님 | 영진 스님

4월 21일에는 백담사 무금선원 유나이자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이 '모든 고통의 시작은 언제인가'를 주제로 설법한다. 1972년 김제 금산사에서 출가해 봉암사, 해인사, 통도사, 백담사, 은해사 등 여러 선원에서 정진한 수행력 깊은 스님이다.

4월 22일에는 지유 스님이 '간화선, 화두 들기'를 설한다. 지유 스님은 194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후 봉암사는 물론 전국 여러 선방에서 수십 안거를 성만한 수좌로 문경 봉암사 주지, 범어사 조실 등을 지냈다. 평생 범어사에 주석하면서 오로지 마음이 부처임을 알리며 선으로 수행자들을 만나왔다.

4월 23일에는 前 전국선원수좌회 대표이자 수좌선문화복지회 이사장인 의정 스님이 설법한다. 스님은 1976년 해인사 승가대학 졸업하고, 1977년부터 인천 용화사, 봉암사 선원 등 제방선원에서 70안거를 성만했다.

2001년부터 양평 상원사 용문선원장으로 있으며, 2002년 조계종수행지침서인 〈간화선〉 편찬위원이자, 2006년 〈선원청규〉 편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한국선불교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4월 24일에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희섭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상원사, 송광사, 해인사 칠불사, 망월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20여 년 정진한 무여 스님이 '선의 대중화'를 설한다. 무여 스님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축서사 조실로서 전국 각처에서 찾아온 수행자들을 지도 중이다.

4월 25일에는 22세에 반드시 성불하겠노라 오른손 손가락 3개를 연비한 혜국 스님이 '세계불교의 미래, 간화선'을 설한다. 혜국 스님은 태백산 도솔암에서 2년 7개월 장좌불와, 경봉 · 성철 · 구산 스님 회상에서 정진하고 2004년부터 석종사에서 간화선 수행을 이끌어 온 경험을 토대로 후학을 양성해오고 있다.

간화선 대법회 회향날인 4월 26일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이 '우리 선이 가야할 길'을 설한다. 1975년 경북 봉암사 태고선원에서 첫 안거에 든 이래 26안거를 성만한 성파 스님은 선서화, 도예 등 불교전통문화를 통한 선문화 확산에 나섰다

쿠무다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 개막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정기 공연 예정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가 4월 13일 쿠무다 지하 1층 콘서트홀에서 '쿠무다와 함께하는 수요음악회 2022 이-음 콘서트(이하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첫 번째 이-음 콘서트의 시작을 알린 '앙상블 튠(Enscmble Tune)'은 실내악의 다채로운 화음을 선보이며 플루트 및 첼로, 피아노 등을 통해 봄에 어울리는 무대를 선보였다.

이-음 콘서트는 관객과 연주 단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주 단체와 공연기획자 사이의 연결(이음, connection)을 지향하기 위한 콘서트라는 의미로, 콘서트를 통해 공연 기회를 얻지 못하는 연주자에게 무대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문화프로젝트이다. 이-음 콘서트는 첫 공연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쿠무다 지하1층 콘서트홀에서 진행된다.

무명 연주자에게 공연무대 제공
쿠무다 신축개관 문화프로젝트
2인 이상 단체 이메일 수시접수
앙상블 튠, 수에뇨 등 공연예정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자원연계

이-음 콘서트는 쿠무다와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의 자원을 연계해 진행하며 4월에는 '봄을 열다'를 주제로 '앙상블 튠(13일)', '수에뇨(20일)', '도담앙상블(27일)'의 공연이 열릴 예정이다. 각 공연은 저녁 7시30분부터 9시까지 총 1시간 30분 일정으로 진행된다. 현재 4월 연주 일정은 확정된 상태이며 연주 단체 수시 접수와 심사를 거쳐 차후 일정은 월 단위로 소개될 예정이다.

연주를 희망하는 음악 단체는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이메일로 수시 접수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최종 연주자가 선발된다. 신청대상의 나이와 지역 제한은 없으나 2인 이상의 단체로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부산클래식발전협의회 블로그(blog.naver.com/bcmdc)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10분 내외 연주 영상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bcmdc@naver.com) 심사는 영상 내 오디오 음원을 추출 후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된다. 심사는 접수순으로 진행되며 선정 시 개별 연락한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가 4월 13일 쿠무다 지하 1층 콘서트 홀에서 '쿠무다와 함께하는 수요음악회 2022 이-음 콘서트'를 개최했다.

연주 단체 선정 기준은 첫째, 드레스코드가 제한된다. 셔츠, 재킷, 하의, 신발까지 검은색이 금지된다. 둘째, 해설 및 진행을 준비해야 한다. 연주 단체에서 직접 해설을 하지 못할 경우는 해설자와 함께 콘서트를 진행해야 한다.

'이-음 콘서트' 공연을 원하는 관객은 온라인으로 관람권을 예매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2022 이-음 콘서트'를 검색하면 매주 수요일 쿠무다 콘서트홀(부산)에서 열리는 공연별 티켓 구입이 가능하다. 티켓 비용은 한 좌석당 1만 원이다. 공연장에서는 별도의 티켓 교환 없이 네이버 모바일 티켓만 제시하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 연주자 프로필과 공연에 대한 상세 정보 역시 네이버 티켓 예매 창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100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이-음 콘서트' 티켓 판매 수익은 전적으로 연주 단체에 전달돼 음악 활동을 후원한다.

쿠무다는 이음 콘서트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 기관도 별도 모집 중이다. 현재 안국선원, 봉암사, (재)보덕학회, ㈜더 대운, ㈜위너스미디어, ㈜W웨딩그룹, ㈜동원제일저축은행, 대동대학교 등이 후원을 약속했다.

쿠무다는 경남 함양 지리산 자락에서 시작해 부산 달맞이 언덕을 거쳐 송정으로 전법의 여정을 이어온 대한불교조계종 대운사를 뿌리로 둔 문화예술 사단법인이다. 대운사가 법회와 기도 등 신행생활을 오롯이 체험할 수 있는 법향(法香) 가득한 종교적인 공간이라면,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는 현대인의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을 키워드로 불교와 현대사회의 새로운 소통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북카페 쿠무다를 기반으로 꾸준히 문화포교 노하우를 쌓고 다양한 자체 기획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문화예술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매진해 왔다. 그리고 3년 가까운 불사 기간을 거쳐 복합명상문화센터를 완공했다.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는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은 색과 향기를 전하는 연꽃처럼, 쿠무다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더 다양한 모습으로 불자들의 귀의처, 시민들을 위한 힐링 명소로 힘찬 걸음을 딛고 있다"며 "쿠무다 수요음악회 '이-음 콘서트'가 연주자들에게 열린 희망의 무대로, 관객들에게는 정기 음악 공연에 참여하는 장이 되어 부산지역 음악 공연의 저변 확장은 물론 문화예술의 발전을 이끌어 음악인과 시민 모두에게 '최상의 행복'을 마주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불교사암聯, 희망기원 봉축등 밝혀

4월 22일~24일 제등행렬 및 행사 다채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회장 산옹)는 4월 8일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점등식을 통해 '희망이 꽃피는 세상으로'를 기원하며 모든 시민이 건강한 일상을 회복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행사에는 울산광역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산옹 스님, 연등축제봉행위원장 선덕정사, 대활 스님, 혜진 스님, 덕진 스님, 보화 스님, 진응 스님, 덕원 스님, 혜원 스님, 효암 스님,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 송철호 울산시장, 박태완 중구청장, 이진용 BBS불교방송사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4월 8일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봉축위원장 산옹 스님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며 예배 공경한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무명에 가려진 참 나를 찾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올해 봉축 표어 '희망이 꽃피는 세상으로' 처럼 평화로운 울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봉행위원장 선덕정사는 "이번 봉축탑은 울산의 보물 간월사지 3층 석탑을 재현해 한 달간 빛을 밝힌다"며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비광명이 어려운 이웃들과 시민들에게 함께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병호 울산불교신도회장은 "부처님 말씀처럼 각자 마음에 등불을 밝히고 자기 자신과 부처님 법에 의지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불교사암연합회는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4일까지 울산태화강연등축제를 이어간다. 4월 22일에는 제등행렬이 진행되며 23일에는 봉축법요식, 24일에는 태화문화차인협회의 다도시연 등 불교문화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연등축제 기간에는 불교용품, 우수 농수산물 전시 및 판매 등 소상공인 돕기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19로 지친 울산 시민들이 다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희망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주 미륵암,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법회

진주 미륵암(주지 담산)은 4월10일 대웅전에서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봉안법회에는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스님, 진주 미륵암 담산 스님, 창원 안국사 성오 스님, 안국선원 주지 석산 스님, 조규일 진주시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사시예불로 시작해 봉안의식과 삼귀의, 축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수불 스님은 법문을 통해 "종교를 믿는 것은 진리를 알기 위함이다. 진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지혜롭게 믿고 살펴야 한다"며 "이번 점안 법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소통과 변화를 통해 지혜의 눈을 열어 자신을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주 미륵암은 4월10일 대웅전에서 독성탱화 봉안 및 개원 3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비광명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불국정토를 이루고자 하셨다"며 "독성탱화를 모신 불자들의 기원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돕는 자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축사했다.

주지 담산 스님은 "해외에 있는 독성도를 환수하게 되었다. 봉안 법회 후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이번 독성도를 새롭게 봉안하면서 기도 정진하는 도량으로 성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여천 무비 대종사 전등법계 건당식이 4월 8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개최됐다.

무비 스님, 전등법계 건당식

4월 8일, 원봉 스님 등 9명 건당 제자 입실
문수경전연구회 〈화엄경〉 강의 인연으로
전등 법계보, 족자 등 건당 제자에게 전달

여천 무비 대종사 전등법계 건당식(傳燈法係 建幢式)이 4월 8일 부산 문수선원에서 개최됐다.

건당식을 통해 무비 스님은 정법 홍포를 당부하며 정진을 통해 성장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건당식을 통해 기장 도솔암 원봉 스님, 월장사 자현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지은 스님, 금산사 주지 범철 스님, 문화예술사단법인 쿠무다 이사장 주석 스님을 비롯한 9명의 스님들이 건당 입실했다. 건당 입실 제자는 문수경전연구회에서 〈화엄경〉을 공부하며 무비 스님의 가르침을 배워온 것이 인연이 됐다.

무비 스님은 전등 법계보(傳燈 法係譜)와 화엄(華嚴)을 적은 족자, 발우, 무비 스님이 강설한 내용이 담긴 〈직지심경〉을 제자들에게 전달했다.

무비 스님은 전등 법계보 가운데 '장대교망 녹인천지어(張大敎網 漉人天之魚), 큰 가르침의 그물을 펴서 인간과 천상의 고기를 건진다'란 의미가 새겨진 도장을 찍어 수행정진을 강조했다.

무비 스님은 "'장대교망 녹인천지어'가 새겨진 해인도장 내용이 화엄이다. 완벽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면서 보완하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다. 불법과 인연을 맺었으나 공부를 게을리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분발하고 정진해 신도들과 제자들을 가르치며 탁마의 도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건당 제자들은 무비 스님의 뜻을 받들어 정법을 펼치겠다는 의미로 삼배를 올리고 감사 인사말을 전했다. 건당 입실 제자를 대표해 원봉 스님은 "오늘 여천 무비 스님의 건당 제자가 된 것을 깊이 감사한다"며 "저희 제자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해 가르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창원 천연사, 아미타삼존불 점안 법회

창원 팔룡산 천연사(주지 운남)는 4월10일 경내 극락전에서 아미타 삼존불 명부시왕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점안법회는 천연사 중창불사를 회향하며 청정수행도량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법회로, 법회에는 세계불교 법왕청 최고위원 효공 스님, 종단협의회 이사 본원종 만핵 스님, 원흥종 진오 스님, 진원종 혜천 스님, 용화종 법광 스님, 동국대 최고경영자 대학원 8기 원호회 지선 스님, 강기운 국회의원, 신동응 前 창원대 교수, 이명숙 관음회 신도회장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운남 스님은 "1998년부터 도량터를 마련하고 불사를 이어왔다. 오늘



법회는 천연사 극락전 낙성을 기념하고 아미타삼존불 십왕불을 모시는 자리이다. 함께해준 신도회와 불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 청정 수행도량으로 일구고 극락보전이 많은 불자들의 귀의처가 되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극락정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울산 신흥사, 불교서각명인 특별전

4월 15일~5월 10일, 신성루
공진성 · 손경자 부부 39점 전시

울산 신흥사(주지 종현)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내 신성루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불교서각명인 특별초대전'을 개최한다.

불교서각명인 특별초대전에서는 부부인 공진성, 손경자 작가의 불교서각 작품 39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관람객은 작품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을 시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신흥사 주지 종현 스님은 "사찰에서 느낄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외에 다



양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 지역문화를 선도해가기 위해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아울러 신성루를 열린 공간으로 활용해 신흥사를 찾는 사람들이 쉼과 위안을 얻는 공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첫 번째 문화행사"라고 설명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동훈 'Beyond(저편에, 너머에)'展 개막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2층 전시실

불자 서양화가 한동훈 씨의 개인전 'Beyond(저편에, 너머에)'가 4월13일 부산 해운대문화회관 2층 전시실에서 개막했다.

한동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석탑과 풍경(風磬) 등 불교적 이미지를 한국전통미학으로 확장한 그림 30여 점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백혈병 투병 후 새롭게 시작할 시간을 마주한 심정을 담았으며 'Beyond(저편에, 너머에)' 전시 시리즈 중 첫 번째이다.

한 작가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선,



불교미술대전 입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으며 불화, 개금 등 문화재 복원 작업에도 앞장섰다. 후쿠오카 기타노 갤러리 초대전을 가진 바 있으며 네팔 상그릴라사원의 만다라, 부탄 왕립학교의 탕카 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현재 'ART SPACE BEYOND' 소속작가로 활동 중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마산포교당 정법사 110년 되짚다

4월 8일 기념 학술대회 개최…
정법사 포교 고찰

근대 문헌집 발간, 봉정 눈길
유물 기증도 식전행사로 진행
학자들 "역사 조명 지속돼야"

성낙두 경남지사장


정법사가 4월 8일 만불전서 개최한 학술대회에 모인 사부대중들이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마산 정법사 창건 110주년을 맞아 정법사 역사를 고찰하는 기념 학술대회가 열렸다.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주지 광우)는 4월 8일 만불전에서 창건 11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 연구원 도해 스님, 월봉사 보화 스님, 송정 스님, 허성무 창원특례시시장,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 관장, 제점숙 동서대 교수,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 안미옥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사단법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주관 하에 정법사 성보문화재와 포교 활동 조명이 이뤄졌으며, 특히 정법사의 근대 자료를 묶은 문헌집이 봉정됐다.

학술대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낭독, 장학금 수여식, 유물기증식을 식전행사로, 개회사, 신도회장 인사말, 내빈소개, 축사, 장학금 및 학술세미나 후원단체 소개, 축전 및 화환 소개, 정법사 1930~1960년대 자료수집 도서발간 봉정식, 학술세미나 진행, 공지사항,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다.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은 "소임을 맡으며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는 어떤 곳인가'를 화두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자료를 탐독할 때마다 환희심이 가득찼다"며 "민주항쟁 발원지인 마산에서 교육의 초석을 놓고, 민족정신을 함양해 온 정법사의 역사를 기리는 문헌집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모든 것이 불자들이 함께해줘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장학위원회위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속에서 어렵지만 세미나를 열고 자료 수집을 진행했다. 창건 110주년을 맞아 근대불교 초석을 놓은 정법사를 알리게 돼 자부심이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진 학술대회서는 △윤재근 한양대 명예교수의 '제 어머니와 관세음보살' △신용철 양산시립박물관장의 '마산포교당 정법사 대부모은중탑의 고찰' △김규순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 수석연구원의 '마산포에 있어서 마산포교당의 지리적 상징성' △제점숙 동서대 교수의 '마산포교당의 교육사업 현황과 역사적 의의'가 발표됐다.

제정숙 동서대 교수는 "마산포교당 교육사업 중 배달학원과 배달유치원은 마산 지역민의 근대적 교육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공간"이라며 "식민지 지배 하의 독립을 향한 저항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공간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영산작법보존회장에 영산 스님 취임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스님(사진 오른쪽)으로부터 추대장을 받고 있는 영산 스님(사진 왼쪽).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를 이끌어갈 새 회장으로 익산 태봉사 영산 스님이 취임했다. 전북영산작법보존회는 4월 7일 전북교구 종무원 대법당(영산보존회관 3층)에서 보존회 신임회장 취임식을 봉행했다.

남상준 전주대 교수 사회로 봉행된 이날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 종회의장 법전 스님을 비롯해 영산작법보존회 회원 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 열린 전북영산작법보존회 총회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영산 스님은 이날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으로부터 추대장을 받았다. 영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과 영산작법보존회가 일심으로 전북의 영산재를 발전시켜달라"며 "일반인이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범패 홍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영산작법보존회를 이끌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진성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영산작법보존회와 전북종무원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며 "그동안 꾸준하게 영산작법보존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 온 스님인 만큼 임기동안 더욱 더 발전을 위해 분투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해안 선사 48주기 추모재 봉행

부안 내소사 4월 7일 대웅보전에서 개최


내소사 스님들이 해안 선사 추모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근현대 선지식인 해안 선사 48주기를 기리는 추모 다례재가 봉행됐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4월 7일 대웅보전에서 해안 대선사 48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원명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선운사 원로 법현 스님, 범여 스님, 개암사 주지 종고 스님, 진용 스님, 김태진 거사, 이동배 정광고교장 등이 참석했다.

추모재는 영단삼배, 입정, 해안 대종사 육성법문, 분향, 삼배, 주지 스님 인사,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주지 진성 스님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로 몹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공사다망함에도 원로 대덕 스님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대중스님들의 은덕으로 다례재를 잘 치르게 됐다. 건강 유의하시고, 강건하게 후세를 지켜봐 달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해안 스님은 1901년 부안에서 태어나 1914년 내소사에서 만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17년 장성 백양사에서 만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32년 계명학원을 설립했고 1969년 불교전등회 대종사로 추대됐다. 스님은 1974년 세수 74세, 법랍 57세를 일기로 입적했다. 오늘날 내소사를 있게 한 해안 스님은 출가와 재가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았다.

한편, 내소사는 추모재에 앞서 부도전에서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탑사, 자비의 쌀 300포 전달

봄맞이 산신재 열고 이웃에 회향


산신재 이후 불자대중들이 자비의 쌀을 전달하고 있다.

진안 마이산 탑사가 봄맞이 산신재를 봉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쌀 300포(1000만원 상당)를 진안군청에 전달했다.

4월 9일 진안 마이산 탑사 광장에서 열린 산신재는 임인년 한해 코로나19 조기 종식과 나라의 안녕, 가정의 화목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였다.

남상준 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봉행된 산신재는 전북무형문화재 18호 영산작법보존회(회장 영산) 집전으로 신중작법과 39위 신장 법문에 이어 천지기도, 산신재 순으로 진행됐다.

산신재에서는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불자기업인 (주)복성산업개발, 태원산업개발, 태원(회장 박금태), 전북 나누우리 봉사단(봉사단장 이재현), 탑사 전국총신도회(회장 윤복길)가 나눔기도를 진행, 진안군에서 추천한 복지센터, 홀몸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쌀 300포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마이산 탑사서 이갑룡 거사가 탑을 쌓고 산신재를 봉행한 지 137년이 되었다. 산신재 공양물을 팔아 독립군에게 보낸 것도 137년이 되었다"며 "마이산 산신재는 이웃들을 위한 나눔 실천의 장"이라고 말했다.

전문순 복성산업개발 부회장은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박금태 회장 등의 인연으로 국내외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자비의 백미가 진안군 이웃에게 잘 전달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도봉축위, 봉축기원탑 점등 전라북도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일원, 진성)가 봉축 기원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4월 9일 전주역 광장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봉축위 공동위원장 일원 스님(금산사 주지)과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을 비롯해 서고사 주지 화평 스님, 조계종 17교구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천태종, 보문종, 용화종 등 각 종단을 대표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 김성규 대불청 전북지구장, 안준아 화엄불교대학총동문회장 등 신행단체장들과 불자들이 참석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남부내륙 · 달빛내륙철도 조기 착공하라"

해인사역혁신발전위, 조기착공 주민간담회 개최

경남 합천군에 위치한 해인사역 야로유치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조삼술, 김태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달빛내륙철도 연계환승역인 해인사역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4월 7일 합천군 가야면 소재 가야농협유통센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인사 국장단(총무국장 진각, 기획국장 학암, 사회국장 일휴)과 합천군 가야 · 야로 · 묘산 · 봉산면 지역발전위원회, 고령 · 거창군 이장단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조기착공을 위한 대정부 활동 전개와 사업 준비단계에서부터의 지역주민 의견 반영 등의 뜻이 모였다. 토론에서 참가자들은 "해인사역 조기착공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조기시행에 따른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등간격 : 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제등행렬용품


일자A형 S형 T분리형 LED바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연면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영국 한적한 주택가서 퍼지는 佛法

해러것지역 데첸 불교 명상센터
주택 개조해 법당 · 명상실 구성
60명 신도 나서 센터 직접 운영
매주2회 예불 · 명상 · 교리 논의

김민재 객원기자

영국 노스요크셔주 해러것 지역에 소재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데첸 불교센터가 현지인들에게 활발한 포교활동을 펼쳐 화제다. 해당 지역뉴스매체인 '더 스트레이 페럿' 은 4월 8일 해러것 지역에서 활동하는 티베트 불교 공동체와 데첸 불교센터를 소개했다.

해러것 지역 그랜빌 로드에 위치한 데첸 불교센터는 티베트 불교사원으로, 평범한 지역 주택을 개조해 만들어졌다. 데첸이란 티베트어로 '큰 기쁨(大樂)' 이라는 뜻이다. 센터는 기도와 법문이 진행되는 법당과, 명상을 위한 명상실로 구성돼 있다. 센터는 매년 두 번 티베트 스님인 라마 잠빠타야 스님이 방문해 신도들을 지도한다. 그 외 기간에는 60여 명의 신도가 센터를 운영하며 이웃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라마 잠빠타야 스님은 티베트 불교의 4대 종단 중 2종단인 싸꺄파와 카규파의 법맥을 모두 수학한 강사이자 숙련된 명상지도자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인도 델리에 소재한 카르마파 국제불교연구소의 국제 교수진 소속이다. 6대 까르마빠와, 은사인 까르마 틴레 린뽀체의 권유로 영국을 시작해 유럽과 미국에 여러 불교센터를 설립하며 주로 서구권에서 포교를 하고 있다.

스님은 1975년 잉글랜드 북서부 맨체스터에 캄포 캉그라 카규링 센터를 설립했고 1977년에는 영국 최초 티베트 불교 샤카파 불교센터인 싸꺄 틴레 린첸링을 개원했다. 해러것의 데첸 불센터는 앞의 두 센터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지역 불교공동체의 주요 거점으로 설립됐다.



데첸 불교 센터의 신도 데이비드 불룩, 그렉 튜네시, 관리자 트리샤 퀸, 하워드 퀸(좌측부터) 데첸 불교센터 전경.
사진출처=더 스트레이 페럿

데첸 불교 센터 신도 데이비드 불록은 "나는 내면에 안식을 찾기 위해 종교를 찾고 있었고, 서구의 주요 흐름인 기독교는 나와 맞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에 모든 폭력을 막을 수 없는지 의구심만 품고 있었다" 면서 "그러다 14년 전 한 기사를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불교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전했다. 불록은 "신을 숭배하지 않고 깨달음, 즉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열반을 목표로 삼는 것이 새로웠다"면서 "이곳에서 나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다"며 행복한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신도인 그렉 튜네시는 "나는 기독교 신자였지만 불교로 개종했다. 이는 인생을 바꾼 큰 경험이었다"면서 "데첸 불교센터에서의 명상체험이 내면의 깊고 심오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줬다. 부처님 가르침이 일상생활 속에서 내면의 평화를 준다"고 말했다.

데첸 불교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퀸은 "불교는 나에게 상처뿐이었던 어린시절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구권에서 불교로 개종하는 사람은 대부분 삶에서 극심한 충격을 겪은 후 개종한다"면서 "명상과 가르침은 때대로 변화와 함께 오는 원초적인 감정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센터 신도들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 더욱 감사함을 느끼며 삶의 선함을 명료하게 본다"면서 "우리는 현재를 충실하게 살며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습관을 다시 느끼거나 미래에 일어날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현재 데첸 불교센터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여 함께 예불과 명상을 하고 새롭게 불교를 찾아온 이들을 안내한다. 특히 명상을 한 뒤 불교교리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이 삶과 경험에 연관되는지 나눔으로써 함께 수행하는 도반으로 정진하고 있다.

日, 기타 선율 맞춰 반야심경 독송

토켄 스님 영상 유튜브서 화제
한달 10회 라이브 불자와 소통


통기타 선율 맞춰 반야심경 독송하는 토켄 스님. 사진출처=아사히 신문

일본 스님이 아름다운 기타 선율에 맞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영상이 화제다. 4월 7일 일본 '아사히 신문' 은 기타 선율에 젖어든 반야심경 독송 영상과 스님을 소개했다.

일본 니가타현 고센시에 위치한 조동종 사찰, 요코쿠지(永谷寺). 아름다운 통기타 선율에 맞춰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스님 영상이 입소문을 타며 사찰에 새로운 분위기가 돌고 있다. 영상 주인공 요시하라 토켄 스님은 기타를 연주하며 전통적인 독경법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한다. 전혀 색다른 두 스타일이 만나 독특하면서 반야심경의 음률을 만들어 냈다.

토켄 스님은 "통기타는 전통적 의례 도구인 목탁보다 훨씬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낼 수 있어 청자가 경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첫 비상사태가 선포된 2020년 5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침체된 분위기로 우울해진 불자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친구가 영상 제작을 제안했다"고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를 전했다. 스님은 "무엇보다도 기타는 외롭고 힘들었던 나의 청소년기를 이겨내게 해준 악기"라며 "기타로 코로나 블루를 겪는 불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노래를 전하고 싶었다"면서 기타를 치며 반야심경을 독송하게 된 사연을 덧붙였다.

독송 영상이 게재된 후 사찰에 "통기타를 치며 독송하는 스님을 직접 보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다. 이에 요코쿠지 측은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는 조석 예불에 기타 반야심경 독송을 추가했다. 요청에 따라 타지역에서 독송하기도 한다. 현재 스님은 한 달에 최대 10회 정도 기타 반야심경 독송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불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또 중계가 아닌 실제 스님의 육성을 듣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불자들이 요코쿠지를 방문하고 있다.

토켄 스님은 "일본은 현재 출산율은 감소하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특히 요코쿠지가 소재한 무라마츠 지구의 인구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나의 노래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사찰이 사람들이 잠시 들러 교류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통기타 독송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전했다. 스님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다"면서 "전통적인 불교 이미지에서 벗어나 불자들의 흥미를 일깨우는 나의 통기타 독경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재 객원기자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 입적

3월 22일, 태국 최고령 출가자
SNS속 모습 전 세계서도 화제


태국 최고령(109세) 출가자 루앙 포 야이 스님의 틱톡 영상.
사진출처=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태국의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이 입적했다. 4월 8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 도어 글로벌' 은 109세 노승의 입적 소식을 전했다. 루앙 포 야이 스님은 태국에서 생존한 최고령 출가자였다.

영상 SNS 플랫폼인 틱톡(TikTok)에서 손녀와 증손녀와 함께 하는 동영상으로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은 태국의 109세 노승 루앙 포 야이 스님이 3월 22일 입적했다.

지난날 틱톡 영상에서 스님은 마치 미라와 같이 마른 모습에 증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축복하는 모습이 담겨 화제를 일으킨 바 있다. 해당 영상은 1억 7천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했으며 영상 속 스님이 163세이며 즉신불(即身佛) 수행 중이라는 허위 주장도 퍼졌었다.

영상이 화제를 일으키자 이를 촬영한 스님의 손녀 아우이 아우야라이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영상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이며, 지난 1월 스님은 엉덩이뼈 골절로 입원했다고 밝혔다. 아우이는 스님의 병원생활을 도표로 작성해 증명했다.

또한 스님의 세납이나 수행에 대한 소문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초고령이자 환자인 스님의 동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 비판이 일었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아우이와 노스님께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스님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틱톡에 업데이트하며 구독자들과 소통하던 아우이는 한동안 업로드를 중지했고 최근 새로운 영상을 공개하며 3월 22일 스님이 입적했음을 전했다. 공개한 영상 속엔 스님의 다비식과 유골을 수습하는 장면들이 담겼다.

아우이는 "태국에서 존경받던 스님인 우리 할아버지는 109세였다. 할아버지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가끔 눈이 보이지 않았으며 청력이 좋지 않아 종종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의식은 여전히 다른 사람처럼 날카로웠다. 110세가 되는 4월 1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입적에 드셨다."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현재 아우이는 자신의 틱톡 계정에서 스님의 생전 영상들을 공개하며 스님을 추모하고 있다. 김민재 객원기자

네팔, 룸비니 걷기로 '세계평화' 발원

IOC 초청 대규모 이벤트 추진
룸비니 홍보 · 관광활성화 기대



네팔올림픽위원회(NOC)가 국제스포츠의날(IDSPD, 4월 6일)을 기념하며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걷기대회를 개최한다.

지반 람 쉬레샤 네팔올림픽위원회장은 4월 3일 네팔올림픽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에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염원하며 걷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네팔올림픽위원회는 룸비니 걷기대회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가입된 207개 국가 올림픽위원회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적 행사를 위해 정부 관계자와 올림픽위원회 임원진을 중심으로 집행위원을 구성한 상태다.

지반 람 쉬레샤 네팔올림픽위원회장은 "룸비니 걷기대회는 세계에 부처님 탄생지인 룸비니를 홍보함과 동시에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비와 평화를 실천하는 의미에서 구상됐다"면서 "이를 통해 관광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팔올림픽위원회는 이번 걷기대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매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임은호 기자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삶?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것이 삶이다!



정신과 의사, 최훈동 원장이 전하는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최훈동 지음 | 248쪽 | 15,500원

불교와 명상, 심리 치료는 하나다!
불교를 심리 치료적 견지에서 새롭게 해석한 역저
싯다르타의 깨달음의 여정에 따라 행복에 이르는 길

최훈동
마음 전문가. 서울대의대 외래교수로 25년간 정신 치료를 지도하고, 휴앤심 연구소에서 종교와 정신의학, 명상과 심리치료를 아우른 연구와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내 마음을 안아주는 명상 연습』, 『정신의학 이야기』, 『나를 넘어선 나』 등이 있다.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02)765-1251 담앤북스

저자와 함께 하는 숙고 명상 워크숍

명상은 관련 책을 백 권 읽는 것보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깊은 사유와 깨달음을 통해 삶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는 숙고 명상의 여정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22년 4월 30일(토), 5월 1일(일), 7일(토), 8일(일) 총 4회
토요일 오후 2시 30분 ~ 6시, 일요일 오후 2시 ~ 5시 30분

| 교재 | 깨달음의 길 숙고 명상

| 수업 내용 | 명상 안내, 명상 실습, 숙고록 작성(1:1 피드백 제공)
1회 명상 입문, 집중 관찰 명상 2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1
3회 호흡 명상, 숙고 명상2 4회 자비 명상, 무아 명상
* 1회 또는 전체 참가 가능합니다.
* 각 회기는 독립적으로 진행하되 회를 거듭할수록 점층적으로 심화됩니다.

| 참가비 | 대면 1회 8만 원, 4회 30만 원
비대면 1회 5만 원, 4회 18만 원 *선착순 모집

| 참가 신청 및 문의 | ungang817@naver.com
*신청 시 성명, 연락처, 참석 희망 일자를 기재해 주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3~4/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아헹가요가)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6	중론:산스끄리뜨계송의 문법해설을 겸한(김성철/개정본)바코드변경판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2	법륜스님의 금강경강의(금강반야바라밀경)	법륜스님	정토	7	숨길따라 가는 길(암도스님)	여산암도	맑은소리맑은나라
3	육조법보단경(큰수레총서9)	육조혜능/학담	큰수레	8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선지식의 크신 사랑(개정판)	김원수 지음	청우당
4	명상이 가져다 준 선물:지금 이순간이 내삶의 전부다	조치영	운주사	9	황벽산의 메아리(깨달음의 외길 조사선3)전심법요완릉록 강설	원오 역해	무량수
5	49재와 136지옥:죽은 뒤의 중음세계와 지옥순례	허암	운주사	10	낡은 옷을 벗어라법정스님 미출간 원고8편 수록 *법정스님 원적10주기 추모집	법정스님	불교신문사

책세상

"잃어버린 행복 찾는 일이 본래 '나' 찾는 일"



행복찾기
덕선 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펴냄/1만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본래 우리가 갖고 있던 행복을 잃었다면 그것은 곧 "나는 왜 '나'로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곧 불행의 근본 원인을 푸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나'의 본질을 찾는 것은 곧 잃어버린 내 행복을 찾는 일이며, 무명으로 왜곡된 본래의 '나'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책 속에는 잃어버린 행복과 동시에 본래의 나를 찾는 저자의 단상들을 옮겨 놓았다. 저자는 광명 붇다사 주지 덕선 스님〈사진 오른쪽〉이다. 스님은 화엄사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를 읽고 행자 때부터 화두로 삼았으며, 통도사 승가대학과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동화사 통도사 화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했다. 이 책은 저자 덕선 스님이 은해사 승가대학원서 공부할 때, 재가불자들을 위해 개설한 불교 교양대학 전문반 강의를 부탁받고 준비한 강의 원고와, 그동안 수행하면서 저자 나름대로 수행의 핵심을 잊지 않으려고 써 둔 '바다 찾기'라는 몇 편의 시를 함께 엮어서 펴낸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조금 더 보태고 다듬어서 붇다사 개산 10주년에 즈음해 새로운 법문집으로 출판했다.



저자, 불교교양대 강의 원고와 시 함께엮어
일상에서 마음 바로 쓰는 방법 쉽게 가르쳐

책은 저자가 그간 사찰 정기법회 법문과 불교대학 강의 등 불자교육을 해 오면서 느낀 일들을 진솔하고 꾸밈없이 써내려 갔다. 이런 스님의 글을 읽으면 마음에 와 닿는 잔잔한 즐거움과 동시에 쏠쏠한 재미도 느껴진다. 사실 불교의 신행은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이 되어 우리들의 생활을 좀더 밝고 넉넉하게 해 보자는 데 그 뜻이 있지 않을까?

덕선 스님은 이번 책을 통해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일상의 마음을 바로 쓰는 방법을 간명하고 쉽게 가르쳐주고 있다. 시로 말해 놓은 '바다 찾기'라든지 '운명과 업' 등은 불자들의 순수한 신심을 북돋아 주고, 부처님 가르침을 교리적 접근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하는 매우 요긴한 법문들로 가슴에 쏙 와 닿는다.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뒷산 울타리로 심어놓은 대나무는 세월만큼이나 잎이 무성해지고, 곧게 서며, 단단해지는데 수행자인 나는 출가했던 그때보다 나아진 것이 있는지 돌아보게 된다"고 고백한다. 책은 '불교예절의 기본 정신' '불교 수행의 시작과 끝' '부처님과 보살' '삼법인' '계정혜 삼학' '우리는 왜 행복을 잃었는가' '운명과 업' '불교와 기독교' '본래무일물' 등 총 9강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 원고들을 모아서 묶어서인지 지상법문을 듣는 느낌이 난다.

▲저자 덕선 스님은?

화엄사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라마나 마하리쉬의 〈나는 누구인가〉(이호준 역)를 읽고 행자 때부터 화두로 삼았다. 통도사 승가대학과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동화사, 통도사, 화엄사 승가대학 강사를 역임하였다. 현재 광명 붇다사 주지. 마음공부도량 광명 붇다사(https://cafe.daum.net/qneektk028995569)

책 속의 밑줄 긋기

"인간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나'라는 자의식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나'로서의 아상과 아집으로 발생하는 고통 또한 더욱 명료해졌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쓰게 된 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으나, 그 고통의 시작인 언어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인간은 자신을 객관화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숙의 길 또한 열리게 되었습니다. 수성(獸性)으로부터 시작해서 문화성(文化性)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단계는 바로 문화성의 핵심인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단어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언어입니다. 이 '나'라는 언어가 모든 생각의 어머니이며, 내 생사윤회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각을 언어라는 관념으로 진화시켜 왔으며, 언어의 탄생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어가 탄생함으로써 상상할 수 없는 문명의 발전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구한 진화의 시간 선상에서 본다면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언어의 발생은 어쩌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언어의 발생이 오히려 인류에게 큰 불행의 씨앗이 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상현실에 살고있는 꿈꾸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 당연하고 확실한 것 같은 이 현실을 꿈속의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시간과 공간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와 '내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행무상(諸行無常)의 존재로서 '나'와 '내 몸'은 흐르는 강물과 같이 지금 이 순간도 쉼 없이 연기(緣起)되어 변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로써 '나'와 '내 몸'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그림으로 보는 팔만대장경 핵심 가르침



이세상 모든것은 영원하지 않네
혜조 엮음/신창호 해탈자 그림
운주사 펴냄/1만5천원



팔만대장경의 방대한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간단하면서도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어구를 가려 뽑아, 우리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재미를 주는 삽화와 함께 엮은 책으로, 그림 경전 말씀 세 번째 권이다. 수행길에 있는 사람에게는 수행의 지남이 되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삶의 이정표가 되는 가르침이 한 권 가득하다. 시간 날 때마다, 혹은 매일 한 구절이라도 살펴 읽는다면 삶의 평안과 지혜, 깨달음의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스님과 재가불자의 콜라보

엮은이는 스님으로 여러 경전과 논서, 선어록 등에서 출가자나 재가자들이 자신의 수행과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가르침들을 뽑아냈으며, 그린 이들은 재가불자들로 여기에 그 가르침과 어울리는 삽화를 그려 넣었는데, 이런 콜라보를 통해 '그림 경전 말씀'이라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느낌의 책이 탄생되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양약

부처님의 팔만대장경 법문은 중생들이 겪는 갖가지 고뇌와 고통을 소멸시켜 주기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으며, 고통을 불러온 실마리만 제거하면 의외로 쉽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고 있는 이때,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더더욱 중요해졌다. "현대사회의 질병과 전쟁 및 여러 자연재해 등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밝은 등불이 되고, 지혜와 용기를 주는 좋은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엮은이의 발원처럼, 이 책에 실린 보석 같은 가르침들이 각자가 처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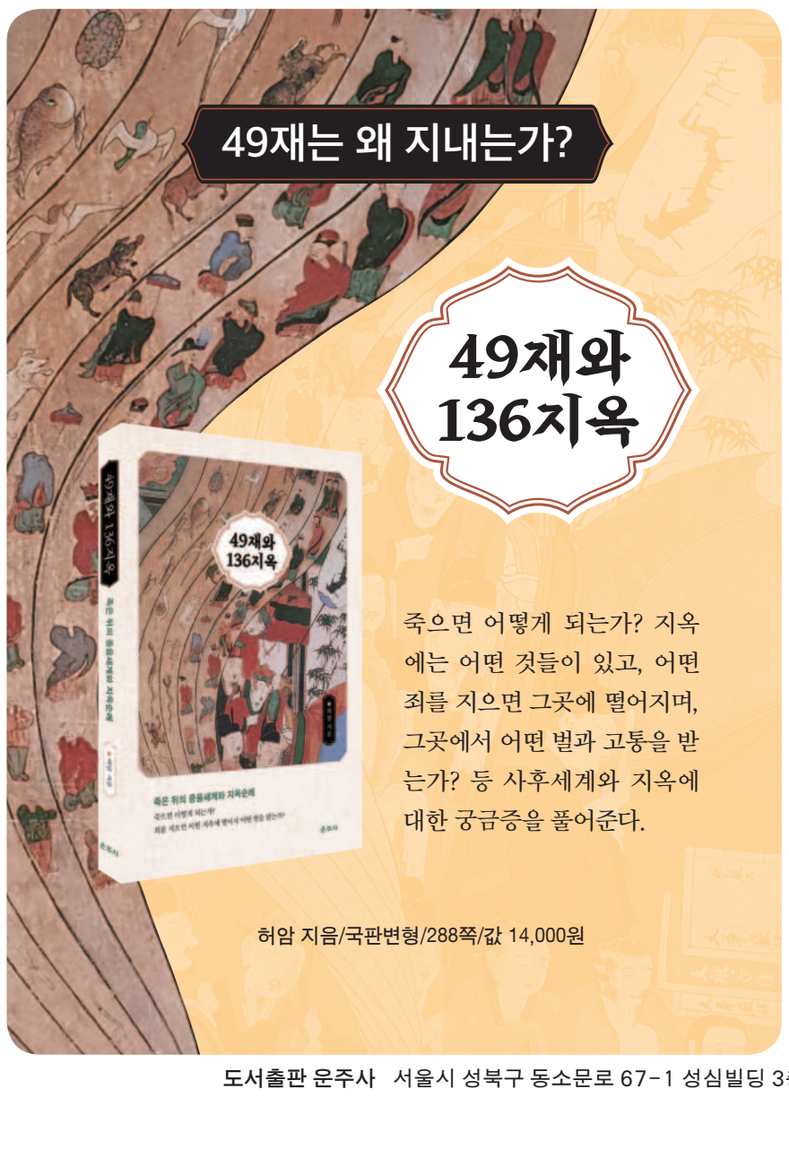
내 삶을 일깨우는 지혜의 등불

부처님의 가르침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그리하여 내 삶과 동떨어진 도그마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리하여 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르침이 가득하다. 그리고 그것은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도 행복한 길이다.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성찰하면,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행길을 깨우쳐주는 죽비

수행은 해탈을 향해 자신을 바꾸는 지난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것은 열정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길고 지루한 수행길에서 마음이 느슨해질 때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추스르며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가 필요한데, 때론 거창한 담론보다 말 한마디면 불씨로 충분할 수가 있다. 여기에 실린 짧은 글들이 인연이 닿은 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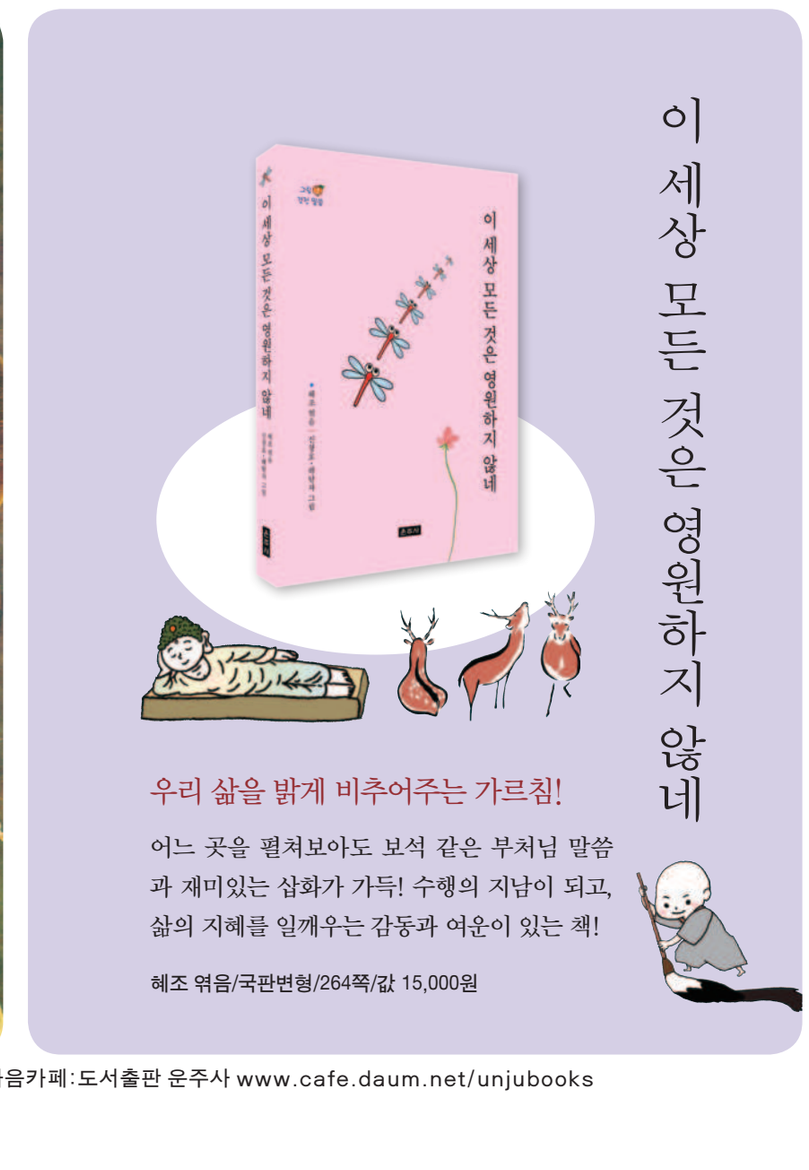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옥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죄를 지으면 그곳에 떨어지며, 그곳에서 어떤 벌과 고통을 받는가? 등 사후세계와 지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허암 지음/국판변형/288쪽/값 14,000원



진정한 정토불교의 가르침을 만나다!
정토불교란 무엇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정토수행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왜 정토수행이 최고인가?

영화 지음/조소영 옮김/신국판/328쪽/값 15,800원



우리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가르침!
어느 곳을 펼쳐보아도 보석 같은 부처님 말씀과 재미있는 삽화가 가득! 수행의 지남이 되고, 삶의 지혜를 일깨우는 감동과 여운이 있는 책!

혜조 엮음/국판변형/264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도예’라고 쓰고 ‘에세이’라고 읽는다


정운 스님.


정운 스님 作 ‘환한 웃음’.

리 뷰

정운 스님의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

‘현대적’ 넘어 ‘동시대적’ 공감 감성
직접 빚고 그린 작품 80여 점 전시
삶서 마주한 이야기 그림과 도예로

박재완 기자 waniholo@hanmail.net

벚꽃 잎이 흩날리는 길을 따라 걸어들어간 갤러리에는 또 다른 꽃잎과 풀잎들이 정갈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매화도 보이고, 연꽃도 보인다. 그리고 나비도 보인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보령 세원사 주지 정운 스님의 도예 작품들이다.

정운 스님은 4월 6일부터 11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6전시관에서 ‘이야기가 있는 도예전 II’를 열었다. 충남 보령에서 30년 가까이 청소년 교화와 포교에 헌신해온 정운 스님은 7년 만에 여는 두 번째 전시에서 ‘겸허한 미소’, ‘절에 가는 길’ 등 현대적 감각의 도예작품 80여 점을 선보였다. 그랬다. 현대적이다. 달리 말하면, ‘동시대적’이다.

그리고 전시 명에서 보이듯이 작품 하나하나에는 분명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 첫 번째가 작품의 제목들이다. 모든 작품에는 제목이 있지만 정운 스님 작품의 제목들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제목은 이야기의 시작이다. 모든 예술의 첫 번째 목적과 의미는 ‘공감’일 것이다. ‘소통’이다. 정운 스님의 작품 앞에 서면 작품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우선, 스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달을 보는 섬’, ‘쉬었다 가세’ 등 툭툭 던지는 스님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운 스님의 작품은 손수 빚은 도예작품에 손수 그린 그림이 그려져 있다. 연꽃이 각양각색으로 피어있고, 민들레홀씨가 날리고, 나비가 날고, 잠자리가 날아다닌다. ‘정운의 그림’은 말(言) 대신 쓰는 말(言)이다. 그래서 예쁘다. 예쁜 마음 그려낸 그림이다. 현실에서 본 것들을 그렸지만 현실에선 볼 수 없는 그림이다. 정운의 마음에 사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 그림을 담아내는 형식은 접시 형태의 도예도 있고, 타일 형태도 있고, 독립된 형태의 배열도 있다. 그렇게 제목, 도예, 그림 세 가지가 작품의 이야기를 완성한다. 도록에는 시(詩)가 붙어있는 작품도 있다. 이야기는 한 번 더 깊어진다. 스님은 시인이기도 하다.

“뭔가 집중하고 싶은 맛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 나는 작업실을 향한다. 그때그때 생각들이 응집되어 손끝으로 뿜어 나오는 에너지가 또 다른 이름이 되어 내게로 다가올 때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수행도구임을 확인한다.”

정운 스님의 작품은 그렇게 나온다. 하루의 어디쯤에서 문득, 출가자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지나칠 수 없는, 시인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것들과 만날 때 그 지나칠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들 앞에 서서 지나치지 못하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 사유하고 성찰한다. 그렇게 사유와 성찰을 거친 것이 정운 스님의 글이고, 도예고, 그림이다. ‘에세이’다. 정운 스님의 작품들은 그래서 동시대적이다. 그때그때 삶에서 건져낸 이야기들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작품 ‘백신’을 본다. 작품은 ‘흰 고무신’을 형상화하고 제목을 ‘백신’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붙였다. 도록에는 ‘백신’에 시가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 스님의 머리에 잘못 올라 탄 코로나 백신 균들은 / 머리카락이 없어 바로 균이 결착하지 못하고 / 미끄러져 떨어져서 죽기도 하는데 / 그 원인은 스님들이 신는 흰고무신 때문이라 한다. // 코로나균이 스님의 머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면 / 스님이 신고 있는 ‘흰고무신’에 부딪히게 되는데 / 이때 대개는 뇌진탕으로 죽거나 일부는 발냄새에 의해 / 시한부로 박멸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 흰고무신(백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 2년여 간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든 시기에 / 이런 이야기가 위로가 된다면 하는 생각에 / 즐겨 신는 흰고무신을 부각시켜본다.” 정운 스님의 ‘현대적’은 ‘동시대적’이다.

그렇게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관람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다. 슬픈 노래나 슬픈 영화를 보면서 자신으로 전이되는 감정선, 장례식장이나 슬픈 현장에서 자신의 이야기로 전조되는 감정선 같은 것이다. 감성이 내재된 콘텐츠나 형상과 마주하면 우리는 그것과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절에 가는 길’, ‘함께’, ‘별은 떨어지고’, ‘봄날은 가고’, ‘그리운 몸짓’, ‘위로’, ‘고목에 핀 희망가’ …. ‘정운의 세계’ 앞에 서면 한 출가자와 한 시인과 한 도예가와 만난다. ‘공감’이다. 서로 다른 길에 서있지만, 서로 다른 것을 들고 있지만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다.

정운 스님은 도예가의 이름 앞에 출가자의 이름이 먼저다. 시인의 이름 앞에도 법명이 먼저다. 스님은 출가자의 본분인 하화중생으로 청소년 교화에 평생 헌신했다. 스님의 작품세계와 무관하지 않다. 스님은 2005년부터 스님의 공방을 아이들에게 개방했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한다. 예술이라는 거창한 테마가 아니라 손에 흙을 묻히면서 자연을 만난다. 조금이나마 자연의 존재를 인식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자신의 깊이와 크기가 달라진다. 글자와 교육으로 할 수 없는 ‘제도(濟度)’다. 정운 스님은 그렇게 하루하루 흙을 빚고, 빚어낸 도판 위에 일기를 쓰듯이 그림을 그린다. 흙에 쓰는 에세이다.

정운 스님은 1975년 석남사로 출가했다. 운문사 강원, 내원사 선원, 중앙승가대학을 거쳐 혜전대학 도예과, 군산대학교 산업도예과, 한서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 · 박사를 졸업했다. 사회복지박사로서 한서대학 겸임교수 및 보령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세원아청문화육성회 회장을 역임했다. 5권의 시집과 5권의 산문집을 낸 시인이기도 하다.

콜롬비아 무대 서는 한국현대무용 ‘우담바라’

인터뷰 콜롬비아 초청공연하는 김복희무용단 대표 **김복희**

김복희무용단 콜롬비아 초청공연
2022년 보고타 국제 도서전 참가
보고타 콜론극장 4월 23일~24일
‘우담바라’ ‘피의 결혼’ 무대 올려

김복희무용단과 김복희 대표는 한국현대무용의 짧은 역사 속에서 50년이 넘는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지난 3월에 정기공연을 마친 바 있는 김복희무용단이 콜롬비아 무대에 선다. 김복희무용단은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리는 콜롬비아 보고타 국제도서전 기념행사에 참여해 4월 23일과 24일 보고타 콜론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김복희무용단이 이번 무대에 올리는 작품은 1997년 초연한 대표레퍼토리 ‘피의 결혼’과 남지심 소설 〈우담바라〉를 원작으로 한 ‘우담바라’이다.

한국과 콜롬비아는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4월에 열리는 보고타 국제도서전과 6월에 열리는 한국 국제도서전에서 각각 주빈국으로 서로 참여하여 다양한 기념행사를 마련한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 한국전쟁 참전국이다. 당시 연인원 5314명의 콜롬비아군이 참전해 우리와 함께 싸웠고, 이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 이번 2022년 보고타국제도서전에 문학분야에서 김경욱, 은희경, 이문재, 정영수, 한강(온라인 참가) 등의 다양한 한국문학작품과 작가들이 참여한다. 그와 함께 한국문학을 보다 친근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그리고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소개하기 위해 한국문학 단편영화와 김복희무용단의 공연을 진행한다.

춤에서의 현대성, 현대춤에서의 한국성을 추구하는, 한국 현대무용계의 독보적인 안무가이자 창작무용가인 현대무용가 김복희가 이끄는 김복희무용단은 2020년에 창단 50주년을 맞이했다.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 어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지냈죠. 어머니는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관음기도를 올리셨어요. 매일아침 눈을 뜨면 어머니의 염불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저를 깨어있게 하는 힘이 어머니의 염불소리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저에게 관세음보살과 같으세요.”

김복희 대표는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극적 요소가 풍부한 안무의 현대무용을 구현해왔다. 그리고 그 한국적인 정서의 중심은 불가적 정서라고 할 수 있다. 김 대표가 50년 넘게 한국 현대무용의 역사와 저변을 확장시키면서 수많은 작품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춤이 수행이 되고, 수행이 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우담바라〉는 제가 1980년대 말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 소설을 읽으면서 언젠가는 무용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가슴에 늘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작품을 2021년 작년에서야 무대에 올렸습니다.”

김복희의 무용 ‘우담바라’는 3000년에 한 번 핀다는 천상의 꽃 ‘우담바라’처럼 모든 인간이 소중함을 춤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소설 속에 담겨있는 다양한 인간, 즉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로, 하나의 개체로서의 삶 속에 스며있는 사랑과 배신 그리고 죽음을 통한 인간의 성찰을 그리고 있다.

김복희무용단은 한국무용의 세계화를 실천하며 김복희무용단만이 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더욱 발전시켜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작품들로 세계무대를 겨냥하고, 지속적으로 더 나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예술적 시도를 모색하고 있다. 김복희 대표는 “‘한국 현대무용의 세계화’라는 타이틀로 예술계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한국 현대무용의 우수성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공연예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자 끊임없는 도전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김복희무용단 김복희 대표.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서울 나들이 나선 수덕사 두 보물 聖寶

국립중앙박물관 수덕사 괘불 특별전 개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천년고찰 수덕사에 전해지는 고려 · 조선시대의 귀중한 보물 성보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열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은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4월 13일부터 10월 16일까지 상설전시관 2층 불교회화실에서 보물 '예산 수덕사 괘불'을 특별전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17번째로 방문한 보물 '예산 수덕사 괘불'은 높이 10m, 너비 7.4m, 무게 150kg이 넘는 대형 괘불이다. 괘불을 보관하는 함까지 포함하면 380kg이 넘는다. 이번 전시를 위해 수덕사 스님들은 직접 법당 밖으로 괘불과 괘불함을 이운하며 서울 나들이를 도왔다.

조선 1673년(현종14)에 조성된 이 괘불은 화면 가득하게 펼쳐진 빛이 돋보이는 괘불이다. 화면 중앙에는 오랜 수행으로 공덕을 쌓아 부처가 된 보신불인 노사나불(盧舍那佛)을 그렸다. 화려하게 장엄된 부처와 그를 중심으로 피어나는 신비로운 빛은 부처의 초월적인 힘을 보여준다.



사진은 보물 '수덕사 대웅전 목조연화대좌'

10월 16일까지 불교회화실에서
높이 10m에 달하는 대형 괘불
조선 僧匠 응열이 조성한 '명품'

'대웅전 목조연화 대좌' 첫 전시
현존 유일한 고려시대 연화대좌
고려 · 조선 불교미술 정점 확인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수덕사 괘불탱'. 오는 10월 16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에서 만날 수 있다.

담백한 수행과 정진만 있을 것 같은 조선의 불교문화에는 이처럼 화려한 형상과 거대한 크기로 사람을 압도하는 괘불이 있었다. 가르침을 전하는 부처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보살과 제자들, 수많은 신의 존재는 서양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만큼이나 다채롭다.

이 괘불은 응열(應悅)을 비롯해 그림을 그리는 화승(畵僧) 네 명이 조성했다. 괘불을 그린 수화승 응열은 9년 전인 1664년에도 '공주 신원사 괘불'을 조성한 화승이다.

괘불은 일반 불화를 그리는 것과는 규모 자체가 다르다. 그러므로 한 화승이 사찰의 초빙을 받아 괘불을 여러 점 조성했다는 것은 그의 명성과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단의 화기(畵記)에는 화승뿐만 아니라 불사(佛事)를 성공적으로 이끈 참여자 114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또한 수차례의 중수 기록은 이 괘불이 오랜 시간 민중에게 사랑받았음을 보여준다.

이번 괘불전에는 보물 '수덕사 대웅전 목조연화대좌'도 함께 선보인다. 고려 14세기에 조성된 이 연화대좌는 지금까지 확인된 유일한 고려시대 목조연화대좌로, 전시를 위해 처음으로 사찰 밖에 나왔다.

이번 전시에는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목조대좌의 내부 구조를 공개한다. 대좌 본체는 여러 나무판을 이어 붙여 만들었고, 연꽃잎을 따로 조각해 본체에 고정했다. 특히 연꽃잎을 꾸민 다양한 문양은 화려하고 장식적인 고려시대 목조대좌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고려 후기의 불화나 보살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영락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밖에 모란, 작약, 나리를 비롯해 연꽃, 부들, 벗풀 등이 그려진 '수덕사 대웅전 벽화 모사도'도 전시한다. 모사도에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시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맨드라미(鷄冠花)도 그려져 있다. 불전(佛殿)에 올리는 공양화를 그린 벽화로 고려의 원예전통과 고려인이 사랑한 꽃까지 만나볼 수 있다. 모사도 중 일부는 전시 기간 중에 교체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괘불전은 조선시대 불교미술의 압도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고려 공예의 아름다움까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찾아온 수덕사의 두 성보문화재와 함께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괘불전 개최 중에는 불교회화실의 괘불 미디어아트는 상영하지 않는다.

불교학계, 봄맞이 학술행사 '다채'

불교학연구회 5월 21일
'요가와 명상' 춘계대회
백련사 4월30일 세미나
반야불교문화연구원 등
인문 강좌 개최 잇달아

불교학계가 봄을 맞아 다양한 주제의 학술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임승택)는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와 공동으로 5월 21일 오전 10시 '요가와 명상: 텍스트와 그 변용'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온 · 오프라인서 개최한다.

학술대회 1부에서는 경북대 동서사상연구소 연구원들이 '텍스트와 텍스트의 변용'을 주제로 그동안 진행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된다. 김성철(금강대)은 〈구사론〉과 〈유가사지론〉 등의 주석서를, 한상희(경북대)는 빨리(Pali) 주석서를 통해 경전에 나타난 명상과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이영진 (경북대)과 차상엽(경북대)은 각각 산스크리트 사본과 티베트어 사본을 참조해 불교텍스트에 나타난 명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용 혹은 전개되었는가를 다룬다.

2부에서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학자 8명의 발표를 '요가와 명상'과 '자유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요가와 명상' 세션에서 조준호(동국대)는 고대인도 전적들의 조사를 통해 사띠와 사마타 위빠사나의 기원을 탐구하며, 여암 스님(동국대)은 코로나 19를 통해 촉발된 '비대면의 일상화 시대'에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명상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진행한다.

양영순(한국외대)은 힌두 탄트리즘과 불교 탄트리즘, 자이나교와 초기불교 등의 문헌에 나타난 '죽음을 선취(先取)하는 요가와 명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다룬다.

'자유주제' 세션은 동아시아 불교 관련 연구들이 소개된다. 정운 스님(중앙승가대)은 〈법화경〉에 나타난 수기작불(授記作佛)의 경우 어떻게 정립 · 전승됐는지를 살피며, 박정원 (이화여대)은 조선 초중기 유교의 지식인들에 의해 널리 읽혀졌던 〈능엄경〉의 핵심을 '계환해(戒環解)'에 비추어 재해석하고, 유불회통의 관점에서 명상을 다루는 폭넓은 관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불교학연구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요가와 명상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고전텍스트들에서 어떻게 다루고 변용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진 백련사(주지 보각)에서는 사중에 전래되고 있는 전적을 연구한 학술대회가 열린다. 강진 백련사는 4월 30일 오후 1시 30분 경내 만경루에서 제7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백련사 전래 전적 및 사상적 전개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백련사 전래의 전적 및 기록류들에 대한 연구- 〈호산록〉을 중심으로(남권희 경북대 명예교수, 권오덕 박사) △〈정명국사후집〉의 고찰과 〈정명국사집〉의 복원(서강선 부산대 교수) △〈만덕사지〉와 심미(審美)(김종진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고려 후기 백련사와 송 불교계 교류 -진정국사와 송 연경사를 중심으로(박용진 국민대 교수) △백련결사의 천태 수행론에 관한 재고찰(오지연 동국대 교수) 등의 연구논문이 발표된다.

백련사 주지 보각 스님은 "금번 학술대회에서는 백련사에 전래 · 전승돼 온 전적, 사지, 기록물, 교류사, 그리고 전통수행들에 대해서 다양한 관련 사료 및 문헌들을 분석 · 고찰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평론과 **가톨릭평론**은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종교'를 주제로 합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평론과 가톨릭평론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캐나다 리자이나대학교 오강남 교수가 기조발표를 하며 불교 관련해 곽병찬 前 한겨레신문 대기자가 발표를 진행한다. 개신교 관련해서는 정경일 새길기독사회문화원장이, 가톨릭 관련은 이미영 우리신학연구소장이 맡는다.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논단들도 잇달아 열린다. **서강대 동아연구소**는 4월 25일 오후 7시 봄학기 석학 강좌를 Zoom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첫 번째 초청 강사로는 산스크리트어 필사본 연구 전문가인 저스틴 맥대니얼 팬실베니아대학 교수가 참여한다. 저스틴 맥대니얼 교수는 불교 연구, 물질문화 및 종교 연구 관련 논문과 서평을 100편 이상 발표했고, 20여 개국에서 강연했다. 맥대니얼 교수는 태국-라오스-캄보디아 연구자들의 모임인 TLC Group의 회장직을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역임했고, 현재까지도 회원들의 연구 활동을 알리고 소통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지친 현대인들의 정서함양과 인문학 소양 고취를 위한 인문학특강 '산사에서 인문학을 본다'을 개최한다.

특강 주제는 △거짓 이야기 속의 진실 이야기-소설 '서유기'의 도술시합(강경구 동의대 교수, 5월14일) △욕망의 공간-서원과 고택(김영필 前 대구교대 연구교수, 5월21일) △장자, 삶의 치유와 자유(이성희 철학박사, 5월28일) △사는 게 고통일 때, 쇼펜하우어(박찬국 서울대 교수, 6월4일) △노래로 들어보는 한국현대사(이동순 영남대 명예교수, 6월11일) △실존철학과 현대기술문명비판(김재철 경북대 교수, 6월18일) △인도 수행전통에서의 몸의 의미(이거룡 선문대 교수, 6월25일) △도교의 양생사상과 불로장생(김윤수 성균관 부관장, 7월2일) △논어, 사람의 길을 열다(배병삼 영산대 교수, 7월9일) △고사관수도(高士觀水圖)와 물에 대한 철학적 사유(이성혜 부산대 연구교수, 7월16일)이다.

특강은 5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총 10강)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며 강의 장소는 통도사 반야암이다. 수강료는 10만원이다. 신성민 · 하성미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2

▶ **63회 예고**
아쇼까가 왕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한 칼라따까는 옛 카시국 부왕에 임명된다. 아쇼까는 칼라따까를 위해 환송연을 베푼다. 수시마 편에 섰던 왕자들이 환송연에 참석했다가 친위대 군사들에게 살해당한다. 아쇼까의 공포정치는 계속된다.



아쇼까, 마우리아국 왕이 되다

수시마 부왕비가 피신한 곳은 강가강 하류의 달리뜨(불가촉천민)들이 사는 천민촌이었다. 달리뜨들은 외성 밖에서 거주하는 천민들이었다. 달리뜨들은 염소 등을 도살하거나, 성민들의 빨래와 이발을 해주거나, 강가강에서 물고기를 잡아 겨우 연명했다. 그들은 대부분 강가 동굴이나 엉성한 움막에서 살았다.

수시마 부왕비는 아들 니그로다를 안고 하염없이 흐느꼈다. 하루아침에 강가강이 내려다보이는 별궁에서 시궁창 악취가 풍겨오는 움막으로 이유도 모른 채 옮겨왔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다. 움막 주인 도비왈라는 친위대 군사들의 빨래를 대물림으로 해왔던 천민이었고 불교 신자였다. 석양이 기울 무렵에 또 다시 찾아온 친위대장은 도비왈라를 믿고 말했다.

"부왕비님을 잘 모셔야 하네. 부왕비님과 니그로다 왕세자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은 비밀이어야 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네."

"오갈 데 없는 친척이 와서 산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군. 부왕비님께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는가?"

"예. 우리 마을을 자주 찾는 마하바루나 아라한님이 계십니다."

달리뜨 마을에서는 수행승 중에서도 덕이 높은 사문을 아라한이라고 불렀다. 마하바루나는 성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로 천민촌을 돌아다니며 설법을 하는 사문이었다.

"잘 됐네. 장차 니그로다 왕세자님의 스승이 될 수도 있겠네."

친위대장은 안심이 되자, 곧 도비왈라 움막을 나갔다. 그러더니 잠시 후 다시 돌아와 도비왈라를 찾았다.

"대장님, 제게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부왕비님을 뵙고 가야겠네."

"예, 모시고 오겠습니다."

도비왈라 움막 마당은 제법 넓었다. 빨랫줄에 빨래들이 가득했고, 땅바닥에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수시마 부왕비가 든 움막은 도비왈라의 띳집 뒤에 있어 오가는 행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수시마 부왕비가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나왔다. 그러자 도비왈라가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 주었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의 퉁퉁 부은 눈을 바로 보지 못하고 말했다.

"부왕비님,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니그로다 왕세자님을 위해서도 낙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대장님은 괜찮습니까?"

"세상이 바뀌어 저도 제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언제까지 있어야 하나요?"

"도비왈라 움막은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왕비님께서 여기에 계신 줄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특히 도비왈라는 부왕비님을 충직하게 잘 모실 것입니다.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대장님, 자주 오세요. 저는 무섭고 외로워요."

"저는 이곳에 다시는 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왕궁을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왕궁에 안 계시니 제가 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아, 그런가요?"

"이제 니그로다 왕세자님만이 마우리아왕국의 희망입니다. 그러니 잘 키우셔야 합니다."

수시마 부왕비가 또 눈물을 흘렸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가 측은해서 차마 그 자리에 더 있지 못했다. 도비왈라를 부르지 않고 바로 말을 탔다. 친위대장이 말에 올라타고 달리자 흙먼지가 일어났다. 땅바닥에 널어놓은 빨래들이 흙먼지를 뒤집어썼다.

열흘 후.

빠딸리뿌뜨라 왕궁에서 한밤중인데도 종소리가 댕그랑댕그랑 울려 퍼졌다. 북소리도 밤새 둥둥둥 쉬지 않고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다. 전쟁이 발발했거나 나라의 중대한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종소리와 북소리였다. 칼라따까는 직감했다.

'아, 대왕님께서 운명하셨구나!'

라다굽따도 마찬가지였다. 몇 년 동안 지병을 앓으시더니 이제야 다른 세상으로 가셨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내성 문과 외성 문들이 수문장의 지시로 열렸다. 라다굽따는 안개 낀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안개 속에 흐릿한 그림자들이 보였다. 벌써 성 안팎의 사람들이 왕궁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관복을 입고 왕궁으로 달리듯 걸었다. 장례의 예를 갖추기 위해 말을 타지 않았다.

친위대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친위대 조장이 바삐 움직였다. 친위대 조장의 지시로 군사들이 왕궁 안의 침전을 몇 겹으로 에워싼 채 비상경계를 섰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친위대 조장의 안내를 받아 바로 빈두사라왕의 침실로 갔다. 미리 와 있던 아쇼까가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아주 편안하게 가셨소."

아쇼까의 표정은 침통했지만 말투는 담담했다. 왕궁 정전에 있다가 우두머리 궁중의원의 연락을 받고 가장 먼저 침전으로 달려와 빈두사라왕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아쇼까였다. 임종을 지켰다는 것은 상징성이 컸다. 유언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빈두사라왕의 마지막 왕명이었다. 칼라따까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왕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는지요?"

"마우리아왕국 백성들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소."

칼라따까는 아쉬웠다. '백성들을 부탁한다'는 왕명은 애매했다. 왕위를 물려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석하고 있을 만큼 여유로운 시간은 아니었다. 당장에 장례를 어떻게 치를지, 조문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정해야 했다. 칼라따까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명쾌하게 내놓았다.



"짠드라굽따 선왕님의 예를 따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습니다."

"수상께서 장례위원회를 소집해서 처리하시오. 조문 순서는 왕실부터 받고 장례는 닷새 동안 치르시오."

짠드라굽따 대왕의 장례는 그의 유언에 따라 길게 끌지 않고 닷새 만에 서둘러 끝냈다. 자이나교 수행자의 경우처럼 단순하고 소박했다. 실제로 짠드라굽따 대왕이 왕위를 아들 빈두사라에게 물려주고 자이나교에 귀의하여 극심한 가뭄으로 굶어죽은 백성을 위해 자신도 단식하다가 죽었던 것이다. 빈두사라왕이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전단향나무를 쌓아놓고 아버지 짠드라굽따의 시신을 불태웠는데 석양이 지는 동안 타다만 뼈와 재를 강에 뿌렸던바, 아쇼까도 선왕의 선례를 떠올리면서 칼라따까와 라다굽따에게 명했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의 장례를 진두지휘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었다. 빈두사라왕의 장례기간에 호칭도 부왕에서 왕으로 바뀌었다. 아쇼까가 집무를 보는 정궁에서 칼라따까가 먼저 나서서 충성을 서약했다.

"왕이시여, 저희들은 절대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고맙소, 나는 그대들을 믿고 선왕께서 못다 이룬 꿈을 이룰 것이오."

"왕이시여, 마우리아왕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라다굽따의 말에 아쇼까가 마우리아왕국의 비원을 말했다.

"나는 잠부띠바를 통일할 것이오. 선왕께서 이루지 못한 깔링가국부터 정복할 것이오."

아쇼까는 전쟁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다. 선왕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해결하고 싶다는 아쇼까의 욕망이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깔링가국은 짠드라굽따도, 빈두사라도 정복하지 못한 작은 소국이었다. 강력한 코끼리부대를 보유하고 있는 군사강국인데다 해상무역으로 부자가 많아 왕국의 재정도 늘 넉넉했다. 또한 대부분 사람들이 불교를 신봉하여 남녀차별이나 신분계급의식이 희박해 나라의 분위기가 다른 소국들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다.

라다굽따는 아쇼까가 왕정을 펴는 데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왕권이 확고하게 다져지지 않았는데 정복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이었다. 수시마 부왕을 지지했던 왕자들이 아직도 수십 명이나 왕궁에 살고 있었고, 여전히 군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친위대장인 것이었다. 아쇼까가 친위대장을 찾았다.

"대장은 어디 있소?"

"오늘 새벽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장이 보이지 않다니 이상하오."

"친위대 조장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왕이시여, 소신이 친위대 조장을 불러 오겠습니다."

칼라따까가 친위대 조장을 부르러 간 사이에 라다굽따가 말했다.

"왕이시여, 지금은 장례기간일뿐더러 수시마 부왕님 편의 사람들이 저희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왕권을 반석처럼 다져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당장에 정복전쟁을 치르자는 말은 아니었소. 어떻게 왕궁을 함부로 비울 수 있겠소. 수시마 형님을 옹립하려던 왕자들이 있는데."

친위대 조장이 들어오자, 아쇼까는 즉시 그를 친위대장으로 임명했다.

"대장이 세운 공을 수상에게서 다 들었소. 대장은 마우리아왕국을 위해 활약한 공이 크오."

"왕이시여, 소장은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과분한 칭찬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오. 대장은 지금 이 순간부터 나를 호위하시오."

"왕이시여,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석양빛이 내성 안을 뒷걸음치듯 물러갈 때였다. 새벽부터 보이지 않던 친위대장의 시신이 내성 끝 숲속에서 발견되었다. 순찰을 돌던 군사가 발견하여 경비대장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는 곧 칼라따까 수상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칼라따까는 친위대장의 자살 소식을 빈두사라왕 시신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라다굽따를 찾아가 알렸다.

"제관님, 대장이 목을 매어 죽었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자살한 것 같소."

친위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은 금세 성 안에 퍼졌다. 다음번에 죽게 될 사람은 어느 왕자일 것이라는 둥 흉흉한 소문까지 떠돌았다. 소문은 정확했다. 빈두사라왕의 화장이 끝난 날 수시마를 적극 옹립하려고 했던 왕자 다섯 명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군사가 나선 전광석화 같은 작전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빠딸리뿌뜨라 성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아니라 공포의 살기가 감돌았다.

마침내 아쇼까왕은 대왕만이 쓸 수 있는 보석으로 장식한 화려한 모자를 썼다. 아쇼까왕은 옆구리에 동생 비가따쇼까가 선물한 단검을 차고 정궁으로 나아갔다. 대신들이 정궁에 모이자, 아쇼까는 새로운 수상 임명식을 가졌다.

"라다굽따 제관을 수상으로 임명하오!"

예상과 달리 성품이 온화한 라다굽따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순간 비범한 책략가 칼라따까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그러나 아쇼까왕은 칼라따까를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나를 위해 헌신했던 칼라따까 수상을 누구나 한 번 가기를 원하는 옛 까시국 부왕으로 임명하오!"

외침의 염려가 전혀 없는 데다 강가강이 활처럼 휘감아 흐르고, 색색의 비단과 진기한 교역물이 넘쳐나는 옛 까시국 부왕으로 칼라따까를 지명했다. 칼라따까의 남은 여생을 편히 보장하겠다는 배려였다.〈계속〉



김진무의 중국불교의 고승들 ⑧ 축도생(竺道生)



▶ 한줄 요약
도생은 인도로부터 전래한 불교의 본의를 잃지 않고 가장 중국식으로 해석하여 불교의 중국화를 이룬 선구자로 불린다.

중국불교의 불성론과 돈오론 출발점

구마라집(鳩摩羅什)과 승조(僧肇)에 의하여 중국 반야학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한다면, 본격적인 중국불교의 불성론(佛性論)과 돈오론(頓悟論)은 바로 도생(道生, 약 372~434)에 의하여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불교학계에서는 도생을 인도로부터 전래한 불교를 그 본의를 잃지 않고 가장 중국식으로 해석하여 불교의 중국화를 이룬 선구자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한 인정은 바로 도생이 제시한 불성론과 그로부터 발현된 돈오성불론(頓悟成佛論)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도생의 '돈오론'은 이후 대부분의 종파에서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나아가서 중국불교의 귀숙(歸宿)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선(祖師禪)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선리(禪理)로 주장되고 있다.



도생은 '돈오론'을 제창해 최초의 돈점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사진은 한국 선방의 참선수행모습.

〈고승전〉과 〈출삼장기집〉에 실린 도생의 전기에 따르면, 어려서 축법태(竺法汰)를 만나 출가하여 스승의 성을 따랐기 때문에 흔히 '축도생'으로 칭하며, 15세에 이미 강좌(講座)에 올랐고, 20세에 불교계에 유명한 명사가 되었다. 동진 융안(隆安)년간(397~401)에 여산(廬山) 혜원(慧遠)의 문하에 들어가 약 7년간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 등의 아비담을 배웠고, 그 후 구마라집이 장안(長安)에서 역경과 강의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혜원의 문도인 혜관(慧觀) 등과 함께 가서 '중관반야학'을 수학하였는데, 관중(關中)의 승려들이 모두 '신오(神悟)'라고 칭했다고 하며, 이후 구마라집 문하의 중요한 제자가 되었다.

도생은 이 시기에 중관학설을 깊이 깨닫고는 "경전이 동쪽으로 전해졌지만, 역경(譯經)하는 사람들이 거듭 막음에 많은 사람들이 글에 걸리고 막혀 원만한 뜻을 보는 사람이 적었다. 고기를 얻고 통발을 잊음에 비로소 더불어 도(道)를 말하리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격의(格義)적 방법을 비판하는 것으로, 경전을 번역하는 이들의 잘못으로 오히려 참다운 불법의 이해를 막았다는 질책이다. 이 구마라집 문하에 수학하던 시기에 '돈오의(頓悟義)'를 세웠다고 한다.

동진 의희(義熙) 3년(407), 도생은 다시 강남으로 돌아가면서 승조의 〈반야무지론〉을 여산 문하에 전하고, 건강(建康, 지금의 南京)의 청원사(靑園寺, 후에 龍光寺로 改名함)에 머물렀는데, 당시 불교사에 유명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6권 본 〈니원경(泥洹經)〉이 의희 14년(418) 건강에서 번역되는데, 이 경전에 '일체중생(一切衆生), 개유불성(皆有佛性)'의 사상이 들어있지만 '일천제(一闡提)'는 성불(成佛)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도생은 이 경전의 이치를 자세히 분석하여 미세한 부분까지 통찰하고 말하기를, "아! 일천제도 모두 성불할 수 있구나."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글에 걸리고 막힌" 많은 구학(舊學)들이 모두 도생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그에 따라 호구산(虎丘山)에 유배되었는데, 〈불조통기〉 권26에는 호구산에서 암석들에게 〈열반경〉을 강의하면서 일천제가 성불할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뭇 암석들이 머리를 끄덕였다고 한다. 이후 원가(元嘉) 7년(430) 다시 여산으로 들어갔고, 얼마 되지 않아 량(涼)에서 〈대반열반경〉이 번역되어 남방에도 전해졌는데, 일천제도 성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도생의 탁견이 찬양 받게 되었다. 그 후에 〈열반경〉을 중심으로 한 '불성론'과 '돈오성불론'을 강의하였고, 송(宋) 원가(元嘉) 11년(434) 겨울 11월 경자일(庚子日)에 강설을 마치면서 정좌하여 그대로 입적하였다.

인도서 전래한 불교 중국화 기여
축법태 만나 출가스승의 性 따라
당시의 격의적 역경 비판 질책해
〈열반경〉중심의 '불성론'을 강의
송(宋) 원가 11년(434) 정좌 입적
'돈오론' 제창해 최초의 '돈점논쟁'
혜원 · 구마라집 문하 모두 수학

도생이 입적한 이후 보림(寶林), 법보(法寶), 도유(道猷), 도자(道慈), 승근(僧瑾), 법애(法瑗), 승종(僧宗), 법랑(法朗) 등의 뛰어난 열반사(涅槃師)들이 도생의 종지를 받들었다. 또한 도생이 돈오론을 제시하자 점오(漸悟)의 입장에 있는 수많은 이들이 반박하면서 역사상 최초의 '돈점논쟁'이 발생하였는데, 유송(劉宋) 문제(文帝)의 재위기간(424~453)에 황제에 의하여 돈오와 점오 사이에 그 승부를 가리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돈오론이 승리하게 되어 마침내 논쟁이 종식되었다.

도생의 저술들은 상당히 풍부하지만 대부분 유실되었다. 유실된 저술로는 유명한 〈돈오성불의(頓悟成佛義)〉를 비롯하여 〈니원경의소(泥洹經義疏)〉, 〈소품경의소(小品經義疏)〉, 〈이제론(二諦論)〉, 〈불성당유론(佛性當有論)〉, 〈법신무색론(法身無色論)〉, 〈불무정토론(佛無淨土論)〉 〈응유연론(應有緣論)〉 등 제목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외에 제목조차 확인할 수 없는 많은 저술들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것은 〈법화경소(法華經疏)〉와 승조의 〈주유마힐경〉에 도생의 주석이 기재되어 있으며, 보량(寶亮) 등의 〈대반열반경집해(大般涅槃經集解)〉에 약간의 단문들이 인용되고 있고, 또한 '불성의(佛性義)'의 문답 가운데 다만 〈답왕위군서(答王軍書)〉(〈廣弘明集〉 卷18 所收)가 있을 뿐이다.

도생은 후대에 '열반성(涅槃聖)'으로 추대될 정도로 '열반불성론'에 커다란 역할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적은 바로 인류문화사상사 가운데 그랑프리로 선정되어야만할 '돈오론'을 제창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그에 따라 도생이 제창한 돈오론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도생은 당시 남방불교의 대표자인 여산 혜원과 북방불교의 대표자인 구마라집의 문하에서 모두 수학하는 행운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혜원이 제창한 법성론(法性論)과 구마라집의 실상론(實相論)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사상적 차별이 존재한다. 혜원은 윤회의 주체아(主體我) 탐구를 통하여 불멸하는 '신(神)'을 도출해내고, 그로부터 '법성론'을 제창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실체(實體)'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구마라집의 실상무상(實相無相)의 '실상론'에서는 이러한 '실체'적 관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가장 궁극적인 개념에서의 충돌은 도생으로 하여금 심각한 갈등에 직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어려서부터 아비담(阿毘曇)의 학설과 7년 동안 혜원 문하에서 현학(玄學)과 결합된 '법성론'을 수학한 도생은 그 충격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생은 바로 '실체'와 '실상'의 간극에 대하여 '리(理)'라는 개념으로 지양(止揚)하였다고 추론된다. 더욱이 남방불교의 특색이 바로 '의리불학(義理佛學)'으로 칭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존하는 도생의 저술에서는 '리'가 핵심적인 개념으로서 운용되고 있는데, 이는 구마라집이나 승조와는 확연이 구별되는 점이다. 도생은 불(佛)을 "리를 깨달은 체[悟理之體]"로 규정하고, 〈법화경소〉에서 "'리'에 따르는 까닭에 불과(佛果)를 이루고, '리'는 부처의 원인[佛因]이 된다."고 논하고 있다.

이와 같이 '리'를 통해 '불'을 규정하고, "이미 '리'를 관하여 성(性)을 얻었다면, 바로 속박이 다하여 열반(涅槃)이 감응(感應)할 것이다. 만약 반드시 열반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취하려 한다면, 곧 다시 열반에 속박될 것이다. 만약 번뇌를 끊지 않고 열반에 들려는 자는 곧 열반과 번뇌를 다르게 보지 않는 것이니, 바로 속박이 없는 것이다."고 하여 '열반'도 '리'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진리(眞理)는 스스로 그러하여[自然] 깨달으면 그윽이 부합(符合)한다. 진리는 차등이 없으니, 깨달음에 어찌 변화[易]를 용납할 것인가? 변화가 없는 체(體)는 담담히 항상 비추지만, 다만 어리석음을 따라 근본에 어긋남으로 깨달음이 내게 있지 아니할 뿐이다. 진실로 능히 이르러 구한다면, 바로 미혹을 되돌려 극(極)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여기에서 '리'의 성격을 '변화가 없는 체[不易之體]'로서 '담담히 항상 비춤[湛然常照]'이라고 하고, 이 본체적인 '리'를 참답게 구한다면 능히 '반미귀극(反迷歸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돈오(頓悟)'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제공한다고 하겠으며, 바로 '리'를 '지존(至尊)'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하겠다.

혜달(慧達)의 〈조론소(肇論疏)〉에서 '돈오'에 대하여 "'돈(頓)'이라 하는 것은, '리'를 나눌 수 없음[理不可分]을 밝힌 것이고, '오(悟)'는 지극히 비춤[極照]을 말한다. 불이(不二)의 깨달음으로 나눌 수 없는 '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리'와 지(智)가 함께 희석됨을 '돈오'라고 한다."고 도생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돈오'의 가장 대표적인 설명이다. 부연하자면, '리'는 객관적 이법(理法)을 의미하고, '지'는 우리 존재의 주체를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나'(能)와 '남'(所)이 함께 희석되어, 즉 불이(不二)의 상태가 되어 불역지체(不易之體)로서 담연상조(湛然常照)하는 불가분(不可分)의 '이극(理極)'에 도달하여 극조(極照)하는 것이 바로 '돈오'라고 하겠으며, 이를 '열반'이라고 한다. 이러한 '돈오성불론'은 당연히 일반적인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살십지의 경지에 올라 금강심(金剛心)을 체득했을 때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고, 그 이전에는 철저히 언진(言津,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 바로 도생이 제창한 돈오성불론의 내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돈오론'에 입각한다면, 기존의 교의(敎義)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보다도 배움이나 수행의 쌓임으로는 결코 '돈오'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배움이나 수행은 반드시 먼저 자신의 의지[能]가 발현되어야 하고, 또한 그에 상응한 대상[所]이 현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돈오와는 어그러져버리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돈오에서는 차제(次第)나 수행의 계위(階位)는 인정되지 못한다. 그에 따라 당시 불교계에서 최초로 돈점논쟁(頓漸論爭)이 발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돈오론이 승리하게 되었고, 후대에 모든 종파들에서 최고의 교의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조사선에서는 '돈오'를 극도로 중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생이 이룬 또 다른 업적은 바로 중국사상계에 '리'를 지존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후대 불교학에 미친 영향도 상당하지만, 송명(宋明) 시기에 발생한 이학(理學)은 바로 도생의 '리' 개념을 원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니, 이로부터도 도생의 뛰어남을 논할 수 있다고 하겠다.

〈前 동국대 불교문화원 부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설악 신흥사부터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 염불전문 시설
디지털앰프 다루기 1초! 특징 : 고장없음, 전제품 국산 확인
수준급을 자랑하는 법당시설들과 현장 비교시 놀라운 차이속에 현재 귀 법당 시설비의 1/3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2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완벽시설, 가격 198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장기할부가능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NK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방문시 8천만원 하는 마이크 있음을 스마트폰 확인해 드림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가격 ₩ 40만원 (출장 설치비 20만원 별도)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
가격 ₩ 60만원 (출장 설치비 포함)

김선희 교수의 변상도 바로 읽기 ⑧ 변상도의 중국화



▶ 한줄 요약
당나라 전기 〈열반도〉는 수나라 시기 〈열반도〉와는 차이가 있다. 서역 전래 방식은 사라지고 중국 연환화 풍으로 완전히 조성됐다. 도상적으로도 원시열반경이 아닌 대승열반경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9세기 이후에는 〈열반도〉는 잘 조성되지 않는데, 죽음 이야기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도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붓다 열반도상, 중국식 회화로 그려지다

앞에서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 즉, 북주(557~581)시대 열반도와 수(581~618)대의 열반도의 면면을 통해서 서역미술 양식이 중국전통 회화양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과거의 불상이나 불화를 감상하는 것은 예술 조형의 미감뿐만 아니라 그 조형을 통해서 그것과 당시 사회사상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문화발전의 맥락을 살피는데 도움을 얻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철학은 지식을 재료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의 정감을 재료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시각예술'은 그 바탕이 철학 관념의 미적 감정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드러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상이나 불화를 통해서 그 제작자의 신앙심과 조형 이념을 살필 수 있으며, 그 출현의 문화적 배경이나 철학 · 사상 그리고 그 변화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의의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불교미술을 어떻게 이해하고 감상해야 할 것인가?

불교미술의 감상은 대략 주관적으로 유미적(唯美的), 서정적(抒情的) 감상과 객관적인, 고증적(考證的) 감상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유미 · 주관적 감상은 불교미술품을 서정시(抒情詩)를 쓰는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화나 불상을 대하게 되면 마음속으로부터 모종의 감정이 용솟음친다. 그 감정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는 없으나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심(佛心)'이다. 정말로 사람들의 개성은 아주 복잡하다. 사람들의 처지와 인과관계는 서로 다르며 우리가 대하는 불상에 대한 감정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러므로 심미적 입장에서 불교미술을 논의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불교미술의 미는 시대, 지역 풍토에 따라 그 표현의 미의식이 서로 다르므로 그것을 어떤 하나의 미적 개념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 사회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사람들의 미적향수 또한 천차만별로 개인 애호의 감성 문제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우리가 불상 조형의 역사에 대해 말할 때 다 같이 고구려 불상을 논하면서도 어떤 학자는 '고졸의 미'라 단정하기도 하며, 또 다른 학자는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석굴암 불상의 장엄함과 엄숙미를 찬탄하기도 하며 조선시대 투박한 미륵불상에 매료되는 이도 있다.

이런 감상에 대해 말하자면 이런 주관적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불상 감상의 목적에 도달했다고 만족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인 감동은 왕왕 불상이 객관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의의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더욱이 관광지 사찰의 고불이나 박물관에 전시된 불상을 대할 때에는 안치된 환경으로 인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 고유의 사상이나 교의를 소홀히 하게 되고 다만 달콤한 옛 정서에만 도취하게 된다.



그림①. 돈황 막고굴 제158굴 〈열반경변상도〉의 보살과 제자 부분도. 중당(中唐)시기에 조성됐다.



그림②. 돈황 막고굴 제158굴 〈왕자거애도〉로 남벽 부분에 그려져 있다. 중당(中唐)시기 조성됐다.

예를 들자면 '불상의 미소'만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왕왕 사람들로 하여금 불상의 신비스런 상징미로 여기게 하며 범접할 수 없는 성스러움을 찬탄한다. 혹자는 불상의 미소와 모나리자의 미소를 비견하기도 한다. 또 이를 '명상 중 순수한 자비심 표현의 미소' 혹은 '해탈 순간의 그윽한 미소'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다.

이와 같은 감상의 방법을 '낭만적'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다른 한 방법으로는 '고증적' 감상법이 있는데, 이를 미술 '양식론' 연구라고도 한다. 이 감상법은 근거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제작연대 및 원래의 설치 장소 등을 밝히는 것이다. 미술사학 대부분이 이 연구방법을 따르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과거의 미술품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거리감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 때 우리는 거기서 불교미술은 불교의 상징물, 불교의 형상임을 우선해서 인식해야 한다. 역대 미묘한 조형의 변화과정 중에는 불교사상의 변화가 묻어있다. 그러므로 서양미술 조형개념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서양미술 역시 종교적 내용이거나 인간생활을 표현한 것이겠지만 불교미술은 다만 형상의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종교미술에서 최고로 중요시하는 것은 신앙심이다. 그러므로 형상의 변천 과정 중에는 사상의 변화가 숨겨져 있으며, 사상의 변화 과정에는 시대인의 생활과 바람이 담겨져 있다.

중국으로 '대승열반경' 전파되며
돈황 석굴 '열반도' 조성에 영향
唐代전기 中연환화 방식 그려져
9세기 이후 '열반도' 제작 축소돼
죽음 대한 대중 기피 영향 받아

그래서 헤겔(G. Hegel, 1770~1831)은 인류가 창조한 문화를 '정신의 객관화'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역사는 절대적으로 정신의 지배를 받으며 그 '정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형상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문화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당대의 불교미술은 당대의 정신을 객관화한 산물이다. 돈황의 당대 불교미술은 당대 사람들의 생명의 표현이다. 우리는 여기서 미술창조의 문화정신, 불화의 표현형식, 미술발전의 역사과정 등등의 문제를 탐구하고 이해하여 미술문화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지난 회자의 연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당대 전기의 〈열반도〉는 수대의 〈열반도〉에 기초해 서역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면모로 변화했는데, 중국의 연환화 형식을 따르며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큰 〈열반도〉로 발전하였다. 그 중 막고굴 최대의 '열반굴'이라 불리는 제158굴 〈열반도〉는 중앙에 열반상을 중심으로 좌우로 과거불인 연등불과, 미래불인 미륵불이 배치되어 있다. 즉 과거 · 현재 · 미래를 상징하는 삼세불상이 안치된 셈이다.

이 〈열반도〉는 간다라 열반도상이 중앙아시아를 거치면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키질석굴에는 〈열반도〉가 약 50여 개로 알려져 있다. 가령, 간다라에서는 불탑이나 봉헌탑을 장엄하는데 불전도가 사용됐다면, 키질석굴에서는 석굴 안을 열반에 관한 삽화로 장엄하거나 '사리 설화도'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간다라의 열반도상은 원시열반경과 관계되지만, 키질석굴의 경우 부분적으로 원시열반경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대승열반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가는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돈황석굴에서 열반도가 크게 유행하게 된 원인은 이 시기에 간행된 〈대승열반경〉의 유포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막고굴 제158굴 〈열반도〉를 보면 적정열반(寂靜涅槃)에 든 붓다를 중앙에 배치하고 곁에는 통곡하는 10대 제자와 보살 · 나한 등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배치형식은 간다라에서도 나타나났으며 돈황에서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이다. 붓다는 2단으로 된 베개 위에 오른손으로 머리를 받치고 있으며, 왼손은 가지런하게 몸에 대고 있다. 가사는 인도식 통견이며, 붓다의 표정은 적멸에 든 상태이다.

장도에서 돌아온 가섭존자는 사라쌍수 아래 붓다의 관을 보고는 두 팔을 치켜들고 몸을 앞으로 숙여 곧 쓰러질 듯 한 자세로 아주 애통해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통곡하는 가섭존자의 표현은 〈대반열반경후분(大般涅槃經後分)〉에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은 이미 키질석굴에서 많이 나타난다. 열반한 붓다의 발에 예배하는 가섭존자의 눈은 깊이 들어가고 코가 우뚝한 인도 승려로 묘사됐다. 가섭의 좌우로 두 비구가 그를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다. 가섭 앞에는 또 한 명의 비구가 그려져 있는데, 그를 가리지 않도록 손을 아래로 뻗고 있다. 그리고 가섭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입은 크게 벌리고, 혀도 약간 내밀고 있다. 가섭의 오른쪽 아래에는 아난존자가 웅크리고 앉아 한 손으로 귀를 가리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고 있다. 몇몇 제자들도 고통스러운 모습이다.(그림①)

화면 상부에 다섯 명의 보살을 나란히 그려놓았는데, 숙연하고 사색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침통고 애잔한 모습과는 대비되고 있다.

중당 시기에 제작된 제158굴 벽면에는 〈왕자거애도(王子擧哀圖)〉가 그려져 있다(그림②). 화면의 맨 앞에는 토번인이 애도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토번(吐蕃, 티베트족)이 돈황을 지배하는 동안 막고굴 벽화 구성의 특징 중 하나로 이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

화면 앞줄에 몇 사람의 동작을 살펴보면, 화면 중간의 한 사람은 칼로 귀를 베고 있으며 그 옆 사람은 칼로 가슴을 찌르고 있다, 어떤 이는 칼로 코를 베고 있으며 맨 앞 사람은 큰 검으로 가슴을 찌르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 중앙아시아 민족의 특이한 애도 관습으로 화면에서 이를 현실감 있게 잘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상해를 입히는 애도 행동은 바미얀 〈열반도〉에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티베트 점령기의 막고굴에서 돈황을 점령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민족, 특히 한족을 거느리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대에 그렇게 많이 그려지던 큰 폭의 변상도는 귀의군시기(歸義軍時期 848~1036)에 이르러 그 세력이 약화 되었는데, 유독 〈열반경변상도〉가 갑자기 중단됐다. 그 원인은 아마도 '열반'의 의미가 아무리 신비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임으로 사람들의 선호도가 엷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동국대 연구교수(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④ 썩는 것이 아름답다



▶한줄 요약
생산-소비-분해로 이어지는 자연계의 사이클은 곧 순환의 삶이다. 하지만 원전 폐기물과 플라스틱은 분해되지 않아 순환의 삶을 망친다. 경쟁하지 않으며 작게 천천히 살아가는 삶이 곧 생태적인 삶이다.

순환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Rot is Beautiful!

우주는 성주괴공(成住壞空)을 윤회하고, 마음은 생주이멸(生住離滅)을, 인간은 생로병사(生老病死)를 윤회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렇게 자연은 돌고 도는 순환을 특징으로 한다. 식물들은 땅의 수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태양빛과 바람과 비를 먹고 자라 영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들이다. 이것을 먹는 초식동물은 '1차 소비자' 라고 한다. 그리고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2차 소비자' 라고 한다. 이 동물들이 죽으면 곰팡이나 박테리아, 세균, 곤충 등이 이들 유기물을 분해한다고 하여 이들을 '분해자' 라고 한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무기물을 양분으로 해서 생산자인 식물이 자라며, 이것을 다시 소비자인 동물들이 먹는다. 이렇게 자연계는 생산자-소비자-분해자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모든 동물과 식물 등 유기물들은 잘 죽어야, 잘 썩어야 자연계의 이러한 순환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넘쳐나는 비닐과 플라스틱은 일회용으로 불과 몇 분만 사용되고 버려지면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수천수만 년이 걸린다. 더욱이 플라스틱은 햇빛을 받으면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땅속에 물속이나 바다 속 미생물이나 플랑크톤의 체내로 들어간다. 그것을 잡아먹는 물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어 결국 우리 몸속에도 축적된다.

콘크리트 건물이 대개 그렇듯이 핵발전소는 수명도 30년이다. 우리 시대 30년간의 전기 소비를 위해 곳곳에서 나오는 방사능 재인 플루토늄 등은, 방사능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10만년이 걸린다. 비닐, 플라스틱, 방사능폐기물 등 썩지 않는 물질들은 자연의 순환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잘 썩는 것, 잘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자연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며 자연의 이치이다.

여기에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잘 죽어 후대들 삶의 영양분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안 죽으려는 온갖 탐욕의 몸부림이 사람이 아닌 괴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라스틱 용기들. 이들 용기들은 수천년이 지나도 썩지 않아 순환의 삶을 방해한다.

Small is Beautiful!

생태적 삶은 결국 '작게 사는 삶(Small Life)' 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소욕지족(小欲知足)의 삶이야 말로 자연친화적인 삶인 것이다. 이제껏 "큰 것이 좋은 것", "많은 것이 아름다운 것" 이라는 생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삶을 행복이며, 성공이라고 생각한 삶이 위기를 초래했다. 고립된 자신만의 이익을 중심으로 더 큰 것을 추구하는 욕망의 과정에서 수많은 욕망과 삶들이 부딪치면서 개인 · 집단 ·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전쟁이 시작돼 왔다. 사람들끼리의 갈등과 소외는 바로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간디는 "지구는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는 항상 풍요롭지만, 탐욕 앞에서는 매우 궁핍한 곳"이라고 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탐 · 진 · 치(貪瞋癡) 삼독심의 시작은 결국 탐심에서 비롯된다. 그것이 분노의 원인(瞋)이며 어리석음(癡)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친환경적 삶은 '물질적으로 청빈하게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삶이다. 청빈의 삶은 정신의 풍요로움, 마음의 넉넉함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마음공부, 수행과 기도의 삶속에서 항상 자신을 살피며 욕망에 기초한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을 돌아보고 내려놓는 수행을 일상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힘이 바로 생태적 삶의 기본 동력이 되는 것이다.

자연계선 순환의 삶이 기본 원칙
플라스틱 · 원전폐기물 순환 방해
작게, 천천히 사는 삶이 '생태적'
불자라면 지구 위한 삶 살아가야

Slow is Beautiful!

생태적 삶은 또한 '천천히 사는 삶(Slow Life)' 을 사는 것이다. 욕망의 삶은 더 많이 갖기 위한 경쟁을 끊임없이 유발한다. 남보다 먼저 쟁취하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의 문화가 '빨리 더 빨리' 문화를 만든다. 이렇게 속도사회는 오로지 목표에만 집착하는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과정은 불필요한 것이며 없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오로지 산의 정상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등산은 괴로운 과정이 된다.

케이블카를 놓아 오로지 정상만을 정복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직선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여 수직적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한다. 목적과 목표만 생각하는 속도사회에서는 과정은 생략되고 관계는 파탄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다. 오로지 정점으로 향한 질주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친환경적 삶은 천천히 밥 먹고, 천천히 걸으면서, 지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웃음을 교환하며, 들에 핀 꽃들을 허리 조아려 살펴보고, 스쳐지나는 경치와 건물과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관계하고 천천히 대화하며 사는 것이다. 신호등이 꺼질까봐 허겁지겁 건너지 않고 천천히 여유롭게 사는 과정에서 자연과 주변사람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가 제안하는 '신호등 명상' 이 있다. 바쁜 하루 중에 그대로 멈춰서는 시간은 바로 길을 건너는 신호등 앞에서일 것이다. 그래서 파란 신호등이 10초 이하일 경우 건너려는 서두르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순간 자신의 들숨과 날숨의 호흡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며 자신의 감각을 살피는 것이다. 이는 천천히 사는 연습하는 공부가 된다.

Together is Beautiful!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는 진화론을 주장한 찰스 다윈의 "생존경쟁, 약육강식, 적자생존"등 자연선택설을 사회에 왜곡 적용해 사회진화론을 주장했다. 그래서 사회도 그와 같이 경쟁과 약육강식의 논리와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었고 근대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주류 논리가 되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오늘날 첨단 생태학으로 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크로포트킨 등의 학자는 자연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며 협력하는 종이 자연계 진화과정에서 오래 살아남는 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연기적 가르침과 인드라망의 세계관이 바로 이러한 연관과 협력의 깨달음인 것이다.

경쟁주의는 죽음의 원리이다. 경쟁은 상대보다 앞서기 위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싸움이 생기며 관계가 파탄난다. 사람과 자연을 경쟁하고 싸워 이기고 승리해야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상대가 죽어야(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죽고 죽이는 그 시스템 내에서도 자신 또한 그 죽임을 피할 수 없다. 자연을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생각해 '정글의 법칙' 이라는 말까지 하지만, 실제의 정글의 동물은 배고프지 않으면 다른 짐승을 죽이지 않는다.

오직 인간만이 필요가 없는데도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나라사람이라는 이유로 참혹하게 죽이며, 저축하고 비죽하고 쌓아놓으려고 한다. 자연은 궁극적으로 상호의존과 협력이라는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생태사회는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의 사회이다. 돈에 의존하는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성숙의 사회이다. 돈벌이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사람들과의 협력과 돌봄, 배려와 상호도움을 통해 사는 사회이다.

Share is Beautiful!

그래서 생태적 삶은 '나누는 삶(Share Life)' 을 사는 것이다. 생태계가 서로 의존하고 상부상조하는 삶을 살 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 생태계의 순환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의 삶은 수많은 자연과 생명의 '은혜' 로 그 '덕분' 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은혜를 갚는 '보은의 삶' , '타인에게 잘 쓰이는 삶' , '배워서 남주는' 삶이어야 한다. 보살의 삶인 것이다.

내가 쓰는 물건, 먹는 음식 모두 수많은 사람과 생명들 '덕분에' 얻게 된 것이다. 내가 먹는 채소와 곡식들은 풀벌레, 새소리, 바람소리, 물, 햇살, 구름 등이 만들어낸 거대한 예술품이다. 낱알 한 알에 우주가 들어있는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또한 나도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의 죽음과 희생 덕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 또한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한다.

결국 내 것이 없는 무소유의 이치를 깨달아 나의 삶을 타인과 뭇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아가 '그들을 위한다' 는 생각마저도 사라진 공유의 삶을 사는 것이다.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온전히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 자신이 버는 돈과 시간의 일부분이라도 타인과 나누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환경 사회단체에 후원도 하고 자신의 경험, 지식, 능력까지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다. 최근 책이나 장난감, 옷, 차량, 집, 사무실 등을 공유하는 '공유문화, 공유사회' 라는 말, 또는 '커먼즈(Commons)' 와 '커머닝(Commoning)' 이란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모두 서로 나누며 살려는 삶의 사례들이다. 생태적 사회는 결국 이러한 방향으로의 삶이다.

생명 · 영혼 · 지구 구하는 삶

이러한 삶의 실천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SOL, Save Our Life)' 이며 우리의 정신을 살리는 일(SOS, Save Our Soul)이자 '지구를 살리는 일(STE, Save the Earth)' 이다. 작은 삶, 협력하는 삶, 나누고 베푸는 삶은 처음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깨달음은 자신의 의식적 각성에서 시작되어 결국 사회적 깨달음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다시 자기 자신의 깨달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베이징의 나비가 날개 짓을 하면 뉴욕에 태풍이 분다' 는 카오스 이론처럼 작은 실천은 커다란 변화의 씨앗이 된다. 역사 속에 격동의 변화도 처음에는 작은 행위에서 시작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삶은 타인을 위한 삶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에게 더 큰 행복을 만든다는 점이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이다. 지구를 생각하는 삶을 사는 불자가 되도록 하자.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금니불화의 탁월한 장엄성!
면발광 LED인등





면발광LED인등
발명특허 제10-2350047호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威拂園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문화재 수리기능자 8826호 양학모 양희곤 父子 합장
수미단 닫집 영단 인등 경탁 위패 기타 법당장엄일체

KBS 과학카페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몸, 意生身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⑮ 의생신(意生身)

"세존이시여, 또 마치 번뇌의 연(緣)과 유루업(有漏業)의 인(因)으로 삼계(三界)를 내는 것처럼 무명주지의 연과 무루업(無漏業)의 인으로 아라한 · 벽지불 · 대력(大力) 보살들의 세 가지 의생신(意生身)을 내는 것이니, 이 세 가지 지위와 저 세 가지 의생신이 나는 것과 그리고 무루업이 나는 것이 모두 무명주지를 의지하는 것이므로 연이 있는 것이고, 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의생신과 무루업(無漏業)이 모두 무명주지를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유애주지(有愛住地) 등 네 가지 주지는 무명주지로 업이 같지 않나이다. 무명주지를 여의는 것은 네 가지 주지를 여의는 것과는 달라서 부처님 지위에서 끊는 것이며, 부처님의 보리(菩提) 지혜로 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라한 · 벽지불은 네 가지 주지는 끊었으나 무루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재한 힘을 얻지 못하고, 증득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무루를 끊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은 곧 무명주지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의생신(意生身)' 이란 범어 마노마야(manomaya)를 번역한 말로 부모가 낳은 육신이 아닌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몸을 말한다. 의성신(意成身)이라고도 한다. 오온(五蘊)에 의해 구성되는 몸이 아닌 의온(意蘊)에 의해서 구성되는 몸이다. 이 의생신은 불보살의 경우와 범부 중생의 경우가 다르다. 중생의 의생신은 잠자다 꿈속에 나타나는 몸처럼 정혈(精血)의 연을 빌리지 않는다는 뜻에서 의생신이라 하지만 업력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사람이 죽은 다음, 다음 생의 몸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기간 곧 영가로 있는 상태도 의생신으로 본다. 그러나 불보살의 경우는 중생을 교화 제도하기 위한 원력으로 의생신을 나타낸다고 한다. 특히 부처님의 경우는 여의불(如意佛), 혹은 수락불(隨樂佛)이라 한다.

불교의 일반적인 교설로 볼 때 삼계라는 세계가 무명에 의한 중생의 업에서 생기고 다시 무명의 힘에 의해 미계의 의생신이 생긴다고 한다. 물론 이 무명이 끊어진 부처의 지위에서도 의생신은 중생의 의생신과는 다른 차원에서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생신이 생기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고 한다.

첫째, 초지(初地) 이상의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뜻대로 몸을 변화시켜 나타날 때. 둘째, 사람이 죽어 다음 생을 받을 때까지의 중유(中有)의 기간에 잠정적으로 있는 몸. 셋째, 삼계(三界)의 괴로움을 벗어난 성자가 성불할 때까지 지니는 몸이다. 〈능가경〉에는 부처님이 대혜보살에게 의생신에 대하여 말해주는 대목이 있다. "대혜여! 의생신(意生身)이란 비유하건대 생각이 움직임에 신속하고 걸림이 없는 것과 같아 의생신이라 이름하느니라. 대혜여! 비유컨대 심의(心意)는 한량없는 백천유순(由旬,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밖에서도 생각으로 먼저 갖가지 여러 사물을 보고 염념상속(念念相續)하여 속히 그곳에 이르나니, 산하석벽(山河石壁)이 아무런 장애를 하지 못하느니라. 의생신이 이와 같아 여환삼매(如幻三昧未)의 힘으로 신통이 자재하여 여러 곳을 내왕하나니, 생각이 본래 중생의 원을 성취하여 주는 까닭이니라." 이는 보살의 경계에서 생기는 의생신을 말한 것이다. 〈화엄경〉, 〈법화경〉 등 대승경전에서 설해지는 불 · 보살의 활동이 대부분 의생신이다. 부처님의 화신도 결국 의생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번뇌가 머무는 곳을 다섯 가지로 구분, 견일처주지는 사계의 견혹(見惑)을 말하고, 애욕주지는 욕계의 사혹(思惑)이다. 색애주지는 색계의 사혹이며, 유애주지(有愛住地)는 무색계의 사혹이다. 견혹의 지적인 번뇌를 말하고 사혹은 수혹(修惑)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정적인 번뇌다.

〈승만경〉에서는 아라한, 벽지불 등은 유애주지의 번뇌까지 끊어도 마지막 다섯 번째 무명주지는 부처님만이 끊는다 하여 무명주지의 끊기 어려움을 거듭 말하고 있다.

번뇌를 유루(有漏), 무루(無漏)로 구분하는 것은 누(漏)는 객관대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육근(六根)에서 허물이 새어 나온다는 뜻으로 성문, 벽지불의 경계에서는 번뇌가 증상하지 않는 것을 무루라 하고 대승에서는 번뇌와 함께 있지 않다는 뜻으로 무루라 한다.

〈반야불교연구원장〉

해탈 · 열반 위해 반드시 염불수행을…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㊳ 관세음보살 염불수행 올바른 수행법 1

불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관세음보살님의 신앙수행법 중에서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자들이라면 누구나가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을 하고 계시지만 이 염불수행을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지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염불수행을 하는 방법과 염불수행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며, 염불수행에 따른 증과(證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불교의 관세음보살 염불수행은 대승불교시대에 어떻게 발전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에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칭명염불수행을 주로 하였습니다. 칭명염불(稱名念佛)이란 '관세음보살님의 공덕을 되풀이하여 생각하기 위해'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단절 없이 입으로 부르며 염하는 수행법입니다. 칭명을 통한 염불수행은 고통 속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자대비를 실천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구세력과 본원력을 믿으며, 보살이 갖추신 지혜와 대자대비심에 바탕을 둔 보리심을 기억하여 잊지 않기 위해 끝없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칭념하는 것입니다.

염불수행은 초기불교 당시부터 그 중요성에 대해 초기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일아함경〉에서는 불교수행 가운데 염불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기를, '마땅히 한 법(一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善)이 널리 이르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위처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하여 사문과(沙門果)를 얻어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염불이다."

경에서의 말씀과 같이 모든 비구들은 이 염불하는 수행을 인연하여 무위처에 이르고, 신통을 얻어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공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탈 · 열반을 증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염불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염불수행은 불교의 수행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임을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초기불교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불교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염불수행은 불교의 모든 수행법 가운데 참선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수행법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염불수행은 수많은 수행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수습(修習)하고 있는 수행법이므로 매우 중요한 불교의 수행법인 것입니다.

특히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수행의 증과(證果)가 매우 수승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께서 갖추신 지혜와 대자비의 구세력을 믿고 의지하며 공덕을 기억하며, 아울러 수행자 스스로도 관세음보살을 닮아 완성하려는 각오로 염불수행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수행자 스스로의 의식을 변화시켜서 무명업식(無明業識)의 작용을 끊고 마음의 본성으로 되돌아가 진여본성과 상응(相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음보살의 염불수행은 해탈 · 열반은 물론 불교의 궁극적 목표인 지혜를 얻어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수행법인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⑮ 사자후에 대한 큰 경 ①

"물 퍼내지 말고 그릇을 깨라"

"세존이시여, 릿차비족의 아들 쑤낙캇따는 가르침과 계율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베쌀리 시의 대중에게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에게는 인간을 뛰어넘는 원리가 없고, 고귀한 님이 갖추어야 할, 지극히 탁월한 앎과 봄이 없다. 수행자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가르침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른 가르침에 따라 수행한다' 는 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수행을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바라고 수행한다면 그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만약 가르침의 언어에 대한 해석과 이해가 바르다면 그는 몸과 마음의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수행을 삼지 않을 것이다.

고귀한 님은 무엇일까? '고귀하다' 는 언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 뭇 삶은 정신적으로 높고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 것을 고귀하다고 단정 짓겠지만, 수행자는 몸과 마음이 겪는 일을 '내가 겪었다, 내가 겪지 않았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고귀하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물질에 대한 바른 앎이 도래하면 거칠든 미세하든 물질이 가지는 고귀함을 고귀함이라 이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귀한 님은 정신과 물질을 떠나 정신과 물질을 여읜, 있는 그대로의 봄이다.

고귀한 님은 이것을 버리고 저것을 선택하지도 않고,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선택하지도 않는다.

어떤 학인이 운문선사에게 여쭈었다.

"이 학인이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아니하였을 때, 도리어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문선사가 대답하기를 "수미산이니라"고 했다.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다 하였는데, 왜 운문선사는 거대한 산인 수미산을 빌어 최고의 허물이라고 일갈하는가. 수행을 지어가다 보면 진정 버려야 할 것은 버리지 않고 버려도 그만 버리지 않아도 그만인 것만 속이듯 버리고 담기를 반복하는 오류를 겪게 된다. 이를테면 그릇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만약 물을 영원히 없애야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릇에 담긴 물을 계속 퍼내야 할까? 아니면 물을 담은 그릇을 깨뜨려야 할까? 길게 망설일 필요 없이 그릇을 깨뜨리고 나면 당장 물을 퍼내는 수고로움이 없을 것인데, 차일피일 담긴 물을 퍼내고 있으니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일을 수행 삼아서 지치지도 않고 이어간다. 물질은 그 그릇을 '나' 라고 여기며 물을 퍼내듯 행위를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그치지 않는다. 물질에 대한 올바른 앎과 봄은 그 그릇을 나라고 지칭할 수 없다.

가르침을 떠난 쑤낙캇따는 물질에 대한 올바른 봄을 긍정할 수 없기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스승이 나라는 이 그릇을 부수는 것을 기꺼이 모른 체 하는 제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아마 백이면 백, 모조리 부수려 할 때는 흔적도 없이 도망간다. 그릇은 부수지 않고, 좋은 가르침만 담아주기를 바란다. 그 그릇을 깨는 일이 가장 큰 가르침인데도 말이다. 그러니 어떻게 가르침을 전달할 수 있겠는가. 그릇이 부서지고 나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이룬다. 아무것도 배울 것 없이 고귀한 님이다.

한 바 없이 가르침 따라 그릇을 부수고 나니,
그 전에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 한낱 지푸라기 집이었네
탐진치 한 마음에 불타버리는 것도 모르고,
대궐 같은 집인 줄 알던 마음, 참으로 부끄러워라

〈(사)여시아문 선원장〉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84호 | 17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계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합장 010-3586-6091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합

010-5412-8040 법광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작법무 연수원

천수바라부터 작법 및 염불, 사물 행사에 부족함이 없도록 세밀히 지도합니다.

010-2635-9386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 · 천도재 · 점안의식대행

(바라, 작법무, 화청, 살풀이, 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종 각
일주문 삼성각

원명 010-4300-9104

청주 봉은사
비구니 기도스님
모십니다.

010-5883-2255

아미타불, 약사여래불,
특수불 각 한분씩
(높이105cm, 좌대30cm)
모셔갈분 찾습니다.

010-5353-3936

경상도 고향인 30대 후반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주소 : 함안군 군북면 밀립사
주지 : 지웅 합장(76세)

010-6893-5040

부전(기도)스님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0-8620-4303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가피와 맞춤기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기도스님 구함
(태고종스님도가능)
행자 구함
염불잘하는 처사님 구함
부산 만덕사

010-3840-4355

사찰(포교원)안내
공양주, 부전으로
일할분, 쓸 분, 포교원 할 분
(서울에 적소 명당)
비구니 기도스님 모심
남 · 여 결혼할 분 모심
서울 명동 결혼상담

010-5381-1419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부전스님
처사님
모십니다.
통도사 산내 암자

010-5499-1211

주지스님 모십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역사깊은 중창주 스님이 주지자리를 물려줄 상좌가 없음.
단, 조계종 소속의 30대~50대 건당할 비구스님을 찾고있습니다.
연락바랍니다.
경북 예천 소백산 내원암

010-6353-1180, 054-653-1180

불자가 운영하는 '아라리냠냠'

강원도 정선에서 생산한 곤드레부각, 곰취부각, 깨잎부각, 고추부각과 도라지, 곰취, 현미, 17곡, 강황누룽지칩 오란다등 다양하게 수제로 만듭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습니다.
큰스님, 불자님 꼭 한번주문해주세요(1봉지5천원)
문의전화 : 010-8844-8245 청정행



구입 문의 | 02-732-1520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84호 | 18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대지 : 2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매가 : 40억5천

◎ 위치 : 부산시포교원
◎ 입지좋은근린상가
◎ 건평 : 약100평
◎ 주차,공원,아파트
◎ 매가 : 12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 경남 양산 위치 사찰
- 부지 총면적 : 718㎡(217평)
- 건물 총면적 : 224.82㎡(68평)
- 가액 : 7억8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

010-5421-153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 공기 맑고 아늑한 절
-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 가액 : 1억5천(조정 조금 가능)
- 가전제품 보시합니다.
- 당일법회 가능합니다.
- 현재 운영중입니다.
-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찰부지 및 토굴터

- 위치 : 경남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924번지, 925번지)
- 면적 : 800평(국유림內 소재), 생산관리 지역
- 특징 : 정남향, 주변 소나무 및 암반, 포장 완료, 버스 진입가능, 물1급수, 주변 민가없음,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억

010-8516-33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서포면
- 부지 : 대지,전,답 1,800여평
- 바닷가 부근
- 대웅전, 주지실, 큰방
- 가액 : 13억

010-9178-6397

3층 상가주택 안내

- 위치 : 김천시 부곡동
- 대지 약 98평
- 1층 : 상가3칸 세나옴
- 2층 : 주택 전세3천
- 3층 : 학원하던곳, 포교당자리
- 가액3억에서 3천만원 빼드림

010-4999-56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찰(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3평, 시설금 7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 시설완비(에어컨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판넬, 도배, 장판, 음향)
- 5년전 인수금액보다 5백만 절상

보문산 지장사 무진

010-3049-58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 통도사에서 15분, 양산IC에서 15분
- 총평수 : 588평, 법당 단독 기와집 주방 방3개 46평, 양지, 영축산을 등지고 천성산을 바라봄, 산신각 전통목조 6평, 콘크리트조 9평, 지하수(청옥 암반수), 시수도 연결되었음, 농사용 전기, 저온창고
- 융자 3억, 평당 2백30만

010-5309-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가곡리 344~43번지
- 대지 : 500평
- 법당 : 30평
- 요사채 : 20평
- 가액 : 6억

010-3640-3128

사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010-7710-8334

절 터 안 내

- 위치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금동리 (지하철1호선 소요산역 25분거리)
- 면적 : 전 450평, 도로접
- 건평 : 23평
- 가액 : 2억5천만원
- 잣나무숲, 정남향
- 주인직접

010-5069-7054

사 찰 안 내

- 위치 : 김해 한림면 사찰
- 2층건물 70평, 법당, 친견실, 산신당, 용왕당, 칠성당, 샤워실, 공양간및 주방
- 권리금 협의가능
- 전세금 500만원
- 월세금 45만원

010-3945-8859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시 집현
- 대지 : 30평, 대웅전 7평, 용왕, 산신有, 방3개, 스님방 큰방에 에어컨2대, 냉장고2대
- 비구니 환영, 보살도 가능함 (몸만오세요)
- 주지스님 건강문제로 매매함
- 가액 : 7천5백만원(절충가능)

010-9800-7575

아름다운 사찰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 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 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언제든 양도가능, 경남 의령군 소재
- 가액 : 협의(은행융자 5천만원)

010-2607-71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동대문구 왕산로
- 건평 : 60평
- 법당, 방3개, 공양간
- 건강문제로 인해 양도함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 임대료 월 8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절충가능)

010-3714-1018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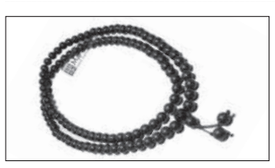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⑧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

장엄한 붉은빛이 던지는 각성의 메시지

전남 구례 화엄사 홈페이지에 "'화엄, 천년의 공간 향기에 취하다' 제2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개회식이 봉행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이 떴다. 사진으로만 봐도 고혹적인 색감에 무아가 되는 순간을 직면하고 싶어 길을 나섰다.

이른 새벽 행신에서 출발하는 첫 기차를 타고 구례구역에 내려 버스로 또 버스로 이동해 화엄사 입구에 내렸다.

데크길을 천천히 걸어가는데, 2차선 도로를 감싸고 있는 일주문인 듯 아닌 듯한 '지리산 대화엄사' 현판이 나온다. 곧바로 갈 길이 아직 남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니 골이 깊은 지리산의 웅장한 계곡물 소리와 하늘 높이 솟은 나무들에서 새순이 돋아나는 산속 봄에 취해가고 순간 최종의 알현 대상인 홍매화가 흐릿하게 잊힌다.

그때 '화엄사 각황전과 중소 이야기' 안내판이 눈에 잡힌다. 노파는 송구한 표정으로 살아나기 힘든 깊은 물에 뛰어들고, 이를 본 화주승 계파선사는 화들짝 당황스러워하는데, 그 옆에 적힌 전설이 발길을 재촉한다. 시주할 그 무엇이 없어 "이 몸이 죽어 다시 태어나서라도 불사를 하리라"면서 찰나의 생을 마감한 뒤, 숙종의 공주로 태어나 장육전을 중건할 수 있었고, 임금을 깨우치게 했기에 각황(覺皇)이라는 편액까지 받게 되었다는 그 현장을 빨리 보고 싶어서다.

걷는 자보다 쌩쌩 차량 행렬이 즐비한 길을 조금 더 걸으니 다리를 건너게 되고, 바로 거기가 화엄사 시작이다. 평일인데도 주차장에서 쏟아지는 사람들이 여느 일주문과 달리 담장으로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문까지 갖추어진 불이문의 공간을 오고간다.

권중서 포교사에 의하면, 화엄사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승군 주둔 사찰이 되었기에, 문을 두어 관리들의 수탈과 외적의 침입을 막을 때는 닫고, 중생의 아픈 마음을 달랠 때는 활짝 열어 놓았다고 한다. 이는 벽암 각성 스님의 지범개차 정신의 반영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알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화엄사는 백제 성왕 22년(544)에 인도 스님이신 연기조사께서 창건했고, 신라 말기 헌강왕(875) 때 도선국사가 동오층석탑과 서오층석탑 조성과 더불어 화엄사 중흥조가 되시면서 화엄사가 대총림으로 승격되었다.

조선 세종 6년(1426)에 선종대본산으로 승격된 화엄사는 임진왜란 때 모든 전각이 전소되는 아픔을 겪었고, 인조와 숙종 시기에 중건을 거쳐 지금의 도량으로 거듭나 넉넉한 지리산처럼 힘들고 지친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



전남 구례 화엄사 홍매화

전남대 건축학과 천득염 교수에 의하면 "대부분의 평지 사찰들은 기하학적으로 정형화된 장방형의 대지를 조성하고 축선이 있으며 축선 상에 주요 건물들을 하나하나 배치하는데, 화엄사는 산지 사찰이기 때문에 지형에 순응하다 보니까 축대를 만들고 축대에 대지를 두고 대지 위에 건물을 두게 됨으로써 적절하게 약간 지그재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이란다. 그래서 홍매화와 마주하려면 경사진 길을 걸어야 한다.

일주문을 통과해 '불견, 불문, 불언' 동자승을 지나 금강문, 천왕문을 거쳐 보제루 옆을 걸어야 경내에 들어서는데, 주불전인 각황전과 대웅전을 만나기까지 계속 올라야 한다.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홍매화에 취하려면 각황전 앞 가파른 계단을 또 올라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등을 스치듯 지나야 한다.

드디어 각황전 추녀와 원통전 사이에서 계파선사가 심었다는 고령의 홍매화를 바라본다. 검붉은 피처럼 뜨거운 에너지를 내뿜는 꽃잎을 보니 숨이 턱턱 막힌다.

뒤로 물러서서 5m 정도 되는 것 같은 전체 모습을 보니 4.8m의 장육전 부처님이 각성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우아하게 피어 있는 듯해 숙연해진다.

국가표준식물목록에 홍매화를 치면 검색이 안 된다. 매화가 지고 나서 맺는 열매인 매실을 치면 23가지의 매실나무가 나오는데, 홍매화를 가리키는 매실나무는 '매실나무 베니 치도리' (Prunus mume Beni-Chidori)'이다. 베니 치도리(紅 千鳥)는 일본말로 '붉은 천 마리의 새' 정도가 되는데, 기본이 되는 매실나무 학명은 프루누스 무메(Prunus mume)이다. 프루누스는 자두를 뜻하는 라틴어이고, 무메는 매실의 일본 이름인 우메(梅)이다.

이렇게 되면 매화가 일본이 원산지 같은데, 중국 사천성이 원산지이고, 최초 기록은 시경에 나온다. 우리나라도 삼국사기에 매화가 등장하고, 홍매는 고려 사람 이승휴의 상유내상시(上兪內相詩)에 "박복한 여인 하루가 일 년 같은데/홍매 모두 졌건만 그 사람 소식 없네(薄命閨中日似年/紅梅落盡沒人傳)"라는 시가 전해진다.

나는 아니 우리는 왜 장엄한 붉은빛에 매료되는 걸까? 〈빨강의 문화사〉를 보면, "빨강은 야누스의 얼굴을 한 색이며, 빨강이 에너지가 풍부한 까닭은 검정과 하양 모두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일까? 단청 없는 각황전의 자연미에 동 트는 새벽이든 한낮의 따사로운 햇빛이든 빨간 석양이 질 무렵이든 화엄사 홍매화의 붉음은 더 빛나는 것 같고, 모순의 삶에서 바르게 깨어나라는 각성의 강렬한 광선 같다. 그래서 봄이 되면 생각나는 걸까?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⑧ 정호승의 〈마음 없는 내 마음〉

길 너머 마음 너머 꿈꾸기

마음 없는 내 마음 / 정호승

마음속에 마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 마음 어디로 갔나
마음 없는 내 마음에 비가 오네
봄비가 오네
오늘도 마음은 봄비를 맞으며
내가 찾아가기도 전에
또 나를 찾아왔구나
오늘도 마음은 봄비 속으로
내가 떠나가기도 전에
또 나를 떠나갔구나
단 한 번 사랑함으로써 평생을 사랑하는
경주 정혜사지 천년 석탑처럼
마음 없는 내 마음
비를 맞고 서 있네

(정호승 시집, 〈당신을 찾아서〉, 창비, 2020)

정호승 시인은 '자각' (自覺)의 시인이다. 웬만한 '각자(覺者)' 보다 도(道)가 더 높다. 인간미와 친근감도 넘친다. 그것은 정호승 시인의 도가 특별한 도가 아니라 '보통사람' 의 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시에서 '도(깨달음)' 는 ('설명' 과 함께)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도는 결국 설교로 이어지고, 설교는 결국 가르침으로 이어지며, 가르침은 결국 강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잘난 이 사바에서 '설교' 당하고 살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산다. 그러나 이것이 꼭 지탄할 일만은 아니다. 그런 착각-자각이라도 없다면 무슨 재미-동력으로 이 지난한 삶을 살아 내겠는가.)

문제는 내로라하는 많은 시인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스스로 다 깨달은 양, 시를 통해 (남을, 독자들을) 가르치려 들고 있다. 그 순간, 시는 시로서의(문학으로서의, 예술로서의) 모든 의미와 지위를 상실하고 만다. 선승들의 '오도송(悟道頌)' 만 봐도 알 수 있다. 높은 선승(禪僧)일수록 깨달음을 그냥 깨달음으로 단순히 노래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도의 비유와 인식(해석)으로 그것을 사물(동식물, 자연) 속에 내장(內藏)한다. 훌륭한 선시일수록 높은 문학성과 예술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호승 시인의 시편들은 대개 그 선상에 있다. 많은 독자들이 정호승 시인의 시를 애송하는 것도 그런 연유다. 예술적으로 재탄생한 그의 자각들은 설교가 아니라 공감이고, 깨달음이 아니라 발견이고, 관념이 아니라 현실인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자각' 이 사랑 받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그것이 정제된 사랑과 비극으로서의, 외로움과 눈물로서의 삶을 실존 그대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늘한 삶의 인식과 분석 속에도 인간적 따스함이 있고, 시적 자아의 반동적 발화(發話) 속에도 사람들의 추운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단정하고 정제된 사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호승 시인 하면 선암사가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반대로 선암사 하면 정호승 시인이 먼저 떠오르는 까닭은 또 무슨 이유일까. 바로 그의 〈선암사〉 때문이다.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에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 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풀잎들이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아주고/ 새들이 가슴 속으로 날아와 종소리를 울린다/ 눈물이 나면 걸어서라도 선암사로 가라/ 선암사 해우소 앞/ 등굽은 소나무에 기대어 통곡하라"

1999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정호승 시인의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다.

2000년대 초, 이 시를 읽고 나는 진짜로 새마을호 기차를 타고 선암사에 갔다.(당시만 해도 새마을호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기차였다)

당시 무엇이 필자를 그렇게 이끌었는지는 모르겠다. IMF 뒤끝으로 인한 삶의 고단함과 무거움 때문이었던 것도 같고,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아서인 것도 같고, 세상의 무거운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 같아서인 것도 같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 것도 같고, 도덕적 죄책감에 시달려서인 것도 같고, 앞길이 막막하고 희망이 없어서인 것도 같고, 갈 길을 잃어서인 것도 같다.

그렇게 선암사에 도착한 필자는 실제로 해우소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도 보고, 쭈그리고 앉아서 판자 틈새로 등 굽은 소나무를 찾아보기도 하고, 손수건을 꺼내 코를 풀어보기도 했다.(그 인연으로 훗날 나는 정말 선암사 사람이 됐다. 선암사 문중으로 출가했다는 뜻이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정호승 시인이 〈선암사〉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것을 알 것 같다. 정호승 시인은 그 질곡의 시대 그래도 희망은 있다고, 걸어서라도 선암사 뒤깐에 가서 '온갖 근심을 풀고[解憂]' 오라고, 그러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일러준 것이다.

정호승 시인의 '마음 없는 내 마음' 을 만난 지는 얼마 안 된다. 그러나 만난 그 순간 나는 바로 정혜사지 천년 석탑이 되었다. 그것은 '단 한 번 사랑함으로써 평생을 사랑하는' 부처님의 사랑법(마음법)이었던 것이다.

오늘 나는 다시 봄비 속에 섰다. 그리하여 길 너머 마음 너머를 꿈꾸고 있다. 그 꿈을 위해, 평생의 사랑을 위해 부석사를 그리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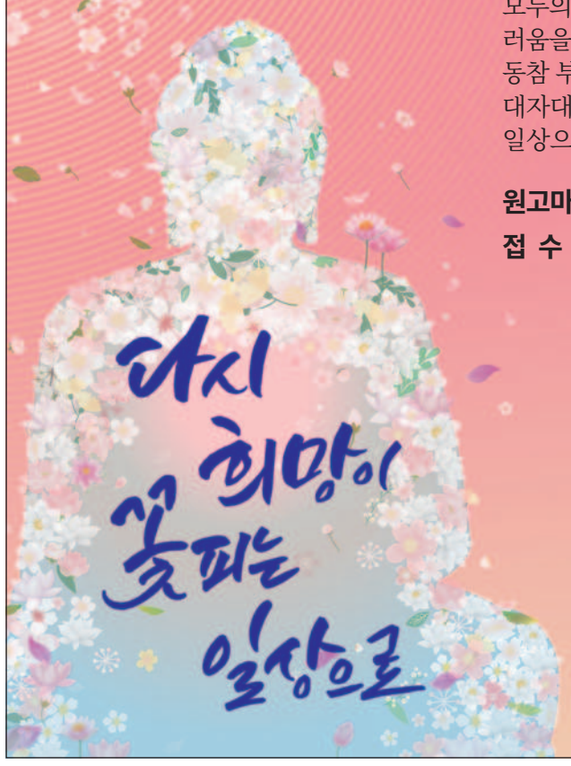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비로자나불이 손가락에 매달려 앉아 있겠느냐/ 기다리다가 죽어버려라/ 오죽하면 아미타불이 모가지를 베어서 베개로 삼겠느냐/ 새벽이 지나도록/ 마지(摩旨)를 올리는 쇠종 소리는 울리지 않는데/ 나는 부석사 당간지주 앞에 평생을 앉아/ 그대에게 밥 한 그릇 올리지 못하고/ 눈물 속에 절 하나 지었다 부수네/ 하늘 나는 돌 위에 절 하나 짓네" -(정호승의 '그리운 부석사' 전문)

그래, 사랑은 연습이 아니다. 불교는 연습이 아니다. 실천이고 실제다. 그 실천을 위해, 실제를 위해 오늘도 나는 길 없는 길 위에서 마음 없는 마음을 찾고 있다.

참, 정호승 시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하지만 그의 많은 시편들이 불교에 신세지고 있다. 승려인 필자보다도 더 많이 불교를 잘 알고, 잘 훔쳐 쓰고 있다는 뜻이다. 훌륭한 시인이다.

〈불교문학연구소장〉

불기 2566(202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축하광고 접수 받습니다



불기 2566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현대불교 신문사는 임인년 봉축특집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고 세상의 어지러움을 희망과 나눔의 등불로 가득 비출 수 있도록 자비의 동참 부탁드립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다시 희망과 꽃피는 일상으로 평화롭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원고마감 : 2022년 **4**월 **25**일(월)
접 수 처 :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전화 02)2004-8216 팩스 02)737-0698
E-mail jabi2018@naver.com

❖ 지사지국 접수처

경남지사	010-3860-7008	성낙두
부산지사	010-5640-8883	이도경
대구지사	010-2813-8008	손문철
전남지사	010-2629-1508	양행선
전북지사	010-8642-7733	조동제
영주지국	010-9373-3778	박영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정명사
• 주 지 : 명산 (속명 : 이병구)
• 주 소 : 수원시 장안구 창훈로 19번길 22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0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법하

마음책 다시 읽기 '그대는 꽃입니다' ❻ 나도 많이 아팠어요

▶ 한줄 요약
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마음 표현'이 상처 치유 지름길



나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마음에 꽃피우기 위한 따뜻한 대화의 기술 네 번째 단계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합니다.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모여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를 입었거나 염증을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순간적인 충동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들숨과 날숨의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마음의 평정을 회복하기 위해 생각이나 판단을 멈추십시오.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한 마디 말만 되풀이하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이 저를 괴롭게 하는군요. 며칠 뒤에 제 마음이 좀 진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음챙김 호흡과 걷기명상을 합니다. 정서적으로 조금 안정이 되었을 때 상대방이 한 일이나 말을 다시 되새겨 보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봅니다. 당신이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든 기여했을 수도 있고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모든 사람은 사물이나 현재의 상황을 진실하게 보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상처받았을 때 당신 마음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그들이 당신의 감정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내가 그런 것처럼 그들의 인식은 자주 흐려지고, 당신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당신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거나 매일 직장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아마도 상대방에게 당신의 상처나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냥 몰래 서서히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만 하겠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한 장소에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상대방도 편안하게 들을 겁니다.

당신의 상처에 대해 말해야 할 때가 왔다면 보다 능숙한 방법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저는 당신한테 너무 불쾌했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요. 당신은 정말 거만해요. 그걸 알고 있기나 한가요?"라고 말한다면 매우 능숙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대신에 "당신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신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어떤 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을 때 제가 정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신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요?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신을 다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왜 당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물어봅니다. 그 사람을 고소한다거나 비난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잘 듣고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유를 말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묻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매우 놀라면서 "크게 상처받으셨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어요."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표현에 미숙했을 것입니다. 화가 발생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화살 꼬챙이처럼 화를 던지고 상대방은 벽처럼 방어하는 것, 둘째는 당신이 화난 것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처럼 당신이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한다면 상대방도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것입니다.

예민하고 소극적인 사람과 마음 나누기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한 상태가 되었지만 상대방이 매우 예민하거나 인간관계에서 활발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마음나누기를 시작할 때는 상대방의 얼굴을 주의 깊고 사랑스럽게 관찰하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어두워 보인다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람은 상황 직관 떨어져
인식 한계인정, 표현 필요
관심과 참회로 되돌아봐야

겨우 일부분밖에 말하지 못했을지라도 바로 멈추고 밝은 주제로 바꾸세요. 조금 시간이 흐른 후 그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아마도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다 이해할 만큼 예민하고 지적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가출한 딸과 마음 나누기

나는 에블린이라는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십대 청소년 딸이 어느 날 집을 나가서 살겠다고 했답니다. 딸은 바로 짐을 싸서 친구 집으로 가버렸죠. 에블린은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열심히 일해 왔기 때문에 화가 엄청 난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라며 홀로 남겨진 집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후 에블린은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호흡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녀가 얼마나 딸에게 감사한지 그리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를 이야기했고 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지불식간에 딸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딸은 즉시 집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관계가 천천히 회복될 수 있었죠. 에블린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은 어머니가 더 이상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어머니와 딸은 다시 함께 살게 되었고 훨씬 더 평화로운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겸손함과 관심 그리고 진정한 참회로 어려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면 결코 다툼이나 전쟁은 없을 거예요.

불륜이 의심되는 남편과 마음 나누기

어느 날 당신이 자가용으로 퇴근하는 남편을 태워 오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깜짝 방문했다고 합시다. 남편은 보통 전철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아내가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진짜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가려 할 때 창문 너머로 그를 보았는데 그가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이야기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당신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걷기명상을 하면서 자신을 진정시킵니다. 긴장을 먼저 푸는 거죠. 당신은 분노에 휩쓸리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시간 동안, 아마도 4, 5일 동안 그렇게 수행할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그에게 말을 해야 할 때가 왔을 때 당신은 매우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당신의 컨디션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상대방이 혹시라도 당신이 듣고 싶었던 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의 말을 경청할 것입니다. 그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침내 마음에 꽃피우기의 네 번째 수행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나는 당신을 집에 태워 오려고 사무실을 깜짝 방문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 갔을 때 당신이 젊은 여자와 이야기하면서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가 대답할 것입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오, 그래요, 이모의 딸인 사촌누이죠. 지금은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남매처럼 자랐어요. 누이는 그 날 바로 이곳 공항에 도착해서 비즈니스 여행 목적을 위해 마드리드로 가는 중에 몇 시간 중간정차 시간을 보내야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만약에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하고 맑다면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공격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때때로 대화와 화해를 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공격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상대방의 좋은 씨앗에만 물을 주고, 아첨이 아닌 진정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상대방의 말이 부드러워졌고 마음이 차분해졌다고 여겨지면 '마음에 꽃피우기'의 처음 세 단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칭찬하기, 참회하기,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기입니다.

"당신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제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저의 미숙함으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것 같아요. 저는 당신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부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대화를 계속하기가 너무 불안하거나 여러 해 동안 상처가 많이 쌓여서 관계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한 번의 수행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순간에 대화를 일시 중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더 이상 잘 들을 수가 없어서 그러니 다음에 꼭 듣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이상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당신의 감정을 소화시킬 시간이 필요합니다. 진실을 찾고 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성을 하다보면 책임의 일부가 당신 자신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며칠 후 당신의 마음이 좀 평화로워졌을 때 대화를 다시 시도하세요. 기회가 된다면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겸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 : 찬콩 스님 〈사유수 펴냄〉

일일시호일

"엄마, 소리 한 번이라도"…
심장 혈관 막혀 생사 갈림길 선 아기

희망 찾아 베트남에서 온 후이티공씨 부부…4년 만에 후이뚜언 출산
심부전 등 진단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불가…병원비만 수천만원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팔만대장경도 부수고 모든걸 부수고 들어가라

… 이전의 마음이란 걸 알게 됐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천박하지 않고 고상하게 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다면 그때 아주 자유스럽게 요리를 해서 잘 맞춰서 먹을 수가 있다 이거야. 밤에 먹어도 점심이요, 낮에 먹어도 점심이요, 아침에 먹어도 점심이요, 어느 때든 먹을 때마다 점심이지 뭐, 점심 아닌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영원한 점심으로서 "그것도 이름해서 점심이지 점심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왜 남이 하는 소릴 듣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러는지, 똑바로 지름길을 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름길이라는 자체도 없습니다. 지름길이라는 그 말 자체도 붙지 않는 뎁니다. 그대로 우리가 모든 걸 놔 버리고 사는데, 그대로 놔 버릴 수가 없으니까 놔 버리라는 겁니다. 육바라밀을 선이라고 하고 육적이라는 것을 악이라 한다면 악도 선도 붙지 않는 자리라는 거는, 그 마음이 악이나 선이 나오기 이전 그 마음자리로 다시금 모든 걸 놔 버린다면, 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놔 버리는 그 자체도 이름 붙을 자리가 못 되지요. 악이다 선이다 이름 붙을 자리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 오이가 생기면 오이 맛있게 무쳐 먹고, 여여하게 말입니다. 감자가 생기면 감자해 먹고, 배추가 생기면 배추 해 먹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먹을 뿐이지 거기에 뭐가 그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도리를 알라 이 소립니다.

그래서 요것이 다르죠. 뭐가 다르냐. 고집멸도 사성제나 육바라밀이나 팔정도, 무슨 십이인연법의 문제,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이런 것이 이렇게 돼야만이, 팔정도를 해야만이 쉴 수 있느니라." 이러는데, 여기에서는 팔정도라는 이름조차도 붙을 데가 없으니, 팔정도뿐만 아니라 모든 일체 하나하나,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잠자는 거, 똥 누는 거 모든 것을 누가 하는가?

너 자체가 공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공했으니 다 공에다 그냥 몰락 놔 버려라. 밥을 먹고 빈 그릇을 또 생각하겠느냐. 밥을 먹었으면 그뿐이지. 밥 먹고 난 빈 식기를 또 잡아당기고 그걸 놓지 않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러니 그릇을 비웠으면 그릇이 빈 대로 또 빈 그릇은 돌아가면서, 연방 그 그릇에 또 밥이 담기면 또 먹고 또 비고, 연방 비우고 돌아가는데 거기 붙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붙지 않아요.


그림 · 최주현

그래서 처음에 "이 도리를 알아라." 그런 것이, 예전에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부처님이다' 이러면 지금 부처나 예전의 삼천 년 전 부처나, 부처의 마음은 오늘의 부처의 마음이나 그때의 부처의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 "음지 양지 없는 골짜기에 뿌리 없는 나무의 소식이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일착으로 들어가고, 이착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내 마음을 찾았으면, '내 마음을 발견했으면' 하는 소리죠, 그게. 발견했으면 이착으로는, 전강 스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석산에 솔이 울었으니 일월은 횡청같이 밝았다' 이거야. 그랬으니 일월이 아니라 심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도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이건 이리 바꿔도 되고 이리 바꿔도 돼.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도다." "우는구나!" 해도 되죠. 얼마나 좋은 소립니까? 내 마음을 발견했으니 두루, 그 밝은 마음이 두루 했으니!

예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젖을 일체 중생에게 그릇대로 다 흘려서 넣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벌써 '심월이 밝았으니 석산에 솔이 울었다' 하는 거는 그 두루두루 두루두루 밝혀 주는, 에너지를 넣어 주는 광경을 말하는 거죠.

세 번째 가서는 "삼세심이 공했으니 그대로, 네가 쓰는 것이 그대로 여여하지 않은가."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전자의 부처님 말씀과 지금 부처님들 말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거지새끼라도 깨쳤다 하면 그것은 예전 부처의 마음이나 지금 부처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중생들 있는 것만치 부처도 있는 것이고, 부처가 있는 것만치 중생도 있는 것이지, 어디 중생 따로 부처 따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공한 사실을 모르고, 전체가 공한 사실을 모르고, 마음조차 공한 사실을 몰라. 공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놔 버릴 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자기라 그러고 가질 줄만 알기 때문에 억겁에 처하는 그 업을 짊어지고 안고 가는, 그런 윤회에 말리는 그런 인간의 고가 놔질 새가 없이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지금 깨달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잘해라, 이렇게 잘해라' 하는 거보다는 "이렇게 공했으니까 이 공에다가 모든 것을 다 놔 버려라. 인간이라면 기본 상식을 가졌으니 벌써 일주문에 들어섰으면 우리는 전부 도반이니라. 그러니 여기에다 모든 걸, 공한 도리니 공 안에다 모든 걸 놔 버려라.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놔 버려라. 화나는 것도 놔 버리고 가난한 것도 놔 버리고, 모든 걸 놔 버린다면 스스로, 그것도 생명들이 있어서 그 놔 버린 자에게 좇아오느니라. 좇아와서 내가 스스로 무심으로서 그냥 다양하게, 여여하게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도심이요, 그것이 자유인이요, 부처인 것이지, 만약에 하나하나 그렇게 이름을 따져서 좇아다니는 사람은, 영원히 좇아다니다 볼일 못 볼 것이다." 이거야.

지금 불법 도리도 그렇게 좇아다니는데 생활인들 좇아다니지 않겠느냐 이거야. 이름을 붙잡고 좇아다니지, 사람을 보고 좇아다니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단들이지, 일거일동 좋다 나쁘다 좇아다니지. 그러니 영원토록 좇아다니다 볼일 못 보는 거지. 그러나 여기에서는 일일이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다 놔 버려라. 맛있든 맛이 없든 다 놔 버리고, 돈이 있든 없든 다 놔 버리고, 그 공 안에다 다 놔 버려라. 어차피 공한 도리고 어차피 공한 내 몸이요, 어차피 모든 물질이 다 공했고 내가 하는 것조차 마저 다 붙을 데가 없이 공해 버렸는데 그 공 안에다 놔 버리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야.

만약에 이 도리를 모른다면 한 발짝을 떼어 놓을 때마다 아마 그 업을 짊어지고 다니고 안고 갈 겁니다. 지금 무슨 경이니 무슨 경이니 해 놓고, 또 무슨 말씀 무슨 말씀 해 놓고 어떠한 누구가 설법을 하신다 할지라도 이것은 즉설로 하셔야지,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라." 이러는 거는 있을 수도 없어. 왜? 본래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래 공한 도리요, 공 안에서는 절대로 내가 나오기 이전에 이름을 짓지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 안에다 놔 버리는데 무슨 이름이 거기에 필요 있겠느냐 이거야. 고(苦)도 놔 버리고 집(集)도 놔 버리고 멸(滅)도 놔 버리고 도(道)도 놔 버리는데 뭐가 거기 붙겠느냐 이거야. 도라는 이름 자체도 놔 버리는데. 그 도라는 이름 자체도 놔 버려야 도지 도라는 이름 자체를 쥐고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야.

그러니 모든 것을 부수고 들어가야 돼. 팔만대장경도 부수고 들어가야 되는 법이, 용납되지 않는 법이 바로 이런 법입니다. 팔만대장경도 이름해서 팔만대장경입니다. 하도 요술을 잘 부리니까 요술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요술을 그렇게 부렸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대로 따라서 가다 보니깐 팔만대장경이 된 거지, 팔만대장경이 애당초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조차도 붙을 자리가 못 된다 이 소립니다.

"그럼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이러지도 마세요, 또.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하면 그것이 또 붙습니다. "한마디도 할 게 없네요." 할 것도 없고 "그럼 과정을 거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요."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내가 배고프면 그냥 밥 먹고 또 소화가 됐으면 똥 누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모든 것을 여여하게 그대로 무심으로, 그대로 살라 이겁니다. 자기가 무심으로 사는데,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계신 자리가 바로 여래의 집이니, 그 집에서 사는데 '이런 게 이런 게 들

☞ 22면으로 계속

인등생산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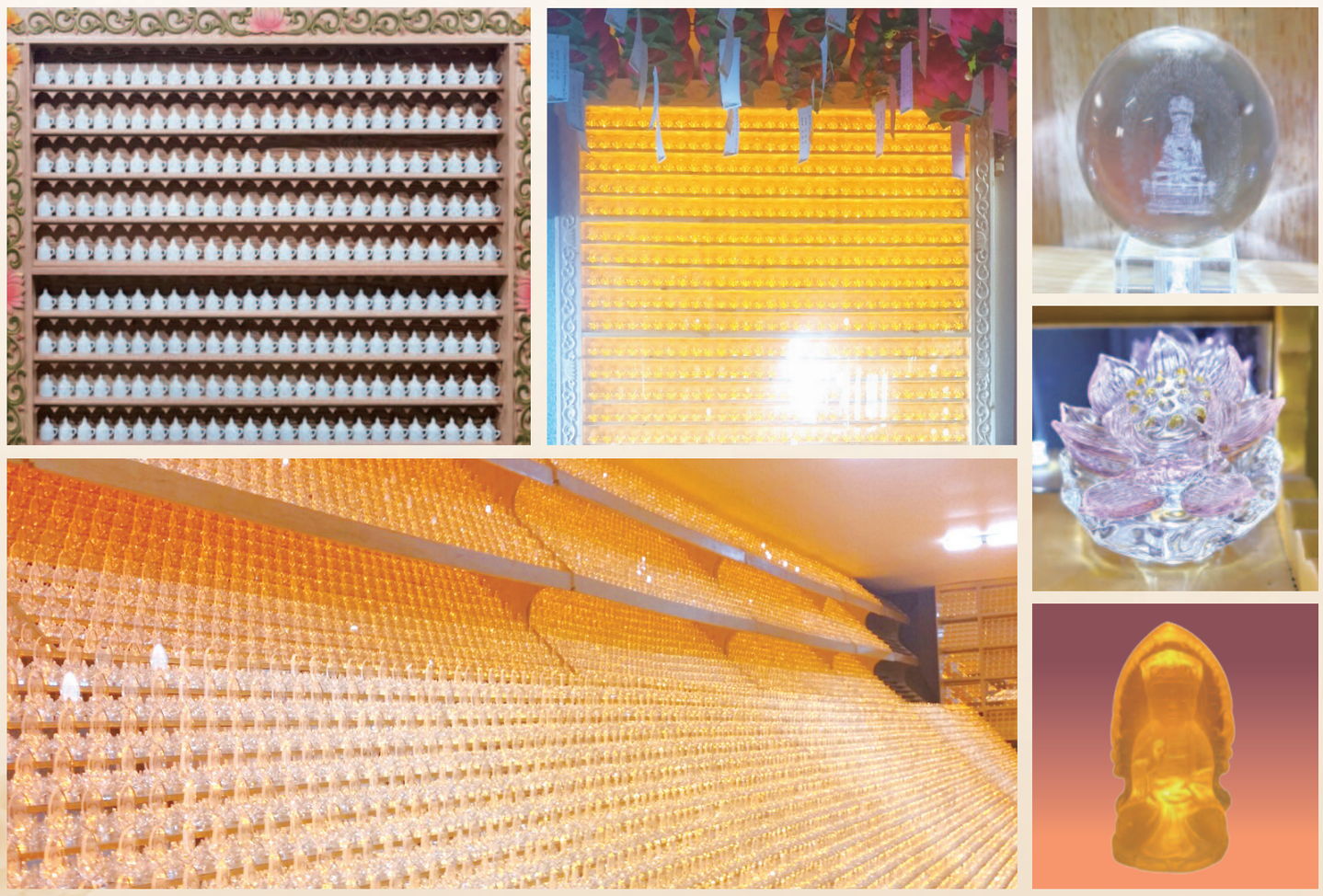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모든게 공 안의 도리이니 그냥 몰락 공 안에다 놔버려라

☞ 21면에서 계속

더라' 그러면 남도 '이런 게 이런 게 들더라' 하는 걸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무심으로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러니까, 남도 바로 나니까 무심으로 시주를 하게 되고 무심으로 갖다 놓게 되고 그런다면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자기 한테로 가는 건데, 어째서 자기 쓰기 위해서 쓴 거를 남 쓰게 해 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으로써 그대로 자기 쓰는 것이 돌아오는 거라. 절에 갖다가 시주하는 것도 남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살림 하는 데 쓰는 거나 마찬가지라. 남에게 줬다고 생각하면 준 것만 치밖엔 안 가. 그러나 무심으로 줬을 때는 무심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무주상으로 간다 이겁니다. 내가 '요만큼 줬는데….' 하면,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그까짓 것 가 봤던들 새 발의 피지.' 그러나 무심으로 줬을 때는 무주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자율이라면 그 이자율이 아주 무한량 간다는 얘기야. 이자라는 말도 없이 말이야.

이러한 법이 얼마나 좋은데 그 이름을 붙여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고 논의를 하고, 이름을 붙여서 말할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이렇게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만 이 도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 하고, 재차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 갈 것도 없다. 이렇게 하나 하면 그 하나 하는 것을 그냥 공 안에 놔 버려라. 이거 하나 하면 이거 놔 버려라. 일거일동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누가 하겠느냐. 이 공 안의 도리니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다 놔 버려라.

그러면서 여여하게, 그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지키지 말라고 해도 자기는 지키게 되고, 계율이라는 이름 없이 철저하게 지키게 되고 아주 다양하게, 사람의 탈을 쓰고 진짜 사람으로서, 자유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수천 리 밖에도 내가 갔다 왔다 할 수가 있고, 수만 리 밖에도 갔다 왔다 할 수가 있고, 수천 리 밖을 내가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우주의 어떠한 공간의 어떠한 국토도, 어떠한 혹성도, 어떠한 생명도 다 만나서 다 상응할 수가 있다. 천리만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모습만 떨어져 있다 뿐이지 마음은, 즉 말하자면 한 정원에 모두 오손도손 살고 있으니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잘 운집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면서 서로 토론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도리를 알게 된다면 무슨 구애받을 게 있고, 무슨 공포심이 나고, 무슨 가난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이 말 저 말 붙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야. 이름도 붙을 게 없어! 따지고 보면 이 라이터다 또는 향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 붙을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여 놓지 않아도…, 이름을 이렇게 붙여 놨다 하더라도 이건 방편이니까 "어, 라이터하고 향하고 어디 갔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쓰면 이게 그대로 써지는 거예요. 그 여여함을 그대로 알아야지 이 이름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라이터라는 이름만 붙들고 늘어진다면 켜지도 못해요. 나중에 가서는 한 번도 켜 보지 못하고 그냥 망가지고 말아 버려요. 라이터도 망가지고 나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리고 말아요.

즉행으로 갑시다. 그리고 또 우리 여기서 일하는 분들은 즉설로 가고요. 그래서 즉설로 가서 즉행으로 하게 하고,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끄트머리에 가선 귀결을 짓는 것이 이것이 다 방편이고 이것이…. (녹음 안됨)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새기고 그냥 몰락 공 안에다 놔 버려라. 놔 버리는 게 목적이야.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들을 알았고, 고도 알았고, 모든 걸 알았으니까 나오기 이전으로 다 돌려보내라. 돌려놔 버려라.

"처음 마음" 이랬습니다, 처음 마음! 그런데 사실은 그 처음 마음이 나오기 이전이라! 처음 마음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느냐 이거야. 처음 마음이 처음 마음이 아니고, 아닌 것이 처음 마음이고, 처음 마음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처음 마음이라는 것도, 아까 마음이라는 것도 삼심이 다 공했으니까, 모두 우리가 여여하게 쓰는 것이 그대로 여여함이니 무슨 처음 마음이다 나중 마음이다 이런 이름 붙을 것도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전자에 여러분이 모를 때에 '이렇게 이렇게 가야 한다' 하는 걸 얘길 해 놓고선, "그것이 바로 네 주인공이 하는 거다. 네 심주가 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 나중엔 "그 심주마저도" 했으니 "그것도 이름해서 심주지, 그것도 몰락 놔 버려라." 한 것이 바로 그런 뜻에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생활 속에서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심으로 이름을 불러야지, 그 이름이 나라고 하고 너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글러 돌아갑니다. 그래 무심으로 이름 부르고 대답하고 이러면서 무심으로 그냥 여여하게 살고…. 아이, 그 사람도 참 못난 사람이지, 점심을 달랬으면 점심을 먹고 나갈 것이지 아니, 그거 한마디에 걸려 가지고서는 점심을 못 먹고 나가? 졸장부처럼? 아, "과거심 불가득 삼세심 불가득" 할 때 말이야. 아이, 그놈의 게 글쎄, "현재심에 점을 찍으랴, 과거심에 점을 찍으랴." 이랬을 때 배고프면 밥 먹는 것이 현재심이지 어떤 것이야? 거기서 밥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그냥 나가, 그래?

이런 것도 바로 객설이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왜냐. "그런 것도 왜 못 먹고 나가느냐." 하는 소리는 그분, 전자의 그분더러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현재의 여러분 중에 그러한 실수는 저지르지 마라. 현재의 여러분이 그런 말에 걸려서 점심 한 그릇 못 얻어먹고 갈 분이 있다면 그럭하지 마라.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캄캄한 데서 불 하나 켜지는 거 보고 대오를 하셨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안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도반으로서 같이같이 배우는 길에 있어서는 즉행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기차를 타도 빨리 가려면 '즉행'을 타야지, 버스도 '즉행'을 타야 하고 비행기도 '즉행'을 타야 빠르죠. 완행이 있고 그래선 안 되죠. 완행을 타다 보면 탈 사람도 다 없어진 연에 완행은 해 뭘 하고, 직행은 해 뭘 합니까? 나중에 직행을 타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깐 직행을 탈 놈이 없어져 버려. 그러니 차 놓치고 언제 손 들어?

그저 그거 하나 사인데, 그렇게 간편한 거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고 이만하면 자유스러운 것을, 뭣 때문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얽매여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빠지면 그냥이나 있나? 울며불며 나오려고 뒹굴고. 이게 무슨 짓들이냐 이 소리지.

그 생명수는 두루두루 온 누리를 다 적셔 주니 어느 생명 하나도 '받지 않았다, 받았다' 하지 않으면서, 바로 받으면서 우린 여여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이 시쳇말로 '공기로써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두루 하고 있는데 누가 부처님의 밝음을 받지 않았다고 보리까. 부처님은 개인 개인 하나 들어오는 대로 자비를 베푼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생명이 있다 하는 거는 다 비가 내려서 적셔 주듯이, 그렇게 공기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따뜻한 마음의 태양을 줘서 기르시고, 비를 줘서 적셔 주는데 그 생명들은 고마운 줄을 모르더라. 그렇게 적셔 주고 그렇게 살려 줘도 모르더라 이거야.

그러니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더라. 지수화풍으로 모였으니 불이 없어도 안 되고 물이 없어도 안 되고, 바람이 없어도 안 되고 태양이 없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근본 태생이 바로 흙의 태생이고 나중에 남는 것도, 사리가 남는 것도 그게 흙이라. 그게 흙이 구워진 거지 다른 거 없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지. 그러나 가고 옴도 없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둥글게 빛이 나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그대로 여여한데. 아니, 공기를 줄 때 돈 받고 줍디까? 허, 바람이 불어 줄 때 돈 받고 바람 불어 줍디까? 또 이 땅이 돈 받고 걸어 다니라고 합디까? 지금은 나라에서, 걸어 다니는 것도 돈을 받습디다, 받기는. 그렇지만 태양도 돈 받고 비춰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쓰는 거지 누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게 없어요. 구애받지 마세요. 그건 자기 마음으로 구애를 받게 만들어 놓고 구애를 받는 거뿐이에요. 본래 우리는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모두 마음으로 지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차원이 낮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졸린 것도 그것도 도라. 공 안에 나왔기 때문에 공했고, 공했기 때문에 졸림도 있는 거고, 눈도 반짝 뜨는 거고, 말도 하고 행도 하고 이러는 거지 아니, 그게 없으면 졸릴 게 뭐 있나? 그래서 말이야, 거기서…. (녹음 안됨)

둘이 아닌 그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이름조차도 없이 여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에누리 없이 비구 비구니가 없고, 여자 남자가 없고, 애 어른이 없고 그런 도리, 그런 공 안에 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중략)

'내 한 몸뚱이가 이렇게 가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의 넋을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난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까짓 몸뚱이야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몸을 갈아서 가루가 돼서 없어진다 해도 여러분이 이 부처님의 뜻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서슴지 않고 내 백 개라도, 천 개, 만 개라도 부숴 버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부숴서 될 일이 아니더군요. 내가 그러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만 해도 바다를 메우고, 아마 바다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다를 삼킬 수 있는 그 눈물이었다는 걸 생각할 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눈물로 하여금 바다를 이뤘고 바다를 이뤘기 때문에 그 바다를 마실 수 있었다는 점 말입니다.

그런데 이 봉투가 뭡니까. 이런 게 무슨 나한테 해당이 됩니까마는 여러분이 그 뜻을 아시고서 이렇게 갖다 주시는 거, 여러분이 갖다 주는 사이 없이 갖다 줬고 받은 사이 없이 적절하게 써 나가는 이 행이, 모두가 내 마음에 달린 겁니다. 마음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마음이지, 이놈이 하는 게 아니란 얘깁니다. 이놈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놈이 도대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한번 그런 말이 나와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천지와 더불어 같이, 그분네들과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거든요. 아무렇지 않으면서도 여기에서는 같이 울고 있다. 그 쾌활 쾌활이라는 거는 울면서도 쾌활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한 마음으로서 감동하니 같이 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빗물도 될 수 있고, 에너지도 될 수 있고, 공기도 될 수 있고요. 물이 한데 뭉쳐서 공기가 될 수도 있고요. 참 모두가 다양하게, 피도 이룰 수가 있고요. 참 좋은 거랍니다.

부처님 뼈다귀는 우려도 우려도 나오듯이 그 뼈다귀 속에서, 뼈다귀도 없는 그 속에서 같이, 그 마음과 마음이 감동해서 서로 우는 눈물은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눈물, 그 눈물입니다. 이 세상을 주고 그 눈물 한 방울하고 바꾸려 하면 바꾸지 못합니다.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다 준대도 그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진정입니다. 바꿀 수 없고말고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한 것을
뭣 때문에 그렇게 얽매여서 아둥바둥하고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사십니까.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4년 4월 10일 일반 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현불 논단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사람으로 태어남은 쉽지 않은 인연
성찰하고 내생을 그리는 유일 존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보며 마음 아파
인간 내면의 어두운 힘으로 인한 것

탐욕 · 성냄 · 어리석음이 어두운 힘
삼독심 해체는 개인의 깨달음 넘어
사회윤리적 차원서 폭넓게 접근해야

참여불교 화두인 '깨달음의 사회화'
모두에게 자비희사 정신 필요한 때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는 동물해방론을 주장한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저서 〈How Are We To Live〉의 국내 번역판 제목이다. 요즘 신문 지상과 TV 화면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면 인간 삶의 모습이 이래도 되는지 가슴이 아프게 저린다. 불경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매우 많다. 사람은 자신을 성찰하고, 죽음을 예비하고, 내생을 그려보는 지구별의 유일한 존재이다. 깨달음과 자비의 길을 통해 열반의 언덕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귀한 존재이고, 엄청난 행운의 존재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을 보면 인간의 야만성에 새삼 놀라워진다.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증오의 세기: 20세기는 왜 피로 물들었는가〉에서 세계 1 · 2차 대전과 한국 전쟁을 다루면서 악, 증오, 살인, 성폭력, 대량학살, 인종 청소 등 전쟁의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인간 내면에 꿈틀대고 있는 '어두운 힘들(dark forces)'에 주목하고 있다.

그 어두운 힘이 바로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三毒)이다. 이러한 삼독의 마음은 타자에 대한 공격성의 원천이다. 공격성은 자아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 자아를 해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욕망 때문에 촉발된다. 이 자아에 대한 강력한 집착과 거기에 항상 따라붙는 내 소유물, 내 나라, 내 인종과 같은 생각들은 이방인 또는 타인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으로 이어지는 분명한 경계심을 만들어 낸다. 붓다 가르침의 목표는 이러한 자아의 집착 그리고 자아와 함께 갈등을 일으키는 두려움과 갈등을 해체하는 것이다.

붓다 자신도 삼독심의 파고에 샤카족이 멸망하는 비운을 겪는다. 붓다는 코살라국의 위두다바 왕자가 샤카족을 멸족시키기 위해 행군하는 길목에 서서 세 번이나 일종의 1인 시위를 하면서 설득하였으나 멸족을 피하지 못하였다. 샤카족의 멸망을 들은 붓다는 머리에서 김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고 한다. 이러한 고통이 문명화되었다는 21세기 지구촌 곳곳에서 지속되고 있으니 이를 어이하랴.

탐진치(貪瞋痴) 삼독심의 해체는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수행으로 간주되어 왔고 동시에 개인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삼독심의 해체는 개인 윤리적인 차원에 못지않게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 폭넓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진치 삼독심은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와 제도,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이르기까지 침투해 있다. 따라서 탐진치의 해체는 공동체가 짓는 공업(共業)의 영역으로 확대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는 참여 불교의 화두인 '깨달음의 사회화'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삼독심의 해체는 바로 사무량심(四無量心)에서 출발한다. 사무량심은 초기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체계로서 자(慈), 비(悲), 희(喜), 사(捨)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른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그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사무량심은 후에 불교의 대표적인 덕목인 자비로 자리 잡는다. 자비는 친절, 공감, 관대함, 수용 그리고 용기와 인내와 평정이라는 실들이 골고루 사용되어 짜여진 옷감이다. 자비 없는 인간 삶은 비극이다. 따라서 자비 없는 불교는 없다. 〈잡보장경〉에 두 날개에 적시는 물로 큰 산불을 끌려는 앵무새의 이야기가 가슴에 다가온다.

"제 마음은 매우 넓으므로 부지런히 힘쓰면 불을 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몸이 불을 끄지 못하면, 다음 생의 몸을 받아 맹세코 불을 끄고야 말 것입니다."

제석천왕이 그 뜻에 감동하여 큰비를 내렸고, 불은 꺼졌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전쟁과 승려

④ 칼의 노래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승려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 김훈 작가는 〈칼의 노래〉에서 일본 승려의 모습을 냉소적으로 묘사했다. 가령, 아래와 같은 대목이다.

"적들은 불법의 신통력이 전투를 인도해 주기를 기원했다. 임진년 개전 이후, 깨뜨린 적선 내부를 수색해 보면 적장의 선실 안에서는 〈법화경〉이나 〈연화경〉 책이 발견되기도 했다.(…)

선실 안에 불단을 차려놓고, 승려를 배에 태우고 다니는 자들도 있었다. 나의 부하들은 흔히 생포된 적의 승려를 배에서 목 베어 바다에 던졌다. 승려는 합장한 자세로 염불을 외면서 칼을 받았다. 염불을 외던 입에서 피가 쏟아졌다. 포로까지 먹일 만한 군량이 나에게는 없었다. 내 장졸들은 〈나무묘법연화경〉의 깃발을 찢어서 부상자들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올이 촘촘한 그 비단 깃폭은 상처를 싸매기에 좋았다. 헐벗은 내 장졸들은 그 비단 깃폭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노 젓는 그들의 등판에 법(法)자나 경(經)자의 획이 드러나 있었다."

위 내용은 픽션, 즉, 작가가 상상력으로 창조한 것이나 전시 상황에서는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최근 월간 〈불광〉에서 발표된 '왜군과 함께 온 일본 스님들'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승의 역할이 명확히 명기돼 있다.

텐케이라는 승려는 "전란 중 타국살이였지만 매일 술에 취해 여흥을 즐기는 등 제법 윤택한 생활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고상한 한시로 포장돼 있지만, 그 내용은 '국화를 보니 술 생각이 나고, 죽기 전에 술이나 먹자'는 것이다.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을 적극 지지하는 승려도 있었다. 일본 종군승 슈쿠로는 〈도덕경〉의 '대국을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우리 군은 개선해 군영으로 돌아와서 베어온 귀를 요시카와 경의 앞에 늘어놓았다. 경이 말하기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다친 호랑이를 남겨두는 꼴이다. 노약자, 부녀자를 가리지 말고 한꺼번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골이 나뒹구는 전쟁터에서 일본의 종군승들이 제대로 본분(本分)을 지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자국의 승리를 위해 민간인 학살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몸이여, 이슬로 와서 이슬로 가니, 오사카의 영화여, 꿈속의 꿈이로다"라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절명시(絶命詩)를 읊조리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으로 둘러싸인 이순신 장군의 눈에는 그저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만이 아군이었고, 서산대사, 사명대사 등 승병장들은 헐벗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파계를 무릅쓰고 무기를 들었다. 일본 승려가 외는 경전 구절과 조선 승병장이 외는 경전 구절이 다를 수는 없다. 민족주의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을 침략하는 파시즘의 논리도 되지만, 침략을 막는 저항의 논리도 된다.

어쩌면 일본 승려와 조선 승병장의 차이를 가르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전리품에 목마른 침략자를 위해 기도하느냐, 아니면 주린 배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느냐. 〈소설가〉

社 說

조계종 여성불자회에 거는 기대

처음으로 조계종 여성신도들로 구성된 단체가 출범한다고 한다. 바로 (가칭)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다. 전국교구본말사를 주축으로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온 여성불자들과 포교활동가들이 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발기인명단에 이름을 올린 여성불자들만 1000명이 넘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토대로 전국 각지에서 여성신도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면 인적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포교 · 신행 또한 자연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종단적인 지원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증명으로 포교원장 범해 스님이 설립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자문위원은 법계위원장, 법규위원장, 중승대 총장, 동국대 총장, 역대 교육원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이 담당한다. 이밖에도 교구본사 주지, 전국비구니회장, 중앙종회의원, 조계사와 봉은사 등 주요사찰 주지가 지도법사단으로 활동한다.

그야말로 조계종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여성불자들이 활개를 펼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해 새로운 여성 포교의 장을 열겠다"는 설립추진위원장 범해 스님의 약속 또한 이 같은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오랜 세월 여성불자들은 한국불교를 지탱하는 힘이 돼왔다. 사찰 운영부터 지역 봉사활동과 기도신행모임 등의 구심점으로 활동하면서 사찰을 중심으로 봉사와 보시를 통한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 조계종 여성불자회 출범을 계기로 이같은 역할 또한 더욱 확대되고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불교계 전반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가 만들어 갈 변화를 기대한다.

광주역사둘레길, 종교편향 오명 벗을까

지자체 예산이 투입된 가톨릭 순례길 조성으로 종교편향 논란에 직면했던 경기도 광주시가 사업계획을 대대적으로 수정해 '광주역사둘레길'을 통한 화합을 도모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과 광주시는 최근 광주역사둘레길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광주역사둘레길은 남한산성, 천진암, 신익희 생가, 허난설헌 묘, 나눔의 집, 조선백자 도요지, 화담숲, 경안천 생태습지공원 등 광주 곳곳에 흩어져있는 종교 · 역사 · 문화 · 생태자원을 묶어 하나의 길로 재탄생시키고자 추진된다. 기존 광주시가 추진했던 순례길이 사실상 가톨릭 성지 중심으로 편중돼 있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나아가 광주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남한산성 내 폐사된 8개 사찰들을 순차적으로 복원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갖고 있다.

신동헌 시장은 협약식에서 남한산성과 천진암을 포함한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에 대해 재차 사과한데 이어, "광주역사둘레길이 불자와 국민들이 힐링하는 공간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광주시는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눔의집을 비롯해 천진암과 남한산성 등 불교계 원력과 역사가 담긴 공간까지 포함시키면서 불교계 공분을 샀다. 뒤늦게나마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획을 변경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이번 사례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종교를 중심으로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한 경각심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광주역사둘레길 조성사업이 종교편향 오명을 벗고 진정한 사회통합과 종교화합의 상징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대표이사 : 혜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4, 821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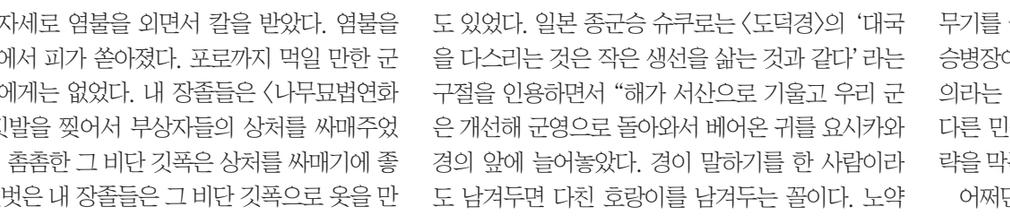
輦(연)

∞ 창립 40주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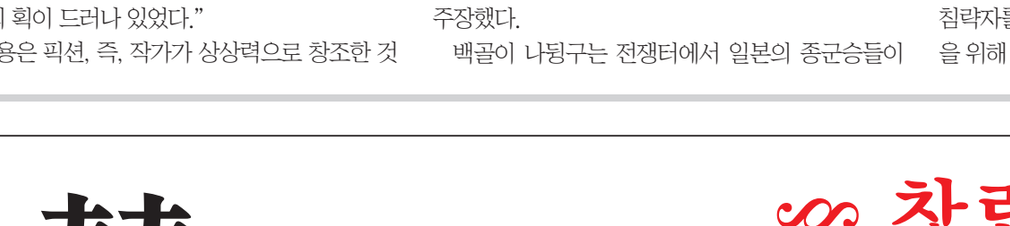
한 올 한 올의 정성이 명품을 만듭니다.

사찰 모든행사에 필수적인 의식구

49재 천도재 예수재 영산재 수륙재 등 각종 행사



인로왕번 아미타번 삼신번 오방번 좌보처 지장보살 우보처



항마진언 보고번 영가번 구병시식 산신번 관세음 용왕번 대세지번 옴마니번

규격 : 480x2000



3단 조립식

*몸체길이 가로 650x세로 1100

*가볍습니다. 20kg

닷집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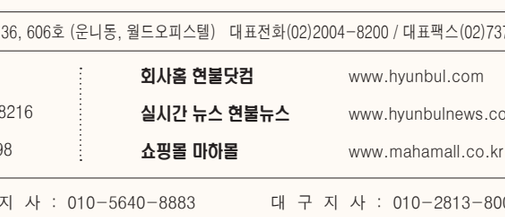


반야용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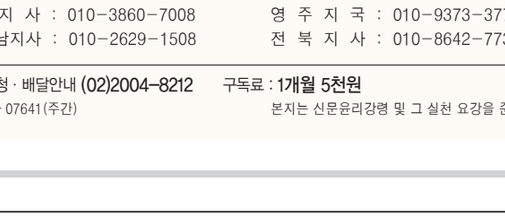
규격 : 높이 1300 x 길이 1600

감사행사 (번)幡

오래전에 저희 회사에서 구입하신(퇴색 및 훼손)된 번 교환시 20% 할인금액으로 새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기간 : 2월 30일 까지



시왕번 규격 : 180x1400



칠여래번 규격 : 350x1400

한국불교전통의식구

주소:서울 중랑구 상봉중앙로 10길 8 풍산쉐르빌 105동 201호

전화번호:010-8441-6814

불기256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는 "기능성 마스크"로 준비하세요.
보시용으로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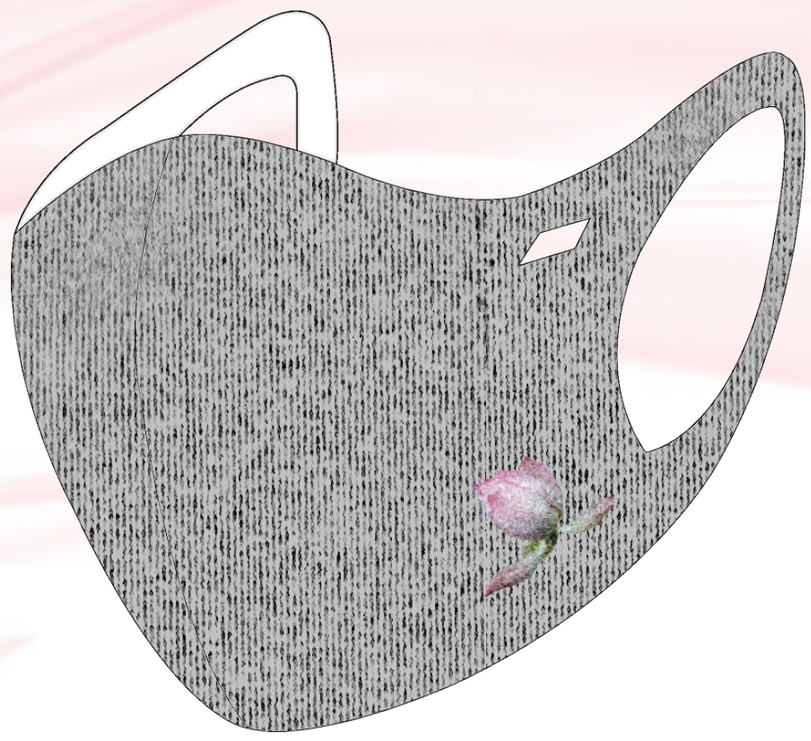
FDA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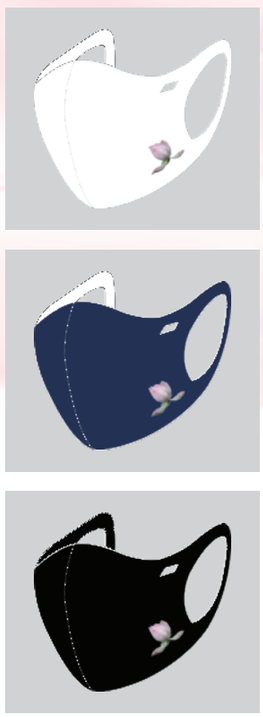
20회 세탁 후에도 90% 기능유지!
기능성 비말차단 패션·구리·연꽃마스크

패션마스크 (연꽃문양/4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92%, 스판 8%
- **색　상** : 연회색, 백색, 청색, 검정색
- **판매가** : 4개 1셋트 15,000원 (개당 3,75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2,500원	(개당) 2,400원	(개당) 2,300원	(개당) 2,200원	(개당) 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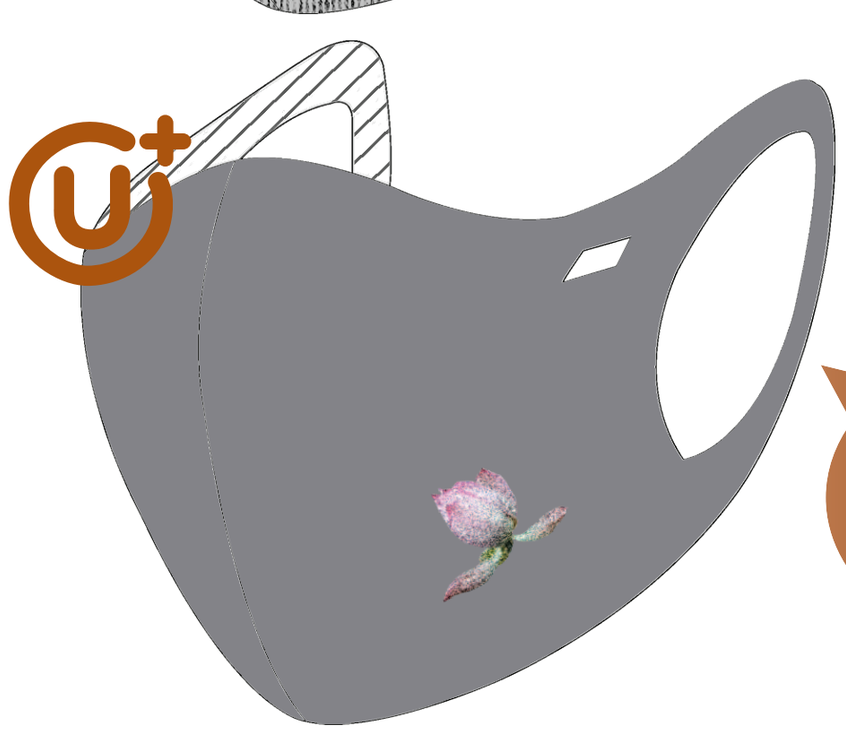




구리마스크 (연꽃문양/진회색)

- **재　질** : 폴리에스테르 81%, 구리 7%, 스판 12%
- **색　상** : 진회색 (그외 색상 주문 가능)
- **판매가** : 4개 1셋트 22,000원(개당 5,500원)
  / 3만원 이하 택배비 3,000원 별도
  (제주·도서지역 택배비 6,000원)
- **기능성 순수 국산원단 사용**

100개	300개	500개	1,000개	2,000개
(개당) 3,500원	(개당) 3,400원	(개당) 3,300원	(개당) 3,200원	(개당) 3,000원



구리마스크는 일반마스크보다 항균력이 탁월합니다.

연꽃마스크 (연꽃문양/5색)

2중 압축 NEW!!

기능성 비말차단 **연꽃마스크**는 이중압축으로 제작하여 기존 제품보다 발수기능이 우수한 **숨쉬기 편한 마스크** 입니다.



연회색　블랙



화이트　연분홍　스카이블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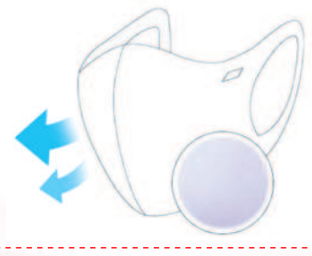
기존제품과 다른점

1. 바깥면의 발수기능이 기존제품보다 우수합니다.
2. 이중 압축으로 기존제품보다 얇아 숨쉬기가 편안합니다.

색상별 1세트 (100장)
~~550,000원~~ → **350,000원**

Deodorization 소취 / Antibacterial 항균 / Anti-Splash 비말차단
UV Protection UV차단 / Fast Drying 빠른건조 / Reusable 재사용가능

AeroCool™
코오롱의 AeroCool™원단은 특수 원사단면제어 기술을 적용해 천연섬유보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빠르게 건조 가능한 기능성 소재입니다.



※ 연꽃마스크는 주문제작상품으로 제작기간은 5~7일 소요　※ 최소주문수량은 색상별로 100장 이상
※ 색상 및 디자인 변경가능하오며, 로고 및 사찰명 인쇄시 장당 300원 별도 추가됩니다.
※ 대량주문 및 전체디자인 변경 등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문의 : 02)732-1520 www.mahamall.co.kr